

제죽말의 이해

고동호 · 송상조 · 오창명
문순덕 · 오승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19

제죽말의 이해

고동호·송상조·오창명

문순덕·오승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발 간 사

제줏말은 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하여 온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제줏말은 제주 사람들의 정체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함의하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줏말은 표준어 사용 확대에 따른 사용자 수 감소 등의 이유로 소멸 위기가 거론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제줏말의 생명력 회복이 제주 사회의 중요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제줏말의 생명력 회복에는 이 언어를 모어로 하는 분들의 제줏말에 대한 이해와 가치 인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의 활발한 사용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 기초하여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제줏말 이해에 길잡이 역할을 할 도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제줏말의 이해와 활용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열개와 내용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책은 제줏말을 이해하려는 다양한 목적과 배경을 가진 분들께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선 학교나 다양한 사회 교육 프로그램에서 교재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와 같은 자료의 발간과 활용이 밀알이 되어 제줏말이 제주 사회에서 일상 언어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도서의 발간을 위해 중지를 모아 애쓰신 다섯 분의 연구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15년 12월

제주발전연구원장 강 기 춘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제주말을 이해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학생과 일반인들의 학습 및 교육 자료로 발간되었다.
2. 가능한 한 학교 문법의 체계와 용어를 수용하였다.
 - 2009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 교과서 6종을 참고하여 열개를 짜고 내용을 작성하였다.
 - 용어는 교육과학기술부 발행 『교과서 편수자료(Ⅱ)-인문·사회·과학/체육·음악·미술 편-』(2011)에 따랐다.
 - 특정 개념에 대한 용어가 둘 이상 제시된 경우 독자들에게 익숙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 표준어와 상이한 제주말의 특성으로 인해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 쓴 경우도 있다.
3. 단어나 형태소의 지역적 변이형들은 일부 또는 대표적인 것만 제시한 경우가 있다.
4. 예문은 제주말을 모어(母語)로 하는 60대 이상의 남녀 어르신들에게서 채록한 내용을 바탕으로 하였다.
5. 제주말의 표기는 「제주어 표기법」(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4-115호, 2014.7.18.)을 따랐다.

차 례

제1장 길잡이	1
1. 제춧말의 가치	1
1.1 제춧말 · 1	1.2 제춧말의 일반적인 가치 · 3
1.3 제춧말의 국어학적 특징 · 5	
2. 제춧말의 실태	9
2.1 제춧말의 현실 · 9	2.2 제춧말의 위기 · 10
2.3 제춧말의 보전 · 13	
제2장 소리	17
1. 소리의 종류와 관계	17
1.1 소리의 목록 · 17	1.2 소리의 관계 · 23
2. 소리의 바뀜	27
2.1 교체 · 27	2.2 탈락 · 32
2.3 첨가 · 34	2.4 축약 · 36
제3장 단어	39
1. 형태소와 단어	39
1.1 단어의 개념 · 39	1.2 형태소 · 41
2. 단어의 구조와 형성	45
2.1 단어의 형성 · 45	2.2 한자에 의한 단어 형성 · 64
3. 단어의 기원	69

3.1 고유어·70	3.2 한자어·74
3.3 차용어·78	3.4 혼종어·84
4. 단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 87	
4.1 단어의 의미·87	4.2 다의 관계와 동음이의 관계·88
4.3 상하 관계·89	4.4 유의 관계·90
4.5 반의 관계·91	4.6 의미 변화·92
5. 단어의 분류····· 94	
5.1 단어 분류의 기준·94	5.2 체언·101
5.3 관계언·106	5.4 용언·119
5.5 수식언·133	5.6 독립언·141
제4장 문장 ····· 143	
1. 문장 이해의 기초····· 143	
1.1 문장과 문법 단위·143	1.2 문장 성분·144
2. 문장의 확대····· 148	
2.1 홑문장과 겹문장·148	2.2 안긴문장과 안은문장·149
2.3 이어진문장·160	
3. 문장의 표현····· 161	
3.1 종결 표현·161	3.2 피동과 사동 표현·163
3.3 시간 표현·170	3.4 높임 표현·201
3.5 부정 표현·210	
참고 문헌 ····· 221	
찾아보기 ····· 225	

제1장 길잡이

1. 제줏말의 가치

1.1 제줏말

제줏말은 행정구역상 추자도와 추자면에 속한 부속 섬을 제외한,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제주 사람들이 예로부터 지금까지 써 온 모어(母語, mother tongue)를 말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로부터 써 온 우리나라 말을 ‘우리말’ 또는 ‘국어’라 하듯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사는 제주 사람들이 예로부터 써 온 말을 ‘제줏말’ 또는 ‘제주도방언(제주방언)’이라 한다.

‘우리말’은 사용 지역 또는 사회 계층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차이가 있는 말을 일반적으로 방언(方言)이라 한다. 그래서 일제강점기부터 제주 지역에서 쓰는 제줏말을 제주도방언 또는 제주방언이라 해왔다. 그리고 우리말 가운데서도 표준어의 기초가 되는, 서울 사람이 쓰는 말을 서울말이라 하듯이, 제주 사람이 쓰는 말을 ‘제줏말’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제주도방언’이나 ‘제줏말’을 ‘제주어’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글의 필자들은 ‘제줏말’로 통일해서 쓰도록 했다. 그러므로 이하 모든 글에서 ‘제줏말’이라는 용어를 쓰도록 한다.

여기서 우리는 ‘제줏말’의 범위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넓은 의미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서, 제주 사람들이 쓰는 말 모두를 제줏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 제주도에 사는 젊은이들이 쓰는

말을 모두 제줏말이라 하기는 어렵다.

가령 아버지와 어머니, 또는 그 이상 세대에서 거의 쓰지 않았던 ‘아빠’나 ‘엄마’와 같은 말은 제주 젊은이들이 흔히 쓰는 말이기도 하다. 좁은 의미로 제줏말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오늘날은 ‘산(山)’이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산’에 대응하는 제줏말로 ‘오름’이나 ‘오름’, ‘메’나 ‘미’ 등을 써 왔다. 그러므로 ‘오름’이나 ‘오름’, ‘메’나 ‘미’ 등은 제줏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제줏말’은 사회 방언이나 계층 방언을 다루지 않고, 지역 방언만을 다루려고 한다.

제주도 안에서도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말이 있다. 표준어 ‘매미’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지역에 따라서 ‘재열’, ‘재’, ‘자’, ‘자리’ 등으로 불린다. 가령 옛 제주시 지역, 애월읍 지역, 한림읍 지역, 한경면 지역, 대정읍 지역, 안덕면 지역, 옛 중문면 지역, 옛 서귀포시 지역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열’이라고 한다. 그러나 구좌읍 지역에서는 ‘재’ 또는 ‘자’라고 하고, 성산읍과 표선면 지역에서는 ‘자리’라고 한다.

이와 같이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어휘가 있더라도, 이들 방언은 모두 제줏말이라 할 수 있다.

방언 조사를 할 때, 제보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정하게 된다. ‘토박이여야 한다는 것, 나이가 60~70대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 제보자를 비롯하여 위로 3대 정도는 그 지역에서 살아야 할 것, 가능한 한 학력이 높지 않고 공직 생활, 외지 생활, 외국 생활 등을 하지 않아야 할 것’ 등으로 기준을 정하게 된다.

여기서 언급하는 제줏말 자료도 가능한 한 이와 같은 기준을 충족한 상태에서 조사된 것을 쓰려고 했다.

1.2 제줏말의 일반적인 가치

제줏말은 제주 사람들의 사상이나 사고, 생각이나 느낌 따위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므로 제줏말을 제대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 사람들은 제줏말을 통해서 세계를 인식하고 세계에 이름을 붙이고, 그로부터 개념과 의미를 만들어 사색을 하고 사회구성원 사이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제줏말로써 제주 문화를 표현하고 전달해 왔으니, 이 제줏말이야말로 제주 문화의 원천이라 할 수 있다.

“김을 매거나 감자·고구마 따위를 캐 때 쓰는, 쇠로 만든 농기구”를 중세국어에서는 ‘호미’라 했다. 근대국어에서는 ‘호미’라 하고, 현대국어에서는 ‘호미’라 하고 있다. 이 말은 만주어 homin에서 차용된 말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호미’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중계호미’에서 확인되는 ‘호미’는 물론, ‘굴계/굴쟁이/굴계기/굴각지’ 등으로 쓰이고 있다. ‘굴계/굴쟁이/굴계기/굴각지’ 등은 현대국어 ‘값다(날카롭고 뾰족한 끝으로 바닥이나 거죽을 박박 문지르다)’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굽다[刮]’에서 파생한 것이다.

곧 ‘굴계/굴쟁이/굴계기/굴각지’는 모두 ‘굽-’에 접미사 ‘-에/-엥이/-에기/-악지’ 등이 덧붙여서 쓰인 것이다. 이들은 독특하게 만들어진 고유어일 뿐만 아니라, 제주 사람들의 사상을 제대로 반영한 말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말은 농사를 짓는 곳에서 지금도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

제줏말에는 제주 사람들의 문화가 담겨 있다. 그러므로 제주 사람들의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제줏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한다. 표준어 ‘연자매(연자마)’나 ‘연자방아’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물방아/물방에/물벙이/물꺾레/물꺾랑’ 등으로 쓰였다. 예전에 ‘물’을 이용해서 방앗돌을 굴려 곡식의 겉껍질을 떨어내거나 찢는 방아라는 데서 그렇게 부른 것이다.

그런데 1970~80년대부터 현대식 정미소와 정미기가 들어서면서 이 말은 점차 사라지게 되어, 지금은 나이 많은 사람들의 말에서나 확인 할 수 있는 것이 돼 버렸다.

현대식 정미소와 정미기가 들어서면서 ‘기꺽방/화룽방/클방/방앗간/방엿간/방엿공장’ 등과 ‘기꺽방에/화룽방에/클방에’ 등과 같은 말도 새롭게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말들은 ‘물벙이’나 ‘물꺾레’, ‘물꺾랑’보다도 더 빨리 잊혀서 사라지는 듯하다.

‘기꺽방’은 말 그대로 ‘기계(器械)’가 들어선 방(房)이란 데서 만들어진 말이고, 이곳에 들어선 기계인 방아를 ‘기꺽방에’라 했던 것이다. ‘화룽방’은 기계가 돌아가는 소리인 ‘화룽’을 따서, 화룽화룽 돌아가는 기계가 설치된 방이란 데서 만들어진 말이다. 이곳에 설치된 기계인 방아는 ‘화룽방에’라 했다. ‘클방’은 기계를 이르는 고유어 ‘틀’의 제주말 ‘클’에 한자어 방이 덧붙여 이루어진 말이다. 이곳에 설치된 기계인 방아는 ‘클방에/클방이/클벙이’ 등으로 불렸다. ‘방엿공장’은 ‘방아’의 변음 ‘방에’에 한자어 공장(工場)이 덧붙고, 그 사이에 된소리가 나면서 실현된 말이다.

이와 같이 제주말은 제주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다.

제주말을 제대로 이해하면 제주 사람들의 사상과 문화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1.3 제죽말의 국어학적 특징

제죽말의 국어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말해왔다. 그 가운데 하나는 바로 우리나라 방언 가운데 가장 동떨어진, 표준어나 다른 지역 방언에 없는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특징으로, 먼저 들 수 있는 것이 독특한 말소리이다. 그 말소리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으)’ 소리가 실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 제죽말에서 쓰이고 있는 ‘·’ 소리는 중세국어 때부터 있었던 것이 그대로 유지된 것도 있고, 근대국어시기에 변해서 쓰이게 된 것도 있다.

- 뉘[月], 뉘[馬], 술[膚], 흑[土], 궂다[曰], 뉘다[走], 흑다[爲]

이들은 중세국어에서도 ‘·(으)’를 모음으로 가지고 있던 말들이다. 이 ‘·(으)’의 실제 발음에 대해서는 몇 가지 이견이 있다.

이기문(『국어사개설』, 1998:150~151)과 김한곤(1980)은 ‘으’가 중세국어에서 [ɿ]로 쓰였지만, 현대 제죽말에서는 [ɔ]로 쓰인다고 했다.

영어 발음 [ɔ]는 ‘아’보다 약간 높은 위치에서 발음되는 후설 이완 저모음으로, ‘아’보다 입술을 약간 더 둥글게 한 상태에서 발음된다. [ɔ] 발음은 영어 cough의 영국식 발음 [kɒf], 영어 cot의 영국식 발음 [kɒt], 영어 impossible의 영국식 발음인 [ɪmpɒsəbl], 영어 stop의 영국식 발음 [stɒp]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stop의 미국식 발음은 [stɑ:p]이어서, 우리말의 ‘아’ 발음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한편 표준어 ‘흙’[土]에 대응하는 제죽말 ‘흑’은 ‘흙담’[土牆]과 같은 말에서는 ‘흙’로 쓰이고, 이와 달리 ‘흑’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러므로 중세국어에서 ‘흙’으로 쓰인 것이 제죽말에서는 ‘흑’, ‘흙’, ‘흑’으로 변하여 쓰이고 있는 것도 눈여겨봐야 한다.

제ڑ말의 또 다른 특징의 하나는 문법 형태소가 특이하다는 것이다. 우선 조사로서 들 수 있는 것은 ‘굴이[ㄱ치]/굴이[ㄱ찌]’, ‘신디’, ‘ㄱ라’ 등이다. ‘굴이[ㄱ치]’와 ‘굴이[ㄱ찌]’는 표준어 조사 ‘같이’에 대응하는 것으로, 중세국어 ‘ㄱ티(굴+ㅎ--+이)’의 변음이라 할 수 있다. ‘신디’와 ‘ㄱ라’는 의미상 여격 조사 ‘에게’에 대응하는 것으로, 각각 동사 ‘시-(有/在)’와 ‘굳-(曰)’에서 온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것은 어미이다. 선어말 어미 ‘-앗-/~엿-/~아시-/~어시-’, ‘-암-/~엄-/~않-/~엿-/~암시-/~엄시-’, 그리고 어말어미 ‘-가/-고’, ‘-ㄴ디아/-ㄴ다/-ㄴ다’, ‘-ㄴ디아/-ㄴ다/-ㄴ다’, ‘-ㄴ디아/-ㄴ다/-ㄴ다’, ‘-과/-광/-괘/-괘’, ‘-안/-언’, ‘-앙/-영’ 등이 쓰인다.

제ڑ말 ‘-앗-/~엿-/~아시-/~어시-’ 등은 표준어 시간 표현 중 하나인 과거 시제 ‘-았-/~었-’에 대응하는 것이다. ‘-암-/~엄-/~않-/~엿-/~암시-/~엄시-’ 등은 시간 표현 중 하나인, 진행의 동작상을 나타내는 ‘-고 있-’에 대응하는 것이다.

제ڑ말 ‘-가’는 판정 의문문의 종결 어미로 쓰이고, ‘-고’는 설명 의문문의 종결 어미로 쓰인다. 이것은 중세국어의 형태와 용법이 거의 그대로 전해진 것이다.

‘-ㄴ디아/-ㄴ다/-ㄴ다’ 등은 중세국어 ‘-ㄴ다’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주로 2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이고, 동사 어간이나 어미 뒤에 붙어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인다. 특히 제ڑ말에서는 ‘-ㄴ디아’ 또는 ‘-ㄴ다’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이 형태가 ‘-ㄴ다’보다 앞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제ڑ말 ‘-ㄴ다/-ㄴ다’ 등은 주로 2인칭 대명사와 함께 쓰이고, 동사 어간에 붙어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인다. 주로 현재 진행의 일을 물을 때 쓰인다.

제줏말 ‘-르디아/-르다/-르다’ 등도 중세국어 ‘-르다’에 대응하는 것이다. 둘 다 동사나 형용사 어간 뒤에 붙어서 ‘-겠느냐’ 정도의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인다.

‘-과/-광/-꽈/-꽹’ 등은 선어말 어미 ‘-암수-/-엄수-’나 ‘-수-/-우-’ 등의 뒤에 쓰여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인다.

‘-안/-언’ 등은 시간적 선후 관계, 이유나 근거, 수단이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이기도 하고,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기도 한다. 특히 시간적 선후 관계에서는 주로 과거를 나타낼 때 쓰인다.

‘-양/-영’ 등도 시간적 선후 관계, 이유나 근거, 수단이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로 쓰이지만,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로 쓰이지는 않는다. 특히 시간적 선후 관계에서는 주로 현재를 나타낼 때 쓰인다. ‘-안/-언’과 ‘-양/-영’은 대립 관계에 있으므로 호응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다.

특이한 어휘, 독특한 어휘가 많다는 것도 제줏말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베염/버염[蛇], 게염지/게염지/게에미[蟻]
- 남초(담배), 대사니/콍대사니[蒜], 손지(孫子), 췌당(眷黨)
- 가레물/가라물, 적다물/절따물, 율라물/율레물

‘베염’과 ‘버염’은 ‘뱀’[蛇]의 중세국어 ‘비얌’이나 ‘브얌’ 등에서 변한 것이다. ‘게염지’나 ‘게염지’, ‘게에미’ 등은 ‘개미’[蟻]의 중세국어 ‘개야미/가야미’에서 변한 말이다.

‘남초’는 한자어 南草(남초)에서 온 제줏말이다. ‘대사니’는 한자어 大蒜(대산)에 명사를 형성하는 접사 ‘-이’가 붙어서 만들어진 제줏말

이고, ‘콥대사니’는 이 ‘대산이[대사니]’ 앞에 ‘쪽(마늘 쪽)’을 뜻하는 고유어의 변음 ‘꺾>콥>콥’이 덧붙어서 만들어진 제줏말이다.

‘손지’와 ‘권당’은 각각 한자어 孫子(손자)와 眷黨(권당)의 한자음이 변하여 만들어진 제줏말이다.

‘가레물/가라물’, ‘적다물/절따물’, ‘월라물/월레물’ 등의 ‘가레/가라’, ‘적다/적데’, ‘월라/월레’ 등은 모두 고려시대에 몽골말의 영향으로 쓰인 것인데, 이미 중세국어에서 ‘가라물’, ‘절따물’, ‘월라물’ 등으로 쓰이게 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제줏말에 남아 쓰이는 몽골 말의 이름은 중세국어가 그대로 전해지는 것도 있고, 조금 변해서 전해지는 것도 있다.

‘호미’는 만주어 homin에서 차용되어, 중세국어에서는 ‘호미’로 쓰이고, 근대국어에서는 ‘호미’로 쓰인 뒤에, 현대국어에서 ‘호미’로 전하고 있다. ‘호미’는 표준어에서 김매는 도구를 이르지만, 제줏말에서는 주로 풀을 베거나 해초(海草) 따위를 베는 것을 일컫는데 의미상 표준어와 조금 다르다.

‘공구리/공그리’와 ‘도라꾸’, ‘오라이’, ‘빠꾸’, ‘다이아/다이야’ 등은 일본어를 통해 들어온 영어 차용어이다. ‘공구리/공그리’는 영어 ‘콘크리트(concrete)’의 일본어 ‘コンクリート’(공구리잇도)에서 온 말이다. ‘도라꾸’는 영어 ‘트럭(truck)’의 일본어 트럭(도랏그)에서 온 말이다. ‘오라이, 빠꾸, 다이아/다이야’ 등도 영어 ‘올 라이트(all right), 백(back), 타이어(tire)’ 등의 일본어식 발음을 통해 들어온 말이다.

2. 제춧말의 싯태

2.1 제춧말의 현실

우리나라에는 온 국민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어(국어)가 있고, 각 지역 사람들이 오랫동안 사용해 온 지역 방언이 있다. 그런데 지역 방언은 사용자 수가 줄어들고 표준어에 밀리면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다. 단순히 방언 사용자 수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지역 방언 가운데 제춧말이 유독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

물론 제주 사람들은, 제춧말에는 중세국어의 모습이 많이 남아 있고(특히 ㅑ 모음), 제주 문화의 다양성을 표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여긴다. 또한 제주 사회가 다변화되고, 지역 정체성 확립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면서 제춧말에 대한 기대도 높은 편이다.

그래서 제주지역에서는 제춧말의 소멸 속도를 늦추려는, 특별한 언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세대와 지역에 따라 제춧말 소통에 격차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이다.

그러나 제춧말 보전이 행정기관의 정책 추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주 사람들이 제주라는 지역에서 제춧말 사용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이 성립되어야 한다. 또한 제춧말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개인과 사회의 용기와 책임이 필요하다.

제주 사람들은 막연히 제춧말 사용 인구가 감소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나, 완전히 소멸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은 드문 편이다. 우리들의 바람대로 제춧말이 소멸하지 않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용 가능하려면 지금이라도 제춧말의 현실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2.2 제줏말의 위기

언어는 성장과 소멸의 과정을 거치는데, 여기에는 자연적인 요인과 인위적인 요인이 있다. 한 언어가 오랫동안 사용되는 과정에서 변형을 거치고, 외부에서 들어온 새로운 언어와 공존하다가 흡수되기도 한다. 또한 해당 언어 사용자들 간에 세대 간 언어 전승이 이루어지지 않고, 단절되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

제줏말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까지 언어학자들의 연구 자료로 활용되어 왔다. 한편 학문적 연구와는 달리 1990년대 초부터 제줏말 보존의 중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더하여 학자, 교육기관, 행정기관들의 역할도 제기되었다. 즉 제줏말에 대한 제주 사회의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났다. 이것이 2010년 12월에 등장한 ‘제줏말의 소멸위기설’이다.

유네스코에서는 모든 언어들의 존재 상태를 알 수 있도록 5단계의 언어 소멸 진단 기준을 마련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1단계는 취약한 언어, 2단계는 분명히 위기에 처한 언어, 3단계는 중태에 빠진 언어, 4단계는 아주 심각하게 위기에 처한 언어 5단계는 소멸한 언어’ 등이다. 이 중에 제줏말은 4단계에 속한다고 알려졌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줏말 보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제줏말의 소멸위기설이 제주 사회에서 제줏말 보존 정책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2015년 제주학연구센터에서는 유네스코가 제시한 ‘위기의 언어’ 판단 기준 9가지를 적용하여 제줏말의 실태를 조사

하였다. 여기서는 제주지역 거주자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기초하여 제춧말의 소멸위기 정도를 알아보겠다.

1영역. 세대 간의 언어 전승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부모나 배우자, 형제·자매와 비교해서 자녀와 대화할 경우 표준말 사용 비중(35.7%)이 15% 이상 높았다. 또한 자녀와 대화할 때 제춧말(30.4%)보다 표준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는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가정에서도 표준어를 사용하는 비율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2~3영역. 화자의 절대 수와 전체 인구 대비 해당 언어 구사자 비율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평소 제춧말을 자주 사용하는가?'라는 질문을 한 결과,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중이 18.4%로 나타났다. 또한 '자주'와 '약간 그렇다'라는 긍정적인 응답은 42.6%로 나타났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제춧말을 자주 사용하는 화자의 비중이 50%를 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4영역. 언어 사용 분야의 변화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가정에서는 제춧말 사용 비중이 높는데, 제주 사람이라도 낯선 사람과 처음 대화할 때는 표준어 사용이 자연스럽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공공기관이나 마을 내, 학교, 직장 등에서는 제춧말 사용 비중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를 보면 제주 사회에서 제춧말 사용 확대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도 제춧말 사용 영역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영역. 새로운 영역, 매체에(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반응하기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제주 사람들이 전화통화를 할 때는 제춧말을 사용하고, 문자와 모바일 메신저에서는 일부 사용함을 알 수 있다. 반면 SNS나 이메일, 블로그 등 공적인 성격의 매체에서는 제춧말 사용이

제한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는 제줏말이 새로운 영역, 즉 다양한 매체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됨을 뜻한다. 특히 제줏말 ‘·’의 표기가 어려운 점도 제한적인 사용 요인이 될 수 있다.

6영역. 언어 교육과 읽고-쓰기 자료 사용 여부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제줏말 학습이 별도의 학습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고, 정식교육을 받아본 경험(4.3%) 또한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제줏말은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거나 제줏말 관련 자료를 활용하는 비중이 낮은 편이라는 뜻이다.

7영역. (해당 언어에 대한) 공식적인 지위 부여·사용을 포함한 정부와 해당 기관의 언어에 대한 태도와 정책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현재 제줏말은 공식적인 언어로서 지위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또한 제줏말 전승에 대해 정부나 공공기관의 노력 정도를 확인한 결과, 제주 사람들은 긍정적 평가(11.6%)보다는 부정적으로 평가한(52.8%) 비율이 아주 높았다. 이는 제줏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을 뜻한다.

8영역. 자신의 언어에 대한 그 지역 사회 구성원의 태도 관련 조사 내용을 보면, 제줏말에 대해 주민들은 중요하다는 평가(59.4%)를 내리지만, 향후 사용 인구 증감 전망에 대해서는 85.0%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제줏말 보전 활동 참여 의향을 확인한 결과, 부정(37.4%)이 긍정(27.3%)보다 높게 나타나서 제주 사람들의 제줏말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이고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사람에 따라 제줏말 보전에 무관심하고, 지배적인 언어(표준어)를 좋게 인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현재 제줏말의 위기라고 하면 세대 간 전승이 부족하고, 가정과 사

회에서 제춧말 사용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는 표준어가 유입 되어 우리들의 언어생활을 지배하고 있으며, 제춧말 사용의 절박성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춧말의 소멸위기의식과 제주 사람들의 언어 태도 등을 종합하여 제춧말이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2.3 제춧말의 보전

제주 사회에서는 제춧말의 소멸위기의식이 높아지면서 그에 대한 보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학자들이 제춧말 보전 정책의 중요성을 본격적으로 제기한 것이 1990년대 초부터이고, 2000년대로 들어와서는 교육기관과 행정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졌다. 더욱이 2011년부터는 각계각층에서 제춧말 보전과 진흥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2007년 9월)를 제정하여,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즉 5년 단위로 『제주어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제주어 주간’(매년 10월 초 ‘탐라문화제 기간’에 추진하고 있음.)을 지정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제주어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교육 정책에 반영하였다. 또한 ‘제주어 연구학교 지정’, ‘교사 직무연수 교과목 지정’ 등 학교 현장에서 제춧말 교육이 진행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였다.

지역 언론계에서는 제춧말 관련 고정 지면과 고정 채널 배정, 연중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등에 참여하고 있다.

민간단체와 문화예술인들도 제줏말의 보전과 활성화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주지역의 공공기관과 제주 사람들이 협력하여 제줏말 보전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제줏말 사용이 활성화되고, 전승되기 위해서는 제줏말은 문자로 기록하고, 제줏말 교육이 공공성을 띠어야 한다.

제주 사회에서는 제줏말의 보전과 활용을 위해서 이를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표기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제줏말은 입말(口語)이어서 음성언어로 전달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는데, 이것을 글로 적으려면 어려움이 따른다. 이에 누구나 제줏말을 문자로 기록할 수 있도록 표기 방법을 마련하였다.

표준어는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적으면 되는데, 제줏말을 문자로 적는 데는 정해진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 또는 단체마다 서로 다른 표기법을 활용하여 적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다보니 제줏말 표기 방법에 대해 일관성이 없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어 표기법」을 제정(2013)·공표하고(2014), 이에 따른 해설서도 발간하였다(2014).

현재 제주 사회는 제줏말 진흥을 위해 교육계와 민간단체는 물론 문화예술인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작가들은 제줏말로 시와 소설, 노랫말을 쓰고 있다. 이때 제줏말 표기를 고려하여 바르게 기록해 준다면, 이것들은 가까운 미래에 제줏말의 기초 자료가 될 것이다.

우리들은 국어에 대한 문법적인 지식을 토대로 하여 자유롭게 언어 생활을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제줏말에 대한 문법지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려는 언어 태도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제줏말의 위상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편으로 제줏말의 언어적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제줏말의 음운, 형태, 통사, 어휘 등 문법을 총체적으

로 접근하기에 앞서, 제죽말의 현실, 위기, 보전 정책, 제주 사람들의 제죽말에 대한 인식과 태도 등을 살펴보았다.

제죽말은 제주의 고유한 문화유산이고, 개별 문화자원들을 지칭하는 주체이다. 따라서 제죽말이 세대 간에 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대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제2장 소리

1. 소리의 종류와 관계

1.1 소리의 목록

1.1.1 소리의 표기 방법

제주말에도 다른 언어나 방언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소리가 있다. 이 소리들은 당연히 귀로 들을 수만 있을 뿐 눈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현장에 있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필요가 있을 때는 문자로 바꿔서 전달한다. 여기서 특별한 경우란 녹음기나 음성 파일 등과 같이 과학 기술의 도움을 받는 경우이다.

그런데 이처럼 소리를 적는 방법이 하나로 정해진 것은 아니다. ‘제주도’라는 소리의 연결은 아래의 예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문자로 적을 수 있다. 또한 ‘먹는’을 ‘멍는’으로 적을 수 있는 것처럼 같은 문자 안에서도 다양한 표기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한글: 제주도

로마자: jejudo

한자: 濟州道

국제 음성 기호: tɛdzudo

여기에서는 제주말의 소리를 원칙적으로 한글로 표기한다. 그것은 한글 자모가 제주말의 소리와 1:1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문자보다는 한글이 훨씬 읽고 쓰기가 편하기 때문이다.

1.1.2 분절적 요소와 비분절적 요소

사람이 말을 할 때 내는 소리에는 분절적 요소와 비분절적 요소가 있다. 분절적 요소란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의 앞이나 뒤에 올 수 있는 특징인데, 이 분절적 요소를 가지고 있는 소리를 분절음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제주도’라는 소리 연결은 위의 로마자 표기나 국제 음성 기호 표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6개의 소리로 구성되어 있고 이 소리들은 앞뒤 관계가 있다. 이 6개의 소리가 바로 분절음이다. 즉 분절음이라는 용어는 연결된 소리가 일정한 단위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분절음은 일반적으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누어진다. 제춧말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소리들은 대부분 날숨을 이용하여 만들어지는데, 날숨이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숨의 흐름에 장애가 있으면 자음, 장애가 없으면 모음이다. 한편 모음을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달라지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모음들은 이중 모음이라고 불려서,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 단순 모음과 구별한다.

그런데 ‘(어디라고 했지?) 제주도?’처럼 의문의 뜻이 들어가 있는 소리 연결은 보통의 ‘제주도’라는 소리 연결과 대비해 보면 소리의 종류는 6개로 똑같지만, 맨 끝의 ‘도’를 높게 발음한다. 이 경우에 ‘높음’이라는 소리의 특징은 ‘도’를 발음하기 전이나 발음한 후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도’라는 소리 연결과 함께 높음이라는 소리의 특징이 나타난다. 이런 특징을 비분절적 요소라고 하며, 일반적으로 길이, 높이, 세기의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 제춧말에서는 이 비분절적 요소의 차이로 어휘적 의미가 달라지는 일은 없다.

비분절적 요소 중에서 높이는 문장에 얹히기도 하고, 어절에 얹히기도 한다. 앞의 것을 문장 억양이라고 하고, 뒤의 것을 어절 억양이라고 한다. 문장 억양은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기도 하고, 말하는 이의 감정과 태도를 나타내기도 한다. 그 반면에 어절 억양은 말하는 이의 감정과 태도만을 나타낸다. 이러한 억양은 제춧말의 특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귀가 예민한 제춧말 토박이 화자들은 분절음이 똑같더라도 억양이 다르면 자신들의 말과 다르다는 것을 금방 눈치 챌 수 있다.

1.1.3 분절음

① 자음

제춧말에서 날숨이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숨의 흐름에 장애가 있는 자음들의 목록과 이 자음이 들어간 단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괄호 속의 형태는 표준어 형태이거나 제춧말의 단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보조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 ㄴ: 불
- ㅃ: 뽕
- ㅍ: 풀
- ㅍ: 물
- ㄷ: 들(달)
- ㅌ: 딸(딸)
- ㅌ: 툄(산 변두리의 수풀)
- ㅈ: 자다
- ㅉ: 짜다(상투를 ~)
- ㅊ: 차다(밭로 ~)

ㅍ: 싸다, 씨
 ㅍ: 사다, 시다
 ㄴ: 나, 니(이)
 ㄹ: 질(길), 놀래(노래), 지름(기름)
 ㄱ: 가다
 ㅋ: 까다
 ㅋ: 카다((불에)타다)
 ㅇ: 상, 누렁이(누룽지)
 ㅎ: 하늘

위의 자음들 중에서 하나의 한글 자모로 표기되었지만 소리가 다른 것은 ㅍ, ㅍ, ㄹ의 세 개다. 이 중에서 ‘싸(다), 사(다)’의 자음은 혀끝이 잇몸에 닿아서 소리가 나는 데 반해, ‘씨, 시(다)’의 자음은 혃바닥의 앞부분이 경구개에 닿아서 소리가 난다. 그리고 ‘질’의 ㄹ은 혀끝을 잇몸에 댄 상태에서 공기를 혃 옆으로 통과시켜서 내는 소리인데, ‘지름’의 ㄹ은 혀끝을 잇몸에 한 번 두들겨서 내는 소리이다. ‘놀래’의 ㄹㄹ도 소리는 ‘질’의 ㄹ과 같다. 그러나 제쫓말 화자들은 이러한 각각의 소리가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예컨대 ‘싸(다)’의 ㅍ과 ‘씨’의 ㅍ이 같은 소리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토박이 화자들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각각의 소리들을 음운이라고 하고, 토박이 화자들이 같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소리들을 변이음이라고 한다. 그런데 다른 지역의 말에서는 대부분 ‘나’의 ㄴ은 혀끝을 잇몸에 대고 ‘니’의 ㄴ은 혃바닥의 앞부분을 경구개에 대고 공기를 코로 통과시켜서 소리를 내지만, 제쫓말에서는 이 두 소리를 모두 혀끝을 잇몸에 대고 공기를 코로 통과시켜서 소리를 낸다.

또한 나타나는 위치가 제한되어 있는 자음들도 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ㅁ, ㅂ, ㄷ, ㅌ, ㅈ, ㅉ, ㅊ, ㅅ, ㅆ, ㅈ, ㅊ, ㅋ, ㆁ은 자음 앞이나 단어의 끝에는 오지 않는다.
- ㄹ과 ㅇ은 단어의 맨 앞에는 오지 않는다.
- 단어의 첫 번째 음절에 ㅊ, ㅋ, ㆁ, ㅈ가 오면 그 앞에는 ㄴ이 오지 않는다.
- ㅈ, ㅊ, ㅉ은 ㅊ, ㅋ, ㆁ, ㅈ 앞에 오지 않는다.
- ㅡ는 ㅁ, ㅂ, ㅅ, ㅈ 뒤에 오지 않는다.

② 모음

제웃말에서 날숨이 폐에서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숨의 흐름이 장애를 받지 않는 모음들의 목록과 이 모음들이 들어간 단어를 예시 하면 아래와 같다.

- ㅣ: 일
- 꺀: 에누리
- ㅁ: 애기(아기)
- ㅡ: 으상으상(느릿느릿)
- ㅊ: 어멍(어머니)
- ㅊ: 아이
- ㅌ: 우(위)
- ㄴ: 오죤(오줌)
- ㅂ: 뭇(말)

제웃말 토박이 화자들은 세대에 따라서 구별하는 모음의 숫자가 차이가 있다. 40대 이하의 세대는 꺀와 꺁의 구별이 없고, ㅂ도 없어서 7개 모음만 가지고 있고, 50~60대 세대는 꺀와 꺁의 구별이 없어서 8개 모음을 가지고 있다. 한편 70대 이상의 세대는 위의 9개의 모음을 모두 가지고 있다.

ㄱ, ㅋ, ㆁ의 발음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ㄱ은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입을 조금만 벌려서 발음하고, ㅋ은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려서 발음한다. 평소에 ㄱ과 ㅋ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발음보다 조금 입을 좁혀서 발음하는 것이 ㄱ이고 더 벌려서 발음하는 것이 ㅋ라고 이해해도 된다. 한편 ㆁ은 다른 지역의 말에 없기 때문에 제주말의 특징이라고 자주 언급되어 왔는데, 입술이 동그랗게 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ㄴ보다 입술을 더 크게 벌려서 발음하는 소리이다.

③ 이중 모음

제주말에서 입술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하는 도중에 달라지는 이중 모음의 목록과 이들 이중 모음이 들어있는 단어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의 목록 중에서 ㅋ가 들어있는 단어는 찾기가 어렵다. 아마 아래에 예시되어 있는 ‘애펜’이 유일한 예가 아닌가 한다.

- ㄱ: 예순
- ㅋ: 애펜(아편)
- ㆁ: 열
- ㆁ: 야단
- ㆁ: 윤디(인두)
- ㅁ: 요
- ㅂ: 으뚝(여뚝)
- ㄷ: 꾸다(방귀를 ~)
- ㄴ: 피
- ㄴ: 께(깨)
- ㄷ: 꿩
- ㄴ: 꿩(뼈)

ㄷ와 ㄸ를 구별하지 않는 제줏말 토박이 화자는 위의 이중 모음 중에서 ㄷ와 ㄸ, ㄱ과 ㄲ도 구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ㅁ을 발음하지 못하는 제줏말 토박이 화자는 ㅁ도 발음하지 못한다. ㄷ와 ㄸ, ㄱ과 ㄲ을 구별하는 방법은 ㄷ와 ㄸ를 구별하는 방법과 같다. ㄷ와 ㄸ는 모음이 끝날 때 새끼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리고, ㄸ와 ㄲ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입을 벌려서 구별하면 된다. ㄷ와 ㄸ의 시작 부분은 ㄷ와 같고, ㄱ과 ㄲ의 시작 부분은 ㄱ과 같다. 그리고 ㄸ는 표준말의 ㄷ와 발음이 같으므로 한글로 제줏말을 적을 때는 ㄷ로 표기하지만, 제줏말의 고유어 중에서 원래부터 ㄷ를 가지고 있는 단어들은 찾기가 어렵다. ㅁ는 시작 부분은 ㄷ와 같고 끝부분은 ㅁ와 같은 소리이다. 즉 ㅁ에서 시작하되 ㄱ보다 입술을 더 벌려서 발음하면 ㅁ 소리가 된다.

1.2 소리의 관계

1.2.1 자음

제줏말의 자음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장애음	파열음	평음	ㅂ	ㅃ		ㅅ	
		경음	ㅍ	ㅑ		ㅈ	
		격음	ㅍ	ㅑ		ㅊ	
	파찰음	평음			ㅈ		
		경음			ㅊ		
		격음			ㅊ		
	마찰음	평음		ㅅ			
		경음		ㅆ			
		격음					ㅎ
공명음	비음	ㅁ	ㄴ		ㅇ		
	유음		ㄹ				

위의 표에서 가로로 나타낸 것은 크게 발음되는 위치이다. 즉 발음되는 위치에 따라 자음들은 아랫입술이 윗입술에 닿아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순음, 혀끝이 잇몸에 닿아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치조음, 혀의 앞부분이 경구개에 닿아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경구개음, 혀의 뒷부분이 연구개에 닿아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연구개음, 성대 사이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후음으로 나누어진다.

세로로 나타낸 것은 발음되는 방법이다. 발음되는 방법은 우선 공기가 폐에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공기의 흐름이 성문에서 입술까지의 어느 위치에서 장애가 일어나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장애음과, 그러한 장애가 있음은 물론 성대가 진동되어 나오는 소리가 성대에서 입술까지의 어느 공간에서 울리면서 커지는 공명음으로 나뉜다.

장애음에는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이 있다. 파열음은 공기의 흐름이 완전히 막혔다가 갑자기 터지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이고, 파찰음은 파열음처럼 완전히 막히기는 하지만, 한꺼번에 터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터져서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마찰음은 공기의 흐름이 아주 좁은 공간을 통과하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서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이 파열음과 파찰음, 마찰음은 각각 격음, 평음, 경음으로 나뉜다. 이 세 가지 소리를 판별하는 기준은 이러한 자음이 발음된 후에 모음이 발음되면서 성대의 진동이 시작될 때까지의 시간이다. 성대가 진동되기 시작할 때까지의 시간은 격음이 가장 길고, 평음이 중간이며 경음이 가장 짧다. 이 시간은 입김으로도 느낄 수 있는데, 손바닥을 입 앞에 대고 ‘파, 바, 빠’를 발음해 보면 ‘파’를 발음할 때 가장 입김이 세게 느껴지고 ‘빠’를 발음할 때 가장 입김이 약하게 느껴지며 ‘바’를 발음할 때는 입김의 세기가 그 중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명음은 비음과 유음으로 나누어진다. 비음은 입 안의 어느 지점

이 막힌 채로 공기가 코를 통하여 나가면서 비강에서 공명이 일어나는 소리이고, 유음은 혀끝을 잇몸에 댄 채로 혀의 옆과 볼의 안에서 공명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지는 소리이다.

1.2.2 모음

제짓말의 모음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원순
고모음	ㅣ	ㅡ	ㅓ
중모음	ㅕ	ㅗ	ㅜ
저모음	ㅙ	ㅛ	ㅝ

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혀의 최고점의 상하 및 전후 위치, 입술 모양의 세 가지이다. 우선 혀의 최고점이 얼마나 입천장에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이 세 부류의 모음이 혀의 최고점과 입천장과의 절대적인 거리에 따라서 나누어지지 않는다. 혀의 최고점과 입천장과의 전체적인 거리를 셋으로 나누고, 그 거리가 가장 짧은 고모음, 가장 긴 저모음, 중간인 중모음으로 나눈다.

혀의 최고점의 전후 위치는 가장 위로 올라가는 부분이 혀의 어느 부분인가 하는 개념이다. 앞부분이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것을 전설 모음이라고 부르고, 뒷부분이 가장 위로 올라가는 것을 후설 모음이라고 부른다. 여기에서도 앞부분과 뒷부분은 절대적인 길이에 따른 위치가 아니라 혀를 전체적으로 둘로 나누어 판단한다. 혀의 최고점이

가까워지는 부위라는 점에서 보면, 전설 모음은 경구개와 가까워지고 후설 모음은 연구개와 가까워진다.

입술 모양에 따라서는 모음을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으로 나눈다. 원순 모음은 입술이 동그랗게 되어 만들어지는 모음이고 평순 모음은 입술이 퍼져서 만들어지는 모음이다. 이것 역시 동그랗게 되는 정도를 절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판단한다.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의 구별은 후설 모음에만 있다. 즉 전설 모음은 모두 평순 모음이다.

1.2.3 이중 모음

제숫말의 이중 모음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 표에서 좌우는 이중 모음이 끝날 때의 소리고 상하는 시작될 때의 소리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표준어에서 ‘ㄱ’로 표기되는 이중 모음은 제숫말에 존재하지 않는다.

	ㅣ	꺀	꺁	ㅡ	ㅑ	ㅓ	ㅕ	ㅗ	ㅛ
반모음 ㅣ	■	꺀	꺁	■	ㅑ	ㅓ	ㅕ	ㅗ	ㅛ
반모음 ㅕ	ㅑ	ㅓ	ㅕ	■	ㅑ	ㅓ	■	■	■

이 이중 모음은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이중 모음과 반모음 ㅕ로 시작되는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여기에서 시작 부분을 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모음 ㅣ와 ㅕ와는 달리 따로 발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중 모음의 특징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다르다는 것인데, 검정색으로 표시된 칸은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이 같으므로 이중 모음이 원래부터 존재할 수 없음을 나타내고, 회색으로 표시된 칸은 이중 모음이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우연히 제숫말에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반모음 ㅣ와 ㅏ 뒤에 ㄱ이 오는 이중 모음 역시 존재할 수도 있었지만 우연히 존재하지 않는 이중 모음이다.

2. 소리의 바뀜

소리는 환경에 따라서 다른 소리로 변할 때가 많다. 제주말에서 이처럼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그 결과에 따라서 교체, 탈락, 첨가, 축약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로 한다.

2.1 교체

교체는 어떤 소리가 그와 전혀 다른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기호로는 A → B로 나타낼 수 있다.

앞+더레 → 압떠레(앞으로)

웃+도 → 온또(웃도)

낫+도 → 낫또(낫도)

놓+-는 → 논는(놓는)

위의 예들은 ㅍ이 음절의 끝에 왔을 때 ㅂ으로 바뀌고, ㅅ, ㅈ, ㅎ이 음절의 끝에 왔을 때 ㄷ으로 바뀜을 보여주는 예들이다. 마지막 예는 음절의 끝에 오는 ㅎ이 ㄷ으로 바뀐 후에 그 ㄷ이 뒤에 오는 ㄴ의 영향으로 ㄴ으로 바뀐 것이다. 다른 지역의 말과 마찬가지로 제주말에서 ㄱ, ㅃ, ㅌ, ㅈ이 음절의 끝에 오는 일은 없으며, ㅌ, ㅈ, ㅈ, ㅋ도 본래의 제주말에서는 음절의 끝에 오지 않는다. 그러나 이런 소리들이 음절 끝에 왔다면 위와 같은 양상을 보였을 것이다.

듣-+-어도 → 들어도

답-+-어도 → 더위도

위의 예들은 제춧말에 ㄷ 불규칙 용언과 ㅂ 불규칙 용언이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용언들의 어간은 자음 어미 앞에서는 끝 자음이 각각 ㄷ과 ㅂ으로 나타나지만, 모음 어미가 뒤에 오면 ㄷ은 ㄹ로 바뀌고 ㅂ은 반모음 ㅍ로 바뀐다. 그러나 어간의 끝에 오는 모든 ㄷ과 ㅂ이 이처럼 바뀌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돈을) 걸-’, ‘(몸이) 굵-’의 ㄷ과 ㅂ은 모음 어미가 뒤에 오더라도 바뀌지 않고 그대로 ㄷ과 ㅂ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듣-’, ‘답-’은 불규칙 용언으로 처리하고 ‘걸-’, ‘굵-’은 규칙 용언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다음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표준어의 ㅅ 불규칙 용언, ㄹ 불규칙 용언, ㄴ 불규칙 용언은 제춧말에 존재하지 않는다. ‘저서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어간의 끝 자음 ㅅ이 모음 앞에서도 탈락하지 않는다. 그리고 예를 들어 다른 지역 말의 ㄹ 불규칙 용언과 ㄴ 불규칙 용언은 ‘서톨르-’ 및 ‘푸리-’처럼 어간이 바뀌어서 자음 앞에서나 모음 앞에서 똑같이 실현된다.

젓-+-어도 → 저서도(저어도), 젓-+-단 → 절판

찢르-+-언 → 찢런(찢러서), 찢르-+-단 → 찢르단

푸리-+-어도 → 푸려도~푸리여도(푸르려도), 푸리-+-지 → 푸리지
(푸르지)

아래는 음절 끝에 오는 ㄱ, ㅂ, ㄷ이 ㄴ, ㄹ 앞에서 ㄹ, ㄹ로 바뀌는 것들이다. 맨 마지막 예는 ‘맛만’이 일단 ‘말만’으로 바뀌었다가 ‘만만’으로 바뀐 것인데, ‘말만’으로 바뀌는 것은, 앞에서 말한 것

처럼, ‘옷’의 ㅅ이 음절 끝에 있을 때 ㄷ으로 바뀐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익+-는 → 잉는(익는)
입+-는 → 임는(입는)
얻+-는 → 언는(얻는)
목+만 → 몽만(목만)
집+만 → 집만(집만)
맛+만 → 만만(맛만)

ㄹ 앞에 ㄴ이 오면 ㄴ이 ㄹ로 바뀐다.

한+림 → 할림(지명)

ㄹ 앞에 ㄹ이나 ㅇ, ㄱ이 오면 ㄹ이 ㄴ으로 바뀐다. 아래의 예에서 세 번째 예는 ㄹ이 ㄴ으로 바뀐 후에 ㄱ이 그 ㄴ의 영향으로 ㅇ으로 바뀐 것이다. ㄷ이나 ㅂ 뒤에 ㄹ이 오는 예는 제숫말에서 찾기 어렵지만, ㄱ과 ㄹ이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로 미루어, 이 경우에도 ㄹ이 ㄴ으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금+릉 → 금능(지명)
광+령 → 광녕(지명)
책+력 → 책녁(책력)

평음 ㅂ, ㄷ, ㄱ 뒤에 평음 ㅂ, ㄷ, ㄱ, ㅈ, ㅅ이 오면 뒤에 오는 평음들은 각각 ㅃ, ㅌ, ㄱ, ㅉ, ㅆ으로 바뀐다. 아래의 예에서 ‘온뽀단’과 ‘일쑤다’는 자음 앞에서 ㅅ이 ㄷ으로 바뀌고, 그 ㄷ 뒤에서 평음이 경음으로 바뀐 것들이다.

삼+보단 → 삼뽀단(삼보다는)
 입-+-단 → 입뽀(입뽀)
 입-+-곡 → 입꼭(입고)
 입-+-자 → 입짜(입자)
 곱-+-수다 → 곱쭈다(곱습니다)
 옷+보단 → (온보단 → 온뽀단(옷보다는))
 걸-+-단 → 걸뽀(걸뽀)
 걸-+-곡 → 걸꼭(걸고)
 걸-+-자 → 걸짜(걸자)
 잇-+-수다 → (인수다 → 인쭈다(있습니다))
 호박+보단 → 호박뽀단(호박보다는)
 익-+-단 → 익뽀(익뽀)
 익-+-곡 → 익꼭(익고)
 익-+-자 → 익짜(익자)

어간의 끝에 오는 ㄴ, ㄹ 뒤에서 어미의 첫소리 ㄱ, ㄷ, ㅈ, ㅊ은
 경음으로 바뀐다. 그러나 ‘신광(신과)’, ‘농광(남과)’, ‘조천더레(조천으
 로)’, ‘할림더레(한림으로)’, ‘신산디(신인지)’, ‘눔신디(남에게)’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체언과 조사가 연결될 때는 이 현상이 일어나지 않
 는다.

안-+-게 → 안께(안께)
 안-+-단 → 안뽀(안뽀)
 안-+-지 → 안찌(안지)
 남-+-게 → 남께(남께)
 남-+-단 → 남뽀(남뽀)
 남-+-지 → 남찌(남지)
 검-+-수다 → 검쭈다(검습니다)

관형사형 어미 ‘-을’ 뒤에 평음으로 시작되는 체언이 오면 평음이 경음으로 바뀐다.

탈 거 → 탈꺼(탈 거)
탈 디 → 탈띠(탈 데)
탈 배 → 탈빼(탈 배)
탈 수 → 탈쑤(탈 수)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ㅏ, ㅑ, ㅓ 일 때 ㅓ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ㅓ가 ㅓ로 바뀐다.

감-+-어도 → 가마도(감아도)
보-+-언 → 보안~뵈(보서)
들-+-어사 → 드라사(달아야)

만약 어간의 끝 음절 모음이 ㅡ이고 그 앞 음절 모음이 ㅏ, ㅑ, ㅓ 인데 그 뒤에 ㅓ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ㅓ가 ㅓ로 바뀐다.

아프-+-어도 → 아파도(아파도)
노프-+-언 → 노판(노파서)
둥그-+-어사 → 둥가사(답가야)

어간의 끝 자음이 ㅅ, ㅈ, ㅊ이고 뒤에 ㅡ로 시작되는 모음이 오면 ㅡ가 ㅣ로 바뀐다.

웃-+-으멍 → 우시멍(웃으면서)
눅-+-으민 → ㄴ지민(눅으면)
쫓-+-으렌 → 조치렌(쫓으라고)

어간의 속한 자음 ㅁ, ㅂ, ㅃ, ㅍ과 ㅡ로 시작되는 모음이 만나면 ㅡ가 ㅏ로 바뀐다.

- 감-+-으민 → 가무민(감으면)
- 잡-+-으멍 → 자부멍(잡으면서)
- 바쁘-+-은 → 바뻐(바쁘)
- 아프-+-으난 → 아프난(아프니까)

2.2 탈락

탈락은 어떤 소리가 아무런 흔적이 없어 사라져 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기호로는 A → ∅로 나타낼 수 있다(∅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임).

- 닭-+-지 → 담찌(닭지)

어간 끝이나 체언의 끝에 자음이 두 개 오면 자음 앞에서 하나가 탈락한다. 그러나 다른 지역의 말에는 두 개의 자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이나 체언이 꽤 있지만 제주말에는 ‘알루-’(알-), ‘할르-’(할-), ‘끌르-’(끌-), ‘엇-’(엷-), ‘씩’(씩), ‘깎’(깎), ‘뜯’(뜯) 등의 예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러한 예가 거의 없다. 위의 예도 ‘달무지’로 발음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간의 끝에 오는 ㄹ은 ㄴ이나 ㅡ로 시작되는 어미 앞에서 탈락한다.

- 알-+-는 → 아는
- 놀-+-은다 → 논다
- 살-+-읍써 → 삽써(사십시오)
- 얼-+-읍떼가 → 엇떼가(추웠습니까)

어간의 끝에 오는 ㅎ은 뒤에 모음이 오면 탈락한다.

좋-+-어도 → 조아도(좋아도)

어간의 끝 모음 ㄴ나, ㄹ는 다른 모음을 만나면 탈락한다.

쓰-+-어도 → 써도

탁-+-영 → 탕(타서)

어미의 첫 모음 ㄴ는 ㄹ이나 다른 모음 뒤에서 탈락한다. 조사의 첫 모음 ㄴ도 다른 모음 뒤에서 탈락한다.

살-+-으민 → 살민(살면)

살-+-으난 → 사난(사니까)

물-+-을 → 물

가-+-으민 → 가민

주-+-으난 → 주난

가-+-음 → 감

느+은 → 느(넌)

나+을 → 날(나를)

어간의 끝 모음과 어미의 첫 모음이 같으면 어간의 끝 모음이 탈락한다.

사-+-어도 → (사아도 →) 사도

ㅍ-+-으난 → ㅍ난(ㅍ니까)

반모음 ㅍ는 ㅂ, ㅍ 뒤에서 탈락한다.

보--+영 → (뵤 →) 뵤(뵤서)
푸--+어도 → (푼도 →) 퍼도(퍼서)

반모음 ㅣ는 ㅈ, ㅊ 뒤에서 탈락한다.

지--+어사 → (저사 →) 저사(지어야)
치--+언 → (천 →) 천(쳐서)

2.3 첨가

첨가는 어떤 소리와 어떤 소리 사이에 제3의 소리가 삽입되는 현상을 말한다. 기호로는 $AB \rightarrow ACB$ 로 나타낼 수 있다.

체언 뒤에 평음으로 시작되는 다른 성분이 올 때 ㅎ이 첨가될 때가 있다. 문헌에 ㅎ이 나타나는 것은 대부분 ㅎ이 첨가되며(늑물팻), 조사 앞에서도 ㅎ이 첨가된다(우터레). 그러나 문헌에 ㅎ이 나타나지 않는 것도 ㅎ이 첨가되는 경우가 있다(부제칩).

늑물+밭 → 늑물팻(나물 밭)
우+더레 → 우터레(위로)
부제+집 → 부제칩(부갯집)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 뒤에 다시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평음으로 시작되는 형태소가 오면 ㄷ이 첨가된다. 그러나 뒤 형태소의 평음이 경음으로 바뀔 뿐 ㄷ이 겹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

물+베염 → 물뻤염(물뻤)

산+담 → 산담(무덤 경계용 돌담)
등+불 → 등불(등불)
개+갓 → 개갓(갓가)

위의 ㅎ 첨가와 ㄷ 첨가는 반드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아래는 그러한 첨가가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다.

봄+사농 → 봄사농(봄사냥)
사름+손 → 사름손(사람손)
비+벼름 → 비벼름(비바람)
대+바구리 → 대바구리(대바구니)

어휘적인 뜻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두 개 만나는 경우, 앞 형태소가 자음으로 끝나고 뒤 형태소가 모음으로 시작되면 앞 형태소의 끝 자음이 첨가된다.

가죽+옷 → 가죽곶(가죽옷)
밭+임제 → 받땀제(밭임자)
밥+알 → 바빨(밥알)
춤+외 → (춤뵈 →) 춤메(참외)

한자어에서 ㄴ이나 ㄹ 뒤에 ㅎ이 오면 ㅎ이 탈락되고 앞 형태소의 끝 자음 ㄴ 또는 ㄹ이 첨가된다.

만+화 → 만뵈(만화)
일+학년 → 일랑년(일학년)

ㅣ, ㅅ, ㅈ, ㅊ, ㅋ, ㆁ으로 끝나는 어간에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연결되

면 반모음 ㅣ가 첨가될 때가 있다.

- 비-+-영 → 비영(베어서)
- 세-+-어도 → 세여도((물이) 새어도)
- 새-+-영 → 새영((밤이) 새어서)
- 뀌-+-어도 → 꺼여도((방귀를) 꺼어도)
- 되-+-어사 → 되여사(되어야)

ㄴ, ㄷ로 끝나는 어간 뒤에 ㄷ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반모음 ㄴ가 첨가되기도 한다.

- 가도-+-어사 → 가도와사(가두어야)
- 꾸-+-영 → 꾸윙(꾸어서)
- 바꾸-+-어도 → 바꾸와도(바꾸어도)

2.4 축약

축약은 두 개의 소리가 만나서 원래의 소리들이 아닌 제3의 소리로 바뀌는 현상을 말한다. 기호로는 AB → C로 나타낼 수 있다.

ㅎ이 평음과 만나면 ㅎ과 평음이 하나로 축약된다. 먼저 ㅎ과 파열음이 만나면 격음으로 바뀐다.

- 낱-+-지 → 나치(낱지)
- 종-+-고 → 조코(종고)
- 착+ㅎ다 → 차콧다(착하다)
- 밥+ㅎ다 → 바푏다(밥하다)
- 몹+ㅎ다 → 모푏다(몹하다)

같은 평음이 만났을 때 빠른 말투에서는 두 평음이 같은 조음위치에서 발음되는 경음으로 바뀐다.

- 떡-+-고 → 머꼬(떡고)
- 걸-+-단 → 거딤(걸딤)
- 얏-+-지다 → 아찌다(얏히다)
- 밥+보단 → 바뵤단(밥보다는)
- 낫-+-수다 → 나쭈다(낫습니다)

어간이 2음절 이상이고, 끝 음절이 ㅣ일 때,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ㅣ와 ㄱ이 이중 모음 ㅋ로 바뀐다.

- 비기-+-어도 → 비겨도
- 시기-+-영 → 시경(시켜서)
- 모이-+-어사 → 모여사(모여야)

어간이 2음절 이상이고, 끝 음절이 ㄴ, ㄷ일 때, ㄱ로 시작되는 어미가 오면 빠른 말씨에서 ㄴ와 ㄱ, 또는 ㄷ와 ㄱ이 이중 모음 ㄴ, ㄱ로 바뀔 때가 있다. 만약 ㄴ, ㄷ 앞에 자음이 없으면 이 이중 모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 가도-+-어사 → 가되사(가두어야)
- 바꾸-+-어도 → 바꽈도(바꾸어도)
- 싸우-+-영 → 싸왕(싸워서)
- 피우-+-어라 → 피와라(피우더라)

제3장 단어

1. 형태소와 단어

1.1 단어의 개념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화할 때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 단위는 문장이다. 예를 들어 아래의 지문은 두 사람이 주고받는 대화이기 때문에, 최소한 두 개의 완결된 의미를 주고받았다고 할 수 있다.

밥은 먹었어?(밥은 먹었나?)

아니, 아직 안 먹었어.(아니, 아직 안 먹었네.)

물론 복잡한 의미를 전달할 때는 하나 이상의 문장도 사용한다. 그러나 예컨대 위의 두 문장 중에서 한 문장을 골라, ‘밥은’이나 ‘먹었어’처럼 그 중의 일부분만을 발화한다면 그것은 완결된 의미라고 할 수 없다. 이러한 발화들이 독립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은 다른 요소가 생략되었고 대화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그 생략된 요소를 알고 있는 때에 한정된다.

완결된 의미를 전달하는 문장은 더 작은 의미 전달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문장을 자연스럽게 나누어 발화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어절이라고 한다. 위의 첫째 예문에서는 ‘밥은’과 ‘먹었어’가 자연스럽게 발화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다. 둘째 예문에서는 먼저 ‘아니’와 ‘아직 안 먹었어’로 발화할 수 있고, 후자는 ‘아직’과 ‘안 먹었어’로 다시 나누어 발화할 수 있으며, ‘안 먹었어’는 ‘안’과 ‘먹었어’

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이러한 단위들 즉 ‘밥은’, ‘먹었어’, ‘아니’, ‘아직’, ‘안’ 등을 어절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어절은 다시 단어로 분석될 수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밥은’이 ‘밥’과 ‘은’으로 분석되고 이들을 각각 별개의 단어로 보는 것이다. 어떤 단위를 단어로 설정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기준은 그 단위의 최소 자립성이나 분리성 여부이다. 예를 들어 ‘먹었어’는 그 앞과 뒤를 끊어서 발화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이기 때문에 최소 자립성이 있다고 보고 하나의 단어로 본다. ‘밥은’은 ‘밥’과 ‘은’ 사이에 ‘만’이라는 조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분리성이 있다고 보고, ‘밥’과 ‘은’을 독립된 단어로 본다. 그 이외에 자립성이 없더라도 다른 단어들과 나타나는 환경이 같으면 단어로 보고, 결합할 수 있는 단위의 범위에 보편성이 있으면 단어로 보기도 한다.

첫째 예문에 나오는 ‘은’은 일반적으로 단어로 보고 조사로 분류하는데, 이 조사를 단어로 보지 않는 견해도 있다. 조사를 단어로 보는 것보다는 ‘먹었어’의 ‘-었-’이나 ‘-어’처럼 문법적인 단위로 보는 것이 훨씬 설명 방법이 간단해진다는 것이다. 조사를 단어로 보면 아래의 예들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사름이우다(사람입니다)

사름이난(사람이니까)

사름이라(사람이네)

이 예들은 체언에 서술격 조사 ‘이-’가 오고, 그 서술격 조사 ‘이-’ 뒤에 다시 다른 어미들이 결합한 예들이다. ‘이-’를 독립된 단어 즉 격조사로 보면, 조사도 어미를 취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러한 설명이 적용되는 언어는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문제는 ‘이/가, 을/를’ 따위가 ‘은/는, 만, 도’ 따위와 나타나는 환경이 중복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빨리도 갔저.’ (빨리도 가고 있다.)라는 문장에서 ‘도’는 부사 뒤에 오는데, ‘이/가, 을/를’ 따위는 부사 뒤에 오지 않는다. 따라서 ‘이/가, 을/를’ 따위를 용언 어간에 붙는 어미와 같은 범주에 속한다고 하면 ‘은/는’ 따위의 이른바 보조사를 같은 범주로 묶기가 어렵다. 부사 자체의 꼴이 바뀌어서 문법적인 의미가 다양하게 실현되는 언어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어차피 ‘은/는’과 같은 부류를 묶을 수 있는 범주가 어미 이외에 필요하다면 ‘이/가’ 따위의 부류를 ‘은/는’ 따위의 범주에 소속시켜 버리면 된다. 여기에서도 이러한 관점을 취하기로 한다.

1.2 형태소

의미적인 측면을 생각해 보면 단어를 그보다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먹었어’(먹었는가)라는 단어는 ‘먹-’과 ‘-었-’과 ‘-어’라는 단위로 분석할 수 있다. ‘먹-’ 대신에 ‘잡-’이 들어가면 뜻이 달라지고, ‘-었-’ 대신에 ‘-없-’이 들어가면 뜻이 달라지며, ‘-어’ 대신에 ‘-고’가 들어가면 뜻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구나 달라진 뜻은 ‘먹었어’의 뜻과 완전히 달라진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일치한다. 예컨대 ‘먹었어’는 “입을 통해서 음식물 따위를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행위를 끝냈는가?”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먹었어’는 “입을 통해서 음식물 따위를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행위를 하고 있는가?”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먹-	-었-	-어
잡-	-없-	-고

그러나 ‘먹-’을 ‘머+ㄱ’이나 ‘ㅁ+억’으로 분석하면 그 결과가 아무런 뜻을 가지지 못한다. 이것은 ‘먹-’의 의미가 가장 작다는 것을 뜻한다. 더 작은 단위로 분석한 결과가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먹-’처럼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형태소라고 한다. 즉 ‘입을 통해서 음식물 따위를 몸 안으로 들여보내다’라는 뜻과 ‘먹-’이라는 소리의 결합이 형태소이다. 앞의 예에서 형태소들을 뽑아서 소리만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밥, 은, 먹, 엇, 어
아니, 아직, 안, 떡, 엇, 어

이 형태소들의 의미 부분은 고정되어 있지만 소리 부분은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밥+만 → 밤만
먹+는 → 멍는
잡+엇+어 → 자바서

‘밥’과 ‘먹’의 끝 자음들은, 앞의 예에서처럼 뒤에 모음이 오면 각각 ‘ㅂ’과 ‘ㄱ’으로 나타나지만, 위의 예에서처럼 뒤에 ‘ㅁ’이나 ‘ㄴ’이 오면 각각 ‘ㅁ’과 ‘ㅇ’으로 바뀌어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엇’의 모음도 ‘먹’ 뒤에서는 ‘ㅣ’이지만, ‘잡’ 뒤에서는 ‘ㅏ’로 나타난다.

이처럼 형태소가 구체적인 발화에서 실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형태라고 한다. 위의 예들로 설명하면 ‘밥’, ‘밤’, ‘은’, ‘는’, ‘엇’, ‘앗’, ‘나’, ‘어’ 등이 형태이다. 다시 말해서 실제 발화에서 나타나는 소리들 중에서 가장 작은 의미를 가진 소리 혹은 소리의 연속과 그 뜻이 결합한 것이 형태라는 것이다.

한편 형태들 중에서 의미가 같은 것은 이형태들이라고 한다. 기호를 써서 나타내면 A라는 뜻을 가진 형태소가 a1, a2, a3, ...과 같은 형식으로 실제 발화에서 실현되면 이 a1+A, a2+A, a3+A, ...가 이형태이다. 따라서 이형태는 형태소와 떨어뜨려서 생각할 수 없다. 위의 예로 설명하면 ‘밥’과 ‘밤’은 이형태이고, ‘엇’과 ‘앗’은 이형태이다. 각 형태들의 의미가 같고, 소리만 환경에 따라서 달라진 것이기 때문이다.

이형태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형태소로 간주하면 나머지 이형태들은 형태소가 다르게 실현된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다시 기호로 설명하여 a1이 대표라고 가정하면 형태소는 A+a1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a2, a3, ... 등은 A가 변하지 않은 채 a1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밥’이라는 형태소는 ‘음식물의 일종’이라는 뜻과 ‘ㅂ+ㅏ+ㅂ’이라는 소리의 연속이 결합된 것이고, ‘밤’이라는 이형태는 뜻은 바뀌지 않고 소리만 ‘ㅂ’이 ‘ㅁ’으로 바뀐 것임을 알 수 있다.

형태소들은 발화에서 홀로 나타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자립 형태소와 의존 형태소로 나누어진다. 아래의 예에서 첫째 줄의 예들은 홀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자립 형태소들이고, 둘째 줄의 예들은 발화에서 반드시 다른 형태소들과 결합해서 나타나므로 의존 형태소들이다. 예를 들어 동사 어간 ‘먹-’은 뒤에 어미가 와야 하고, 어말 어미 ‘-어’는 앞에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이나 선어말 어미가 와야 한다.

사름(사람), 하나(하나), 인척(일찍)

떡-, 덤-, -엇-, -어

형태소들은 의미의 종류에 따라서 실질 형태소와 형식 형태소로 나누기도 한다. 실질 형태소는 물리적인 세계나 추상적인 개념과 관련

된 의미를 나타내고 그 형태소가 나타나는 발화 안의 다른 요소를 언급하는 일이 없다. 그 반면에 문법 형태소는 발화에 나타나는 다른 요소를 언급하면서 발화 요소들 사이의 관계나 기능을 나타낸다.

밥, 먹,
은, 었, 어

위의 예에서 ‘밥’과 ‘먹’은 ‘밥은 먹었어’라는 발화와 관계없는 ‘음식물의 종류’와 ‘음식물을 몸 안으로 들여보내는 행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이다. 반면에 ‘은’은 그 앞에 오는 요소를 다른 대상과 대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었’은 그 앞에 오는 동사의 동작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며, ‘어’는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지 않고 편하게 말하는 내용을 물어볼 때 사용하기 때문에 형식 형태소이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첫째 방법은 대치 관계이다. 이것은 어떤 언어 요소가 다른 언어 요소와 바뀌어서 들어가면 전체의 뜻이 부분적으로 바뀌는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면 ‘먹었어’에서 ‘먹’ 대신에 ‘널’을 넣으면 뜻이 부분적으로 바뀌기 때문에 ‘먹’이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먹’의 ‘ㄱ’ 대신에 ‘ㄹ’을 넣으면 ‘멀’이 되어 뜻이 바뀌기는 하지만 원래의 ‘먹’의 뜻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지기 때문에 ‘ㄱ’은 형태소가 될 수 없다. 이와 마찬가지로 ‘먹었어’의 ‘어’ 대신에 ‘고’를 넣으면 ‘먹엇’의 의미는 바뀌지 않고 의문이 나열로 의미가 바뀌기 때문에 ‘나’가 하나의 형태소가 될 수 있다.

형태소를 분석하는 둘째 방법은 결합 관계이다. 이것은 어떤 요소가 중간에 끼어서 들어갈 수 있고, 전체적으로 그 결과가 토박이 화

자들이 사용하는 형식이라면, 새로 들어간 요소 앞과 뒤의 요소는 별개의 형태소로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먹나’를 ‘먹’과 ‘나’로 분석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이에 ‘엇’이 끼어서 들어가도 ‘먹’의 어휘적 의미와 ‘나’의 문법적 의미가 유지되는 상태에서 ‘엇’의 문법적 의미가 새로 첨가되기 때문이다.

하나의 단어를 분석하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형태소가 나온다. 즉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을 수 있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단어도 있을 수 있다. 예컨대 ‘밥’은 하나의 형태소이자 단어이고, ‘먹엇나’는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하나의 단어이다.

2. 단어의 구조와 형성

2.1 단어의 형성

단어에는 하나의 형태소로 된 것도 있고 둘 이상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도 있다. 이렇게 단어 형성에 쓰이는 형태소들을 어근이나 접사라 한다. 모든 어근은 실질적인 뜻을 가지고 있지만, 문장이나 담화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접사는 실질적인 뜻을 갖지 못해서 문장이나 담화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가 없다.

단어에는 자립적 어근 하나로만 된 것도 있고, 비자립적 어근에 굴절 접사가 붙어 된 것도 있는데 이들을 단일어라 한다.

어근에 파생 접사가 붙어서 된 파생어와 어근만 둘 이상이 붙어서 된 합성어가 있다. 이들을 복합어라 한다.

2.1.1 단일어

‘낭(나무), 쉼(소)나 ‘바농(바늘), 바구리(바구니)’는 음절 수에 관계 없이 자립적 형태소 하나로만 된 어근이면서 단어이다. 그러나 ‘굽다, 먹었저’의 ‘굽-, 먹-’은 실질적인 뜻이 있는 어근이지만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굽-, 먹-’만으로는 단어가 되지 못한다.

이 ‘굽-, 먹-’이 단어가 되려면 굴절 접사인 어미가 붙어 ‘고운, 굽다, 값저, 먹었저’ 따위로 되어야 단어가 된다. 이렇게 자립적 어근 하나로 된 단어와, 실질적 어근에 어미가 붙어 된 단어를 묶어서 단일어라 한다.

이러한 단일어는 의미·기능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국어에서는 단어들을 의미·기능에 따라 9품사로 나뉜다. 한자어나 외래어도 국어이므로 같이 다룰 수 있다. 제춧말도 학교 문법 분류 기준에 따라 9품사로 나눌 수 있다.

‘콩, 팥(팥), 낭(나무)’이나 ‘가지, 고치(고추)’는 물론, ‘구제기(소라), 덩드렁’들은 고유어이고, ‘책(冊), 상(狀, 床), 병(餅, 病)’은 한자어이다. 그리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잉끼(잉크), 도라무(드럼), 도라꾸(트럭), 뽕’이나, 외국에서 새로 들어온 ‘아파트, 라디오’ 따위들은 외래어이다. 이들은 조사와 함께 쓰여, 문장이나 담화에서 체언으로 중심적 역할을 한다. 이런 단어들을 명사라 한다.

또한 ‘나, 너(너)’는 물론, ‘이, 그, 저’나 ‘누게, 아무’ 따위도 있다. 이들도 문장에서 체언으로서 중심 역할을 한다. 사람을 대신하거나 사물을 대신해서 쓰이기 때문에 이들을 대명사라 한다.

‘하나, 둘, 셋’이나, 한자어 ‘일, 이, 삼’도 조사와 같이 쓰이면서 체언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수사라 한다. 그러나 조사 없이 뒤의 체언

을 수식하면 관형사로 본다.

‘작산(피 크거나 많거나 성숙한)’이나 한자어 ‘매(每), 전(全)’들은 체언의 앞에 놓여서 그 체언을 꾸며준다. 그런 단어들을 관형사라 한다.

‘건줌(거의), 고들베(자주, 쉽 없이), 모큰(푹, 힘껏), 지(애써), ㅋ컬(깨끗이, 철저히)’ 따위도 주로 용언 앞에 쓰여서 그 뒤의 용언들을 꾸며준다. 이런 단어들을 부사라 한다.

‘아, 아이고, 나야더리, 으따’들도 있다. 이들은 문장에서 다른 성분들과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거의 독립해서 쓰인다. 이런 단어들을 감탄사라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여섯 품사는 자립적 어근으로만 된 단어들이어서 형태 분석을 할 수 없다.

나머지 두 품사는 실질적 어근에 굴절 접사인 어미가 결합된 용언이다. ‘갓저(갓다), 먹었저(먹고 있다)’와 같이 움직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을 동사라 한다.

‘질다(길다), 높으다(높다)’ 따위가 있는데 이들은 사물의 상태나 속성을 나타내므로 이런 단어를 형용사라 한다.

나머지 한 품사는 ‘책이, 책을’이나 ‘ㅋ컬도, ㅎ쓸만’과 같이 체언이나 부사 등에 붙은 ‘이, 을, 도, 만’과 같이 문법적 구실만 하는 단어가 있다. 이들을 조사라 한다.

제숫말에서 특이하게 쓰이는 조사로는 ‘광(와/과), 이(이, 의, 예)’가 있는데, ‘광’은 모음, 자음을 가리지 않고 쓰이고, ‘이’도 환경을 보아야만 이 조사가 주격인지, 관형격인지, 처소격인지를 가릴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하게 쓰인다.

2.1.2 복합어

‘늑물팻, 콩지름’은 ‘늑물+팻, 콩+지름’으로 나뉜다. 앞과 뒤의 어근들은 모두 제 뜻을 지녔다. 이런 어근들의 결합으로 된 단어를 합성어라 한다.

‘개복송계’는 ‘개+복송계’로 나뉜다. ‘개-’를 접두사라 하고 ‘복송계’를 어근이라 한다. 이처럼 어근의 앞에 접두사가 붙어 된 단어를 접두 파생어라 한다.

‘욕심쟁이’는 ‘욕심+쟁이’로 나뉜다. ‘욕심’을 어근이라 하고 ‘-쟁이’를 접미사라 한다. 이처럼 어근의 뒤에 접미사가 붙어 된 단어를 접미 파생어라 한다. 합성어와 파생어를 묶어서 복합어라 한다.

① 합성어

합성어도 어근의 결합 방식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 의미 구성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이루는 두 어근의 의미가 새로운 단어에서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종속적 합성어, 대등적 합성어, 융합적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

종속적 합성어

‘늑물팻’과 같이 앞 어근이 뒤의 어근을 수식하는 관계로 형성되는 합성어이다. 앞 어근은 주로 ‘소속, 재료, 방법, 모양, 도구, 상태’ 따위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합성어는 아래와 같다.

명사 어근 + 명사 어근

‘지름떡, 보리떡, 쫄떡’은 어근 ‘떡’ 앞에 어근 ‘지름, 보리, 쫄’이 붙었다. ‘지름떡’은 ‘떡 위에 기름을 발라 놓은 것’인데, 꿀을 발라 놓으면 ‘꿀떡’도 될 수도 있다. 또 ‘쫄떡’의 ‘쫄’은 재료를 나타내므로 보리나 조, 고구마, 깨로 만든 떡으로 ‘보리떡, 조떡, 감제떡, 껌떡’들도 있다. 만일 새로운 재료로 만들어진 ‘떡’이 있다면 ‘새로운 어근+떡’이란 합성어를 만들 수도 있다.

‘떡방에’처럼 ‘떡을 만드는 도구’를 나타내는 말로는 ‘떡메, 떡본, 떡시리, 떡판’, ‘떡을 만드는 장소’를 나타내는 말로는 ‘떡칩’, ‘떡을 파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로는 ‘떡장시’ 따위가 있다.

<참고>

세 어근의 합성어 : 곤침떡, 조돌레떡, 쫄주시떡, 떡시리마개 따위

어근과 어근이 결합해서 합성어를 이룰 때, 음운 변동이 생기는 것들도 있다. ‘식게칩(제삿집), 조크르(조를 벤 그루터기), 몹쿵(돼지고기나 순대를 삶았던 국물에 메밀가루와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 특히 경조사 때 먹는 대표적 향토 음식), 가름팻(동네 안에 있는 밭)’처럼 어근과 어근 사이에 ‘ㅎ’이 첨가된 것도 있고, ‘대왓, 보리왓, 새왓’과 같이 ‘ㅂ’이 약화된 것도 있다. 그리고 ‘넷물’과 같이 ‘사잇소리’가 개입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변동된 ‘-칩, -크르, -쿵, -팻’들이나 ‘-왓, 넷-, 쫄-’은 단일어로는 쓰이지 않는다.

용언 어근 + 명사 어근

‘침떡’은 ‘찌서 익힌 떡’을 가리킨다. 굽거나 삶아서 익히면 ‘군/구

운떡’, ‘숯은떡’도 나올 수 있다. 떡의 색이나 모양을 나타낸 ‘곤떡, 흰떡’도 있다.

용언 어근 + 명사 어근

‘누비옷’의 ‘누비-’는 동사 어근이고, ‘늦잠’의 ‘늦-’은 형용사 어근인데, 어미 없이 명사 어근과 결합했다.

여기까지 보아 온 합성어들은 중심 뜻이 뒤 어근에 있고, 앞 어근은 뒤의 어근을 수식하는 관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형성된 합성어를 종속적 합성어라 한다.

대등적 합성어

‘손발, 남북’이나 ‘나들다, 오르내리다’와 같이 두 어근이 본래의 뜻을 대등하게 유지하면서 대립의 뜻을 나타내는 합성어이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품사의 어근으로만 이루어진다. 체언 합성어일 때는 어근 사이에 조사 ‘과/와’가, 용언 합성어일 때는 어근 사이에 어미 ‘-고’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 어근 + 명사 어근

‘손발’은 어근 ‘손’과 ‘발’이 결합한 합성어이다. 어느 쪽 어근에 중심이 있는지를 가릴 수가 없다. 이런 합성어로는 ‘논밭, 앞뒤, 동서, 좌우’도 마찬가지로인데 두 어근 사이에 조사 ‘과’를 넣어 이을 수 있다.

용언 어근 + 용언 어근

‘나들다, 오르내리다’는 동사 어근으로 된 합성어이고, ‘히뿌영하다,

검붉다, 높푸르다’들은 형용사 어근으로 된 합성어이다. 이런 합성어는 두 어근 사이에 어미 ‘-고’를 넣어서 ‘오르고 느리다, 히영히고 뿌영흐다’ 따위로 볼 수도 있다.

부사 어근 + 부사 어근

‘올락느력, 얹어적갈라적(얹치락뒤치락)’도 두 어근의 뜻이 대립되는 합성어다. 반복 어근이 불규칙적 어근으로 바뀌어 합성어가 되었다.

융합적 합성어

‘콩팥’은 ‘므쉬’처럼 중의적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는 두 어근이 융합해서 새로운 뜻인 ‘신장’이나 ‘가축’의 뜻으로 쓰인 합성어이다. ‘콩과 팥’이나 ‘말’과 ‘소’의 뜻이라면 대등적 합성어이지만 그런 뜻이 아니다.

융합적 합성어는 형태는 둘 이상의 어근이지만 뜻으로만 보아서는 단일어가 되든지, 합성어가 되든지 구나 절로도 나타날 수 있는 점이 다른 합성어들과는 다르다.

명사 어근 + 명사 어근

‘밤낮’이 ‘늘’로, ‘춘추, 강호, 세월’이 ‘나이, 자연, 시간’으로, ‘일손’이 ‘일할 사람’을, ‘가시방석’이 ‘불안한 상태나 자리’로 구나 절로도 나타났다.

용언 어근 + 용언 어근

‘빈말’이 ‘공치사’, ‘돌아가다’나 ‘패하다’가 ‘죽다’란 뜻으로 쓰이는 것 따위다.

그 밖의 단어들

새로운 단어의 어근으로 파생어 어근이 쓰일 때가 있다. ‘높낮이’는 형용사 어근 ‘높-’에 ‘낮이’는 파생 명사 어근으로 되었다.

‘걸음걸이, 모듬치기’는 앞뒤 어근이 모두 파생 어근이다. 뜻으로 보아 ‘걸음걸이’는 ‘걷는 모습’이고, ‘모듬치기’도 ‘뭇매’ 정도의 뜻이다. 이들이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 가리기는 쉽지 않다.

‘초가집, 빵떡, 빙떡, 깡통, 잣성, 꽃자왈’들을 분석해 보면, ‘초가’는 한자어 합성어, ‘초집’은 ‘한자어+고유어’로 된 합성어로 보아 둘 다 종속적 합성어로 볼 수 있으나 ‘초가집’은 설명이 어렵다.

‘빵떡, 빙떡, 깡통’도 확실한 두 어근이어서 합성으로 볼 수 있지만 설명이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또 ‘잣성’도 그렇다. ‘잣’과 ‘성’은 고유어와 한자어로 같은 뜻인데, 같은 뜻이 겹쳐 있다.

‘꽃자왈’은 ‘가시자왈, 돌자왈’과 같이 ‘꽃에 있는 자왈’이면 합성어가 되지만, ‘꽃’의 뜻으로 쓰였으면 ‘자왈’이 붙은 이유를 설명하기가 어렵다.

• 문장 구성법에 따른 분류

합성어를 형성하는 두 어근이 국어 문장 구성법과 일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로 구분하기도 한다.

통사적 합성어

어근 결합이 국어 문장 구성 방법과 일치하는 합성어를 말한다.

명사 어근 + 명사 어근

‘므쉬, 안팓, 죽밥’이나, ‘사발늑물(양배추), 지름떡, 콩방울, 웃니’나,

‘밤낫, 춘추’ 따위가 있다.

파생 명사 어근 + 명사 어근

‘돌레떡’은 ‘돌-’에 명사화 접미사 ‘-레’가 붙어 명사 어근이 되고 거기에 ‘-떡’이 붙은 합성어이다.

수사 어근 + 수사 어근

‘흔두, 너댓’과 같이 수사 어근으로만 된 것도 있다. 체언은 조사가 생략되어도 문장 성분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들도 통사적 합성어로 본다.

용언 어근 + 명사 어근

‘앗인일(앉아서 하는 일), 밧갈쉐(밭을 갈수 있는 소)’는 동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ㄴ, -을/-ㄹ’이 결합되었다. 또한 ‘힌떡, 큰성(큰형)’과 같이 형용사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 ‘-은/-ㄴ’이 결합해서 된 합성어도 있다. 이들도 국어 문장 구성법과 일치한다. ‘올려놓다(위로 놓다), 기어가다’도 마찬가지다.

관형사 어근 + 명사 어근

‘새각시(신부), 첫말(첫마디)’ 따위도 있고, ‘그냥, 이대로’들과 같이 관형사 어근에 의존 명사 어근이 결합해서 된 부사들도 있다.

명사 어근 + 동사 어근

‘눅익다(낮익다), 맥쓰다(용쓰다)’도 ‘주술 관계’나 ‘목적 관계’로 된 통사적 합성어이다.

부사 어근 + 용언 어근

‘아니하다, 못하다, 잘하다’ 따위도 통사적 합성어이다.

‘놀멍놀멍, 돌으멍돌으멍, 오멍가멍, 제게제게’들은 같은 말의 반복으로 된 합성어이다.

‘상에, 여에’는 조사들인데, 한자어 어근 ‘상(上)-, 여(與)-’에 조사 ‘-에’가 결합해서 된 것이고, ‘굴아, 신디’들은 ‘근(曰)-, 시(有, 在)-’에 ‘-아, -디’가 결합해서 된 통사적 합성 조사이다.

한자어에서도 국어 문장 구성법과 배열이 같은 ‘일몰(日沒), 필승(必勝), 고서(古書)’와 같은 합성어를 통사적 합성어로 보기도 한다.

비통사적 합성어

어근 결합이 국어 문장 구성법과 어긋나는 합성어를 말한다.

용언 어근 + 명사 어근

‘늦잠, 늦더위, 누비옷’처럼 용언 어간 ‘늦-, 누비-’가 뒤의 어근과 바로 결합해서 합성어가 되었다. 용언은 문장에서 체언의 앞에 쓰일 때는 관형사형 어미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없다. 이런 구성의 합성어를 비통사적 합성어라 한다.

부사 어근 + 명사 어근

‘부슬비, 어력췌(얼룩소), 납작보리쌀’ 따위에서는 반복 부사 ‘부슬부슬, 어력어력, 납작납작’에서 하나가 생략된 ‘부슬-, 어력-, 납작-’이 자립성 없이 명사 어근에 붙어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었다.

용언 어근 + 용언 어근

‘놀뛰다, 히뿌영ㅎ다’에서는 어근 ‘놀-, 히-’에 연결 어미 ‘-고, -어’가 없이 ‘뛰-, 뿌영ㅎ-’가 바로 결합해서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었다.

‘주룩주룩, 히끗히끗, 출렁출렁’처럼 의태어나 의성어에서 된 합성어도 비통사적 합성어이다.

또 한자어들도 국어 문장 구성법과 배열이 다른 ‘독서(讀書), 등산(登山), 급수(給水, 물을 주다)’ 등을 비통사적 합성어로 보기도 한다.

<참고>

가족 서열에서 특이하게 쓰이는 합성어

제삿말에서 가족의 서열에 따라 ‘큰, 셋, 말쑤, 죽은’ 따위로 특이하게 쓰일 때가 있다. 아래의 예는 ‘마통이(아이들을 일컫는 애칭)’인데 이 자리에 형제나, 삼촌, 할아버지 등을 넣어도 마찬가지이다.

형제일 때 : 큰마통이, 죽은마통이

삼형제일 때 : 큰마통이, 셋마통이, 죽은마통이

사형제일 때 : 큰마통이, 셋마통이, 말쑤마통이, 죽은마통이

오형제일 때 : 큰마통이, 셋마통이, 큰말쑤마통이, 죽은말쑤마통이,
죽은마통이

육형제일 때 : 큰마통이, 셋마통이, 큰말쑤마통이, 셋말쑤마통이, 죽은말쑤마통이, 죽은마통이

② 파생어

‘돌베, 돛두루웨’나, 짐, 께쉬(피가 많은 사람)와 같은 단어를 파생어라 한다.

‘돌베, 돛두루웨’에서 ‘돌-’과 ‘돛-’을 접두사라 한다. ‘짐, 께쉬’에서

‘-(으)ㄴ, -쉬’를 접미사라 한다. 접두사나 접미사의 앞뒤에 어근이 붙을 수 있다. ‘돌베, 돛두루웨’와 같은 것을 접두 파생법, ‘짐, 께쉬’와 같은 것을 접미 파생법이라 한다.

또 파생어에서 중심 의미를 가진 말을 어근이라 한다. 이런 어근은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으로 나눌 수 있다.

‘개복송계, 돌베’에 쓰인 ‘복송계, 베’와 같은 명사 어근도 있다. ‘옛보다’나 ‘늑지다(늑히다), 질이(길이)’의 ‘보-, 늑-(늑-), 질-(길-)’과 같은 용언 어근으로 된 것도 있다. 또, ‘두루봉이(모자란 사람)’에 쓰인 어근 ‘두루’와 같이 부사 어근도 있다. 이렇게 실질·자립적인 어근을 규칙적 어근이라 한다.

‘돌ㅎ다’와 ‘뚝ㅎ다, 착ㅎ다’에서는 ‘돌(달)-’이 어근이듯이 ‘뚝-, 착-’도 ‘-ㅎ다’와 같이 쓰이는 점으로 보아서는 어근으로는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돌-’은 형용사 ‘돌다(달다)’에서 나온 것이어서 접미사 ‘ㅎ-’와 같이 쓰이지 않아도 다른 어미들과 같이 쓸 수 있지만, ‘뚝-, 착-’만으로는 쓸 수 없다. 이런 어근을 불규칙적 어근이라 한다.

또, ‘짚숙ㅎ다(깊숙하다), 녀작ㅎ다’는 어근과 접사를 분석하면 ‘짚숙-, 녀작-’과 ‘-ㅎ다’가 된다. 여기서 ‘짚숙-, 녀작-’의 본래 어근은 ‘짚-(깊-), 녀-(늑-)’으로 규칙적 어근이었는데 여기에 접미사 ‘-숙-, -작-’이 붙어서 ‘짚숙-, 녀작-’으로, 도리어 불규칙적 어근이 되었다.

‘고리릉-, 곱닥-, 들코롬-, 검으릉-, 검으칙칙-, 검영-, 자우룻-, 히영-, 히뚜룩-’들도 본래 어근 ‘고리-, 곱-, 들-, 검-, 자울-, 히-’들로 규칙적 어근이었다가 접미사 ‘-릉-, -닥-, -코롬-, -으릉-, -으칙칙-, -영-, -웁-, -영-’이 붙어서 도리어 불규칙적 어근이 된 것들이다.

이런 불규칙적 어근들은 자립적으로 쓸 수 없어서 접미사 ‘-ㅎ다’가 붙어서 형용사를 파생하든지, 접미사 ‘-이’가 붙어서 부사를 파생해야

자립적으로 쓸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이와 같은 과정으로 불규칙 어근이 된 ‘들락-, 못아-, 좇아-’에는 접미사 ‘-거리-, -대-’ 따위가 붙어야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도 있다. ‘들락거리다. 못아대다, 좇아대다’ 따위의 동사 파생어가 그런 것들이다. 따라서 어근은 규칙적 어근과 불규칙적 어근으로 나뉜다.

• 접두 파생법

‘개복송게(개복송아), 돛두루웨’와 같이 명사 어근 ‘복송게, 두루웨’의 앞에 ‘개-, 돛-’과 같은 파생 접두사를 결합시켜 파생 명사를 만든다. ‘내돋다(내달리다), 들볶으다(들볶다)’처럼 동사 어근 ‘돋-, 볶으-’ 앞에 ‘내-, 들-’과 같은 파생 접두사를 결합시켜 파생 동사를 만든다.

‘뺨걸음치다, 뺨걸음흐다(마음이 급해서 빠른 걸음으로 걷다)’처럼 동사 어근에 명사 파생 접미사 ‘-(으)ㄴ’이 결합되고 다시 접미사 ‘-하다’가 결합된 어근 ‘걸음흐-, 걸음치-’에 접두사 ‘뺨-’가 붙어 파생 동사를 만들기도 한다.

‘시꺼멍흐다, 새파랑흐다’처럼 어근 ‘꺼멍흐다, 파랑흐다’에 접두사 ‘시-, 새-’를 결합시켜 파생 형용사를 만든다. 이렇게 어근에 접두사를 결합시켜 파생어를 만드는 방법을 접두 파생법이라 한다.

그런데 위의 파생어들은 어근의 품사와 같은 품사로 파생되었다. 이렇게 모든 접두사는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을 한정적 접사라고도 한다.

• 접미 파생법

접미 파생법은 어근의 뒤에 접미사가 붙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드는 파생법이다. 이런 파생법에는 한정적 접미사에 의한 파생과 지배적

접미사에 의한 파생이 있다.

한정적 접미사에 의한 파생

‘깨쉬, 소도리쟁이, 몽니다리’나 ‘패거리, 모가지, 주먹곡쉬, 눈짓, 종이텃, 비차락, 철닥산이, 돌세기, 눈메, 몸질, 빼암데기, 행실머리, 손지버릇, 코걸이, 낭덩이, 입여께’처럼 명사 어근에 접미사 ‘-쉬, -쟁이, -다리’나, ‘-거리, -아지, -곡쉬, -짓, -텃, -차락, -닥산이, -세기, -메, -질, -데기, -머리, -버릇, -걸이, -덩이, -여께’ 따위가 붙어서 어근과 같은 파생 명사가 되었다.

‘눅지다, 곱지다’나, ‘거두데기다, 7리데기다’나 ‘거리치다, 돌구다’처럼 동사 어근에 접미사 ‘-지-’나 ‘-데기’나 ‘-치-, -구-’가 붙어서 파생 동사가 되었다.

‘깨수다, 덮치다, 베르쓰다, 거두데기다’처럼 동사 어근에 강제 접미사 ‘-수-, -치-, -쓰-, -데기-’가 붙어서 파생 동사가 되었다.

그리고 ‘곱닥하다, 검영하다, 질찍하다’나, ‘넓작하다, 휘칙하다, 뚫뚫하다’처럼 형용사 어근 ‘곱-, 검-, 질-’이나 ‘넓-, 휘-, 뚫-’에 접미사 ‘-닥하다, -영하다, -찍하다’나 ‘-작하다, -칙하다, -뚫하다’가 붙어서 파생 형용사가 되었다.

‘이까짓, 그까짓’처럼 관형사 어근 ‘이, 그’에 접미사 ‘-까짓’이 붙어서 파생 관형사가 된 것도 있다. ‘일찍이, 일찍생이, 느랑, 문딱’처럼 부사 어근 ‘일찍, 늘, 문’에 접미사 ‘-이, -생이’나 ‘-딱, -양’이 붙어서 파생 부사가 된 것도 있다.

이러한 파생어에 쓰인 접미사들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한정적 접미사라고 한다. 제숫말에는 이러한 접미사도 많은 편이다.

여기서 잘 가려야 할 것은 동사 어간에 쓰인 피동·사동 접미사 ‘-구-, -우-, -후-, -히-’들은 동사만을 파생하기 때문에 한정적 접미사라 한다. 한편 ‘굳후다, 늘우다, 늦추다, 곱히다, 몽글이다’처럼 형용사 어근 ‘굳-, 늘-, 늦-, 곱-, 몽글-’에 쓰인 피동·사동 접미사 ‘-후-, -우-, -추-, -히-, 이-’는 지배적 접미사가 된다.

또 하나는 ‘첫째’처럼 관형사 어근 ‘첫’에 접미사 ‘-째’가 붙어서 파생 관형사나 파생 수사 또는 명사가 되었다. 파생 관형사로 보았을 때는 접미사 ‘-째’가 한정적 접사가 되나, 수사나 명사로 보았을 때는 같은 ‘-째’이지만 지배적 접사가 된다. ‘둘째’는 수사 어근 ‘둘’에 접미사 ‘-째’가 붙어서 관형사나 수사 또는 명사로 파생되었다. 파생 수사로는 보았을 때는 ‘-째’가 한정적 접사가 되나, 파생 관형사나 명사로 보았을 때는 ‘-째’가 지배적 접사가 된다.

지배적 접미사에 의한 파생

지배적 접미사에 의한 파생은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것이다. 이러한 파생법이 접미 파생법의 중심을 이룬다. 이에는 어근과 접미사의 쓰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용언 어근 + 접미사 → 명사

‘글쟁이, 삭다리’에서는 접미사 ‘-engi, -dari’가 용언 어근 ‘글-, 삭-’에 붙어서 명사 파생어를 만들었다. 또한 ‘높이, 짚이(깊이), 벌이’에서는 ‘-i’ 접미사가 용언 어근 ‘높-, 짚-, 벌-’에 붙어서 파생 명사를 만들었다.

아래의 접미사로도 파생 명사를 만든다.

- -계 : 지계, 배계, 늘계
- -쟁이 : 꺾쟁이, 헛쟁이(재채기)
- -쟁이 : 미치쟁이
- -넘 : 노넘, 비넘
- -바리 : 볏바리, 다금바리
- -베기 : 엽베기
- -악 : 막작
- -암지 : 늑암지, 모감지
- -영 : 그스렁
- -에 : ㄹ레(맷돌), 지레(키)
- -에기 : 꿀에기, 동골레기, 즈베기
- -오기 : 도로기, 모로기
- -와기/웨기 : 국주와기, 죽주웨기
- -올 : 구불
- -(으)ㄹ : 가름, 나무림, 줌, 조라움, 줍음(젓가락), 걸음, 거름
- -제기 : 남제기
- -쟁이/챙이 : 늑쟁이¹⁾, 얼챙이
- -치 : 늘치

<참고>

접미사 ‘-(으)ㄹ’과 명사형 어미 ‘-(으)ㄹ’의 식별

서술성이 없고, 관형어의 꾸밈을 받으면 접미사이고, 서술성이 있고 부사어의 꾸밈을 받으면 전성 어미이다. ‘인간다운 삶을 살다’의 ‘삶’은 파생 명사이고, ‘인간답게 삶을 누려라’일 때의 ‘삶’은 용언의 명사이다.

1) 접미사 ‘-쟁이’는 거의 명사 어근에 붙어 쓰이는데 여기서는 ‘늑쟁이’로 형용사 어근에 쓰였다.

부사 어근 + 접미사 → 명사

‘두루웨’에 쓰인 접미사 ‘-웨/에’는 부사 어근 ‘두루’에 붙어서 파생 명사를 만들었다.

명사 어근 + 접미사 → 형용사

‘목차다, 기운차다’나 ‘어른스/시럽다, 이롭다, 해롭다’에 쓰인 접미사 ‘-차-’나 ‘-스/시럽-, -롭-’은 명사 어근 ‘목, 기운’이나 ‘어른, 이, 해’에 붙어서 파생 형용사를 만들었다.

명사 어근 + 접미사 → 동사

‘근사다, 정다슬다, 게심먹다, 칭지다, 고른베기치다, 마니털다(부정의 뜻으로 고개를 젓다), 귀테우다(암시를 주다), 질트다(기지개 켜다)’에서 접미사 ‘-사-, -다슬-, -먹-, -지-, -치-, -털-’ 등은 명사 어근을 파생 용언으로 바꾸고 있다.

그리고 ‘일하다, 다정하다’처럼 명사 어근에 접미사 ‘-하다’가 붙어 용언을 파생하는 일은 아주 흔하다. ‘공부, 작업, 부름씨’ 따위로 한자어나 고유어 어근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진다.

‘-하다’ 접미사는 부사 어근 ‘못, 아니’에 붙어서 파생 용언을 만들기도 한다.

동사 어근 + 접미사 → 형용사

‘므습다, 우습다, 그림다’나 ‘실프다, 고프다’처럼 동사 어근 ‘므시-, 웃-, 그리-’나 ‘싫-, 꿩-’에 접미사 ‘-습-’이나 ‘-브-’가 붙어서 파생 형용사를 만들었다.

명사 어근 + 접미사 → 부사

‘눈치껏, 믿음껏, 억지로, 춤말로, 앞새’나 ‘어른시리, 야단시리’처럼 명사 어근에 접미사 ‘-껏, -로, -새’나 ‘-시리’ 따위가 붙어서 파생 부사가 되었다.

용언 어근 + 접미사 → 부사

‘곧이, 궤로이, ㄱ득이, 넘이, 두물이, 실피, 헤’처럼 형용사 어근에 접미사 ‘-이’가 붙어서 된 파생 부사는 많다.

‘굴우이, 멧썩, 번악, 물착’처럼 용언 어근에 접미사 ‘-우이, -악, -착’과 같은 접미사가 붙어서 된 파생 부사도 있다.

그리고 ‘족곰(조금), 하영, 족족, 들어, 굴루이, 곧작, 졸바로’처럼 접미사 ‘-곰, -영, -족, -어, -우이, -작, -오’가 붙어서 파생 부사가 되기도 한다.

관형사 어근 + 접미사 → 부사

‘이레, 그레, 저레’나 ‘이영, 기영, 저영’에 쓰인 접미사 ‘-레, -영’은 관형사 어근 ‘이, 그, 저’에 붙어서 파생 부사를 만들었다. 또 ‘이꺄장, 그꺄장’에서도 ‘-꺄장’을 접미사로 보면 파생 부사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어근 ‘이, 그, 저’는 대명사로도 쓰이는 것이다.

불규칙적 어근 + 접미사 → 동사

‘ㄱ닥거리다, 가물거리다’나 ‘ㄱ닥이다, 펄락이다’에 붙은 접미사 ‘-거리-, -이-’는 불규칙적 어근에 붙어서 파생 용언을 만들었다. 이런 파생어도 많은 편이다.

불규칙적 어근 + 접미사 → 형용사

‘굽닥-, 곱들락-, 검엉- 검으릉-’에 쓰인 접미사 ‘-닥-, -들락-, -엉-, -으릉-’은 형용사 어근 ‘굽-, 검-’에 붙어서 불규칙적 어근을 만들었고 여기에 다시 접미사 ‘-하다’가 붙어서 형용사를 파생했다. 이런 파생어도 많은 편이다.

불규칙적 어근 + 접미사 → 부사

‘굽닥-, 곱들락-, 검엉- 검으릉-’에 ‘-이’ 접미사가 붙으면 부사가 파생된다. 이런 말도 많다. ‘고단고단이, 곳곳이, 고망고망이, 면면이, 집집이, 날날이, 돌돌이, 번번이, 툼툼이’ 따위로 파생 부사가 된 것도 있고, 부사 어근에서 파생된 ‘펼락이, 바락이’ 따위도 있다.

<참고>

어근과 파생 접사의 구분

어근과 파생 접사를 구분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 ‘돌베(품질이 낮은 배)’의 ‘돌-’을 접두사로 보고, ‘돌코망, 돌일’이나 ‘돌침, 돌쿠루, 돌하르방’에 쓰인 ‘돌’은 명사로 합성어를 만드는 어근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그것은 같은 형태 ‘돌-’이라도 ‘베’에 쓰인 ‘돌-’은 뜻도 추상적이고, 다른 과일에 쓰는 것도 제한적이다. 이 ‘돌-’이 ‘돌복숭게(돌복숭아)’로는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돌코망, 돌하르방’ 등에 쓰인 ‘돌’은 광물질 ‘돌’과 관련된 구체적인 뜻으로 쓰여서 그것과 관련 있는 명사에는 얼마든지 쓸 수 있다. ‘돌칼, 돌담, 돌 울타리’ 따위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같은 ‘돌’이라도 어근과 접사로 구분된다. 그러나 ‘돌킹이’는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

‘막말’에서 ‘막-’도 ‘마지막, 끝’의 뜻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하는 말’일 때의 ‘막-’은 어근이 되나, ‘함부로 하는 말’일 때의 ‘막-’은 접두사가 된다.

‘헤거리, 꿩거리’에 쓰인 ‘-거리’는 접미사로 쓰여 파생어가 된다. ‘일거리, 국거리’의 ‘거리’는 어근이어서 합성어가 된다. 같은 ‘거리’이지만 접미사 ‘-거리’에는 ‘재료’의 뜻이 없고, ‘비하’나 ‘주기적으로 하는’의 뜻을 지니고 있다.

2.2 한자에 의한 단어 형성

한자는 뜻글자여서 글자 하나하나가 실질적인 뜻을 가진 단어로 볼 수 있다. 그래서 한 글자로 된 단어는 단일어가 되고, 두 글자 이상으로 된 단어는 복합어라고 할 수 있다.

2.2.1 단일어

한자어에는 ‘책(冊), 상(床, 賞), 강(江), 산(山), 동(東), 서(西), 남(南), 북(北), 성(兄), 독(毒)’과 같은 명사도 있고, ‘단(但), 혹(或)’과 같은 부사도 있다. ‘총(總), 약(約)’과 같은 관형사도 있고, ‘관(貫), 리(里), 명(名), 분(分)’과 같이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 명사도 있다. 이들은 문장에서나 담화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어 한 글자로 된 단일어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강(強), 약(弱), 급(急), 속(速)’과 같은 것들은 한 글자로 되었지만 제숫말 담화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않으므로 단일어로 보기가 어렵다. 동사 ‘거(去), 래(來), 생(生)’이나 형용사 ‘려(麗)’도 마

찬가지다. 국어에서는 어간에 어미가 붙어서 된 것도 단일어로 보나, 한자에는 어미가 없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없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 한자나 고유어와 어울려 복합어를 만들게 된다.

2.2.2 복합어

제줏말에서도 두 글자 이상의 한자어를 복합어로 볼 수 있다. 복합어에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파생어와 합성어가 있다.

① 합성어

한자어 합성어도 두 어근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데, 담화에서 자립적으로 쓸 수 있는 것만을 합성어라고 할 수 있다. ‘주연(主人), 점상(兼床), 창문(窓門), 사발(沙鉢), 개격(價格), 신부(新婦), 절혼(結婚), 수가(休暇), 왕래(往來), 전답(田畝), 성제(兄弟)’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번성(繁盛), 분명(分明), 이상(異狀)’들은 두 글자로 되었지만 이들은 담화에서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이들이 담화에서 쓰려면 다른 한자어나 고유어와 같이 어울려야 합성어가 된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합성어로 다루지 못한다.

제줏말에서 한자어 합성어로 쓰이는 것은 ‘곡식(穀食), 권당(眷黨), 동세(同墾), 병원(病院), 양식(糧食), 역시(役事), 용시(農事), 즈식(子息)’들이다. 명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밖에도 한자어 어근과 제줏말 어근이 결합해서 된 합성어도 많다.

고유어 어근 + 한자어 어근 → 합성 명사

‘쉐막(-幕), 몰막, 웨막(외밭에 지은 오두막), 건들막(더위를 피하기

위해 임시로 만든 시설), 말방(-房), 췌왕²⁾(소를 매어두는 곳), 쌀궤(쌀櫃), 말피막(말避幕 : 말을 피하려고 수로 넘김), 할망당(--堂), 돌림빙/병(傳染病), 큰말젓성(최소한 5명 이상의 형이 있을 때, 네 번째 형을 일컫는 말), 물회(물膾)’ 따위.

한자어 어근 + 고유어 어근 → 합성 명사

‘찰/챗질(찰길), 책바툼(책받침), 목간칩(沐間-), 상사칩(鄉舍-), 상돌(香-) : 돌로 된 향로), 삼촌조케(三寸조카), 수양아들(收養--), 백물, 황쇄, 선장쇄(先장쇄 : 무리에서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소)³⁾, 성아시(兄弟)’ 따위.

② 파생어

한자어 파생어도 접두 파생어와 접미 파생어로 나눌 수 있다.

• 접두 파생어

‘강회(強膾, 물을 넣지 않은 회), 당⁴⁾사둔(當査頓)’에서와 같이 어근 ‘회, 사둔’에 접두사 ‘강-, 당-’이 결합해서 된 단어가 접두 파생어이다.

2) ‘췌왕’의 ‘왕’은 ‘방(房)’에서 기원한 것이다. 제주말에는 모음 뒤에서 /ㅂ/이 ‘오/우’로 바뀌어 쓰이는 일이 있다. ‘대밭/대왓, 대호바당/대호와당, 보리밭/보리왓’ 따위로 쓰인다.

3) ‘선장쇄’는 ‘암장소’로 ‘선(先)’은 ‘앞’을 한자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4) 친족이나 사둔의 앞에 붙어 ‘바로’나 ‘친’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이다. 표준어 ‘당숙’의 ‘당-’과는 다르다. 제주말에서는 ‘당사둔’은 ‘사위나 며느리의 부모’를 일컫는 말로 쓰인다.

한자어 접두사 + 한자어 어근 → 한자어 파생어

‘매번(每番), 매일(每日), 매년(每年), 생이별(生離別), 씨⁵⁾스춘(媿四寸), 양제(養子), 연(延)⁶⁾건평, 연(延)인일, 연(軟)분홍, 왕고모(王姑母), 외삼촌(外三寸), 정(正)반대, 제일(第一), 제이(第二), 진면목(眞面目), 차남(次男), 친손지(親孫子)’ 따위.

• 접미 파생어

‘남즈, 여즈(-子, -子)’에서와 같이 어근 ‘남, 여’에 접미사 ‘-子’가 결합해서 된 단어가 접미 파생어이다. 이런 파생어는 아래와 같다.

한자어 어근 + 한자어 접미사 → 한자어 파생 명사

‘짐개(김哥), 맥타기(--機), 발동기, 즈영계(--械 : 자전거), 짐씨(김氏), 이씨, 주인장(--丈), 노인장, 상장(-狀), 모즈(帽子), 상지(箱子), 농부하니/농바니(農夫漢), 도하니(屠漢 : 백정)’ 따위.

이밖에도 고유어와 한자어, 또는 한자어 고유어로 된 파생어들도 활발하게 쓰인다.

고유어 접두사 + 한자어 어근 → 파생 명사

‘막노동, 만동세(큰동서), 맞전(맞돈), 벼락부제(벼락부자), 벼락공부, 솟총각, 솟처녀, 헛고생, 헛수고’ 따위.

한자어 접두사 + 고유어 어근 → 파생 명사

‘대(大)보름(대보름), 매(每)날, 매들(매월), 매해(매년), 생(生)냥, 생

5) ‘씨-’는 ‘시(媿)’에서 경음화된 것인지, 아니면 ‘씨(種)’과 같은 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6) 연(延) : 작은 단위가 여러 차례 되풀이되거나 포함되어도 그 전체를 한 단위로 셈하여 나타낼 때 쓰는 말로, ‘연 15인의 일거리’라 할 때는 관형사이다.

(生)거짓말, 생(生)트집, 씨아방, 양아들, 양푼(양팔), 연사흘, 왕하르방
(증조부), 왕대, 왕밥주리, 초허루, 초이틀' 따위.

한자어 접두사 + 고유어 어근 → 파생 용언

'도(都)말으다, 도물다, 연(軟)붙다' 따위.

고유어 어근 + 한자어 접미사 → 파생 명사

'브름기(--氣), 술기, 지름기, 물기, 시장기' 따위.

한자어 어근 + 고유어 접미사 → 파생 명사

무주워(無主- : 어디에도 소속이 되어 있지 않아 의지할 데 없는 사람), 심술다리(心術--), 욕심쟁이, 침바치, 막(幕)아지/막사리, 선생질(先生질), 강히(強-), 급히(急-), 독히(毒-), 속히(速-), 대단히, 정히(正-)-히, 족히(足-), 지독히(至毒-), 신속히(迅速-), 쯤쯤히(仔仔-), 정성껏(精誠-), 성의껏(誠意-), 즈유롭다(自由-), 이롭다, 향기롭다, 해롭다, 왕래하다, 백궐하다(白闕-), 노력하다' 따위.

<참고>

제웃말 한자어의 특이성

제웃말이 표준어와 다른 점이 있듯이, 제웃말 한자어도 표준어와 같은 형성법에 의해서 된 것이라도 모두 같지는 않다. 제웃말 한자어는 대부분 실생활과 관련된 것들이다.

가. 발음이 다름

표준어에서는 성씨 뒤에 쓰이는 '가(哥)'가 제웃말에서는 [개]로, 또 표준어는 '자(子)'나 '사(事)'가 제웃말에서는 [즈/지]나 [스/시]로,

‘김(金)’이 [짐]으로, ‘주인(主人)’이 [주연]으로 발음되기도 한다.

‘용시(農事), 사건(事件), 학생(學生), 선생(先生), 동세(同墾), 사둔(查頓), 수가(休暇), 세탕(砂糖) 삼스방(三四方), 쨌당(眷黨), 삼춘(三寸), 승시(凶事), 면서기(面書記)’ 따위로 얼마든지 다르게 발음되는 한자어를 찾을 수 있다.

나. 뜻이 바뀌어 쓰임

한자어가 뜻이 바뀌어 쓰이는 것도 있다. ‘역사(役事)’는 ‘토목이나 건축 따위의 공사’를 뜻하는 말이지만, 발음도 [역시]로 바뀌어 ‘돌역시(役事)하다’는 ‘돌을 다루는 일을 하다’나, ‘밤역시하다’는 ‘아기들이 백일해에 걸려 밤만 되면 열이 나고 기침하면서 보체다’는 뜻으로 관용어화해서 쓰이는 것도 있다.

‘어중간(於中間)’도 한자어로는 명사인데 제춧말에서는 자립적으로 쓰이지 못한다. 접미사 ‘-하다’를 붙여 ‘어중간하다’가 되어 ‘딱 믿지 못하고 의심스럽다’는 뜻으로 쓰인다. 또 ‘어중그랑하다’로도 쓰인다. 한자 ‘간’이 ‘그랑’으로 바뀌었다.

제춧말 ‘어중-기’도 표준어 ‘어중-이’와 같은 뜻 ‘어중(於中)이 되어 탐탁치 못한 사람’을 일컫는데, 제춧말 접미사 ‘-기’는 표준어 ‘-이’와 같은 뜻으로 다르게 쓰이고 있다.

또 ‘나여에, 느여에’의 ‘여’가 ‘에게, 에게는’의 뜻으로 한자어 ‘與’에서 온 조사로 보인다. 그 밖에도 ‘나 상에’의 ‘상’이 ‘에 대해서’의 뜻으로 한자어 ‘上’에서 온 것이라면, 이런 일은 표준어에서는 흔한 일이 아닐 것이다.

3. 단어의 기원

제춧말은 말소리와 뜻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다. 뜻을 가지고 있는 많은 말들 가운데, 뜻을 가진 가장 작은 언어 단위, 곧 더 이상 쪼개면 뜻이 없는 말이 되거나 본래의 뜻과 관련이 없

는, 전혀 다른 뜻을 가지는 말이 되는 것을 ‘형태소’라 한다. 그리고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 가운데 가장 작은 언어 단위를 ‘단어’라 한다.

제숫말에는 수많은 단어들(단어)이 사용되는데, 이러한 단어들(단어)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은 공통된 성격을 가지는 단어들(단어)을 묶어서 살펴본다. ‘어휘’란 일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는 단어(단어)의 집합(집합)을 가리키는 말로서, 단어들(단어)을 유형별로 살피는 데 매우 유용하다. 어휘는 그 집합(집합)의 성격에 따라 ‘방언, 은어, 남성어, 여성어, 아동어, 노인어, 청소년어, 공대어, 하대어, 속어, 관용어, 속담, 금기어, 완곡어, 전문어, 신어’ 등과 같이 여러 이름을 붙일 수 있다.

제숫말도 엄연히 우리말(국어)에 포함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제숫말에 쓰이는 단어(단어)나 어휘(어휘)도 말의 기원(기원)이나 계통(계통)에 따라 크게 순우리말(고유어)과 차용어(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순우리말(고유어)은 원래부터 우리말(국어)에 있었던 단어(단어)를 말하고, 차용어(외래어)는 다른 나라 말(말)로부터 빌려서 쓰는 단어(단어)를 말한다. 차용어(외래어)는 중국어, 몽골어, 여진어, 만주어, 일본어, 기타 서양의 여러 언어(언어)들에서 들어온 말이다. 차용어(외래어)는 다시 한자어(漢字)와 차용어(외래어)로 나눌 수 있다. 한자어(漢字)와 차용어(외래어)는 다른 말(말)에서 들어온 말(말)이라는 공통점(共同點)이 있지만, 한자어(漢字)는 언어(언어) 자체가 우리말(국어)에 차용(借用)되어 발음(發音)이 우리말(국어)에 맞게 바뀌었다(變換)는 점에서 다른 차용어(외래어)와 구별(區別)된다. 한편 우리말(국어)과 차용어(외래어)가 섞여 쓰이는 혼종어(混種語)도 있다.

3.1 고유어

제숫말에는 표준어(標準語)와 같은 것도 있고, 기원(기원)이나 어원(語源)이 같은 것도 있다. 또한 표준어(標準語)나 다른 지역 방언(方言)에 남아 전하지 않는 고유어(固有語)도 많다.

친족 관련 어휘

아버지/아부지/아바지/아방, 어머니/어무니/어마니/어멍, 할아버지/하라바지/하르부지/하르방, 할머니/할무니/할마니/할망, 큰아버지/큰아부지/큰아방, 셋아버지/셋아부지/셋아방, 말젓아버지/말젓아부지/말젓아방, 작은아버지/작은아부지/작은아방, 큰어머니/큰어무니/큰어멍, 셋어머니/셋어무니/셋어멍, 말젓어머니/말젓어무니/말젓어멍, 작은어머니/작은어무니/작은어멍, 아시, 가시어멍, 다슴어멍

기타 어휘

새/새왓, 어욱/어웁, 지세/지에, 지세집/지에집, 몸/ㅁ음/똥망

표준어 ‘아버지’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아버지/아부지/아바지/아방’ 등으로 쓰이고, ‘어머니’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어머니/어마니/어무니/어멍’ 등으로 쓰였다. 그러나 ‘아버지/아부지’와 ‘어머니/어무니’ 등은 호칭어나 지칭어에서 모두 쓰였지만, ‘아방’과 ‘어멍’은 지칭어나 낮춤말로 쓰였다. 그러니까 ‘아방’과 ‘어멍’은 표준어 낮춤말인 ‘아비’와 ‘어미’에 대응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방’과 ‘어멍’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표준어 ‘할아버지’에 대응하는 제줏말도 ‘할아버지/하라바지/하르부지/하르방’ 등으로 쓰이고, ‘할머니’에 대응하는 제줏말도 ‘할머니/할마니/할무니/할망’ 등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할아버지/하라바지/하르부지’와 ‘할머니/할마니/할무니’ 등은 호칭어와 지칭어에서 모두 쓰이지만, ‘하르방’과 ‘할망’은 지칭어나 낮춤말로 쓰인다. 그러니까 ‘하르방’과 ‘할망’은 표준어 낮춤말인 ‘할아비’와 ‘할미’ 정도에 대응하는 것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르방’과 ‘할망’의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제죽말 ‘다슴아방/다심아방’과 ‘다슴어멍/다심어멍’은 표준어 ‘의붓 아버지’와 ‘의붓어머니’에 대응하는 말이다. ‘다슴/다심’은 옛말이자 중세국어인 ‘다슴’이 변해서 쓰인 말이다. ‘다슴아방/다심아방’은 옛말이자 중세국어인 ‘다슴아비/다슴압[繼父]’이 변해서 쓰인 말이고, ‘다슴어멍/다심어멍’은 옛말이자 중세국어인 ‘다슴어미/다슴어미[後妻/繼母]’가 변해서 쓰인 말이다.

제죽말 ‘가시아방’과 ‘가시어멍’은 표준어 ‘가시아비(아내의 아버지를 낳잡아 이르는 말)’와 ‘가시어미(아내의 어머니를 낳잡아 이르는 말)’에 대응하는 말이다. ‘가시’는 옛말이자 중세국어인 ‘갓’(혼인하여 남자의 짝이 된 여자)에서 유래한 말이다. 제죽말에서는 낳잡아 이르는 말로 쓰이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새’는 벗과의 여러해살이풀로, 표준어 ‘새[草/茅]’나 ‘띠[茅]’에 대응하는 제죽말이다. 제죽말 ‘새’에 대응하는 중세국어는 ‘새’와 ‘뒤’로 쓰였다. 이 ‘새’와 ‘뒤’는 오늘날 표준어에서 각각 ‘새’와 ‘띠’로 전해지고 있다.

새 나온 菴子(茅菴) <『남명집언해』(1482) 상:72>

苫 새 널 섬 <『훈몽자회(예산 문고본)』(1527) 하:8>

뒤 爲茅 <『훈민정음(해례본)』(1446) 용자례>

늘애는 뒤 두플 씨오(苫은 茅覆也 | 오) <『묘법연화경언해』/『법화경언해』(1463) 2:105>

뒷 불룻 직 세 兩과(茅根灰三兩) <『구급방언해』(1466) 하:27>

이 ‘새’가 자라거나 ‘새’를 가꾸는 밭을 제죽말에서 ‘새왓’이라고 한다. ‘새왓’을 일군다는 뜻으로는 ‘새왓 이긴다’라고 했다. ‘새왓’은 ‘새+밭’의 구성에서 ‘새밭’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말이다. 중세국어

에서 순경음 ‘빙’은 합성어 ‘르’과 모음 사이에 쓰였는데(글밭[文], 말 밭[菱] 등), ‘풀밭[畬田/畬]>풀밭[畬/火田]’ 등과 같이 ‘빙’이 소멸되어 쓰이기도 하고, 근대국어의 ‘즌솔밭’과 같이 ‘님’으로 바뀌어 쓰이기도 했다.

제줏말 ‘어욱/어웁’은 표준어 ‘억새(벚과의 여러해살이풀)’에 대응하는 말이다. 그러나 ‘어욱/어웁’은 근대국어 ‘어웁새(罷王根草 어웁새 <『역어유해』(1690) 하:40>)’와 ‘어욱새(『송강가사』의 「장진주사」)에서 확인되는 ‘어웁/어욱’에 바로 대응하는 말이다. 표준어 ‘억새’는 근대국어 ‘어웁새=어욱새’가 ‘어욱새’와 ‘웁시’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말이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제줏말 ‘어욱’과 ‘어웁’은 근대국어 ‘어웁새’와 ‘어욱새’의 ‘어웁’과 ‘어욱’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줏말 ‘지세’와 ‘지에’는 표준어 ‘기와’의 중세국어 ‘디새’의 변화형이라 할 수 있다. 중세국어 ‘디새’는 ‘딜[陶]+새[草/茅]’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이 ‘디새’는 근대국어에서 ‘지새’(瓦 지새 와 <『왜어유해』(18세기 말) 상:32>)가 되었는데, 이 ‘지새’가 제줏말에서 ‘지새’로 유지되거나 ‘지세’로 변하여 쓰이고 있다. ‘지새’는 나중에 ‘지에’로 변하고, 이것이 ‘지에’로도 변화되어 쓰이고 있다. ‘지세’를 덮은 집은 ‘지세집’이라 하고, ‘지에’를 덮은 집은 ‘지에집’이라 했다.

디새 닐 와 <『훈몽자회』(초간본: 1527) 하:8>

坏 놀디새 빅 俗呼瓦未燒者曰坏瓦 <『훈몽자회』(초간본: 1527) 하:8>

제줏말 ‘아시’는 표준어 ‘아우’에 대응하는 옛말 ‘아스’의 변음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옛말 ‘아스’는 ‘아으>아으’의 과정을 거쳐서 현대국어 ‘아우’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제줏말 ‘아시’는 중세국어 ‘아스’가 ‘아시’의 과정을 거친 다음 ‘아시’로 쓰이고 것이다.

아스 爲弟 <『훈민정음(해례본)』(1446) 용자례>

아스와 아스왜 먼 짜해 잇느니 <『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1481)
25:27>

습다

“동네칩 식게 넘어 나민 사을 불 아니 습나”와 같은 제줏말에서 확인되는 ‘습나’는 어간 ‘습-’에 평서형어미 ‘-나’가 붙은 것이다. ‘습-’의 활용형 ‘습다’는 현대국어 표준어 ‘삶다’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습다’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 ‘습다’의 원뜻은 “물에 넣고 끓이다”인데, 제줏말에서는 ‘(불을) 때다’의 뜻으로도 의미가 확대되었다.

이는 前生애 들기을 습는 사르미니 <『월인석보』(1459)-중 23:80>
鯉魚를 습모니 내 오란 病을 묻도다 <『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
본)(1481) 20:8>

네 콩 습기 아디 못흔는 듯흐고나 <『번역노걸대』(1517) 상:19>
콩 흔 말을 뜨르게 습고 밀 닷 되을 정히 굴회여 복가 <『신간구황촬
요(윤석찬 교수본)』(1660?) 11>
煮肉 고기 습다 <『역어유해』(1690) 상:50>

제줏말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이외에도 고유어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3.2 한자어

한자어는 한자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말이다. 제줏말에 사용되는 한자어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한자어도 있지만, 많은 수가 중국이나 중국 문헌을 통해서 받아들인 것이다. 개화기와 일제강점기 이후에도

많은 한자어가 일본어 영향으로 들어왔다. 서구 문물의 수입이 일본을 통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일본에서 독자적으로 만든 한자어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

짐치

표준어 ‘김치’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짐치’이다. ‘김치’에 대응하는 옛말은 한자어 沈菜(침채)에서 온 것으로, ‘탐치>덤치>짐치>짐칙’ 등으로 쓰였다.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제주말 ‘짐치’가 표준어 ‘김치’보다 더 오래된 말이라 할 수 있다.

베치

표준어 ‘배추’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베치’이다. ‘배추’에 대응하는 옛말은 중국 한자어 白菜(백채)에서 온 것으로, 중세국어에서 ‘비치’로 쓰였다. 이 ‘비치’가 변하여 제주말에서는 ‘베치’로 쓰이고 있다.

즈식·즈숙·즈석(子息)

제주말 ‘즈식’은 표준어 ‘자식’에 대응하는 옛 한자어 ‘즈식’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한편 ‘즈식’에 대응하는 중세국어는 ‘즈석’으로도 쓰였는데, 이 ‘즈석’에서 단모음화한 것이 ‘즈석’이고, ‘즈석’에서 모음 조화로 다시 쓰인 것이 ‘즈숙’이다.

즈식과 업이 다 죽느니(子母具殞) <『언해태산집요』(1608) 27>
어미 즈식빅여 열 들 스이예 신괴 그지 업스니라 <『부모은중경언해』(1563) 3>
즈석 업고 손지 업스면 다 늑미 거시 도의리니 <『변역박통사』(1517) 상:7>
내 남진도 잇고 즈석도 이시니 <『동국신속삼강행실도』(1617) 열7:89>

잠녀>잠네(潛女), 잠수(潛嫂)

제주말 ‘잠네’는 한자어 潛女(잠녀)에서 온 것으로, 옛 한자어 ‘잠녀’에서 ‘ㅣ’가 추가되어 쓰인 것이다. 제주말 ‘잠수’도 한자어 潛嫂(잠수)의 옛 한자음 ‘잠수’에서 온 것이다. 요즘에는 해녀(海女)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예전에는 ‘잠녀>잠네’나 ‘잠수’가 훨씬 많이 쓰였다. 아직도 나이 많은 사람의 말에서는 ‘잠네’나 ‘잠수’가 훨씬 많이 쓰이고 있다.

여청>예청(女丁)

제주말 ‘여청>예청’은 한자어 女丁(여정)에서 온 말이다. 한자어 女丁(여정)은 중국의 『漢典(한전)』에서 “성년의 여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서, 원래는 15살에서 60살까지의 성년 여성을 뜻하는 말이었는데, 현재 제주말에서는 남의 아내를 뜻하는 말로 쓰이고 있다.

장남[丁男]

제주말의 ‘장남’은 ‘만아들’을 뜻하기도 하고, 장성하고 건강한 일꾼을 뜻하는 말로도 쓰이는데, 여기서 일컫는 ‘장남’은 후자의 뜻으로 쓰인 것을 이른다. 중국의 『漢典(한전)』에서 “국역에 종사할 수 있는 성년의 남자”를 뜻하는 말로 丁男(정남)이 등재되어 있다. 이 丁男(정남)에서 온 말이 제주말 ‘장남’인 듯하다. 제주말에서는 머슴을 데린다는 뜻으로 ‘장남 드리다’ 또는 ‘장남 들다’는 말을 썼다.

동싱/동승[同生]

제주말 ‘동싱’과 ‘동승’은 표준어 ‘동생’과 같이 두 가지 뜻으로 쓰인

다. 하나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이이거나 일가친척 가운데 손아랫 사람을 이르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한 손아랫사람에게 이름 대신 부르는 말이다.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 등을 보면, 이외의 뜻은 설명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제주말 ‘동싱’과 ‘동승’은 이외에도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제주말 ‘동싱/동승’이나 표준어 ‘동생’은 중세국어 한자 同生(동생)에 대응하는 한자어 ‘동싱’에서 유래한 말이다. 이 ‘동싱’의 본디 뜻이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형제자매”를 뜻하는 말로 쓰였다. 다음과 같은 예문의 ‘동싱누의’, ‘동싱오라비’, ‘동싱’ 등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논 내 아비 동싱누의와 어미 동싱오라비게 난 형이오.....이논 우리
어미 동싱의게 난 아시오(是小人姑舅哥哥.....是小人兩姨兄弟)
<『번역노걸대:(1517) 상:15>

이속고 아스와 동싱의 즈식들히 세간 논화 단 사라 지라 흐거를(旣而
弟子 | 求分財異居어늘) <『번역소학』(1518) 9:22~23>

이러한 뜻은 제주말 ‘동싱’과 ‘동승’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에서는 “손아랫사람”이라는 뜻으로만 전해지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말 ‘동싱/동승’과 표준어 ‘동생’은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삼촌[三寸]

제주말 ‘삼촌’은 표준어 ‘삼촌(三寸)’에 대응하는 뜻으로도 쓰이지만, 표준어에는 없는, “촌수로 삼촌 밖의 아저씨뻘이나 아주머니뻘이 되는 항렬의 사람”의 뜻이나, “친척이 아닌 동네 어른을 가깝게 부르거나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그러므로 제주말 ‘삼촌’은 표준어 ‘삼촌’과 일대일 대응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탕건(宕巾)/탕근/탕긴

표준어 ‘탕건(宕巾: 벼슬아치가 갓 아래 받쳐 쓰던 관의 하나. 말총을 잘게 세워서 앞쪽은 낮고 뒤쪽은 높게 턱이 지도록 뜬다. 집 안에서는 그대로 쓰고 외출할 때는 그 위에 갓을 썼다.)’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탕건’ 또는 ‘탕근/탕긴’ 등으로 쓰이고 있다. ‘탕건’은 중국어 ‘당건(唐巾)’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동네(洞→)

‘동동네, 셋동네, 옷동네, 알동네, 머레깃동네’ 등에서 쓰이는 ‘동네’는 “자기가 사는 집의 근처”를 뜻하는 말로, 표준어 ‘동네’와 형태도 동일하고 의미도 동일하다. 이 ‘동네’는 옛말 ‘동니[黨 동니<『한청문감』(1770?) 9:22>]’에서 변한 말이다. 이 ‘동니’는 한자어 ‘洞內(동내)’에서 온 말이다.

제주말도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제주말에 쓰이는 한자어도 위에 살펴 본 것 외에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다. 근래에는 ‘견출지(見出紙), 시말서(始末書), 행선지(行先地), 음용수(飲用水), 대합실(待合室), 십팔번(十八番), 기라성(綺羅星), 신병(身病), 수순(手順), 정종(正宗), 촌지(寸志), 납득(納得), 책정(策定)’ 등과 같이 일본어에서 쓰이는 한자어가 많이 들어와 쓰이고 있기도 하다.

3.3 차용어

원래는 다른 나라 말이었는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국어처럼 쓰이는 단어를 차용어(외래어)라고 한다. 차용어는 외래어와 같은 말인데, 특히 한국 한자어와 같이 국어로 완전히 동화된 외국어는 차용어라

하고, 한자어 이외의 외국어가 국어화한 것은 외래어라 하여 구분하기도 한다.

3.3.1 중국어 차용어

다홍(大紅)

제줏말에서 ‘짙고 산뜻한 색이나 빛’을 뜻하는 말로 ‘다홍’(예: 다홍치메)은 중국 한자어 ‘大紅(따홍)’의 중국어 발음 dàhóng(따홍)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는 ‘다홍’으로 쓰였다가, 근대국어를 거치면서 ‘다홍’으로 굳어졌다.

비단(匹段/緋緞), 미녕(木棉/木綿)

제줏말에서 ‘비단(명주실로 짠 광택이 나는 피륙)’은 중국 한자어 ‘匹段(피뚜안)’의 중국어 발음 pǐduàn(피뚜안)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중세국어에서부터 ‘비단’으로 써왔다. 한편 ‘무명실로 짠 피륙’을 제줏말로 ‘미녕’이라 한다. 표준어에서는 ‘무명’이라 하는데, 이것은 중국 한자어 木棉·木綿(무미엔)의 발음 mùmián(무미엔)을 ‘무면’으로 쓴 뒤에, 변한 것이다. 木棉·木綿(mùmián/무미엔)이 제줏말에서는 ‘미녕’으로 쓰였다.

점방(店房)[점빵]

‘가게로 쓰는 방’은 표준어에서나 제줏말에 ‘점방[점빵]’이라 하는데, 이 말은 중국 한자어 店房(띠엔팡)의 중국어 발음 diànfáng(띠엔팡)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중세국어에서 ‘덤방’, 근대국어에서 ‘덤방’으로 표기되고, 이 ‘덤방’의 ‘덤’이 구개음화와 단모음화를 거쳐서 ‘점방’으로 쓰인 것이다.

붓, 먹

문방사우의 하나인 ‘붓’과 ‘먹’도 중국어 筆(필)과 墨(묵)의 중국음이 들어와 변한 것이다. ‘붓’은 중세국어에서 ‘붓’으로 쓰이고, ‘먹’은 중세국어에서도 ‘먹’으로 쓰였다. 이들은 현대 중국어에서 각각 [bǐ](삐/비)와 [mò](무어)로 쓰여서, 받침이 발음되지 않고 있다.

누비이불/니비이불

‘누비옷/니비옷’이나 ‘누비이불/니비이불’ 등에서 확인되는 ‘누비/니비’는 중세국어에서도 ‘누비’로 쓰였는데, 중국어 衲衣/納衣(납의)에서 온 말이다. ‘누비’는 원래 ‘승복(僧服)’이나 ‘승의(僧衣)’를 뜻하던 말인데, 오늘날은 “겹으로 된 천을 줄이 죽죽 지게 박거나 겹 사이에 솜 따위를 넣어 줄이 지게 박은 물건”을 뜻하는 말로 쓰인다.

이외에도 중국어 차용어는 많다.

3.3.2 몽골어 차용어

제줏말에서 몽골어 차용어는 주로 말[馬]과 관련된 말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요즘은 이 말과 관련된 차용어도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가라/가레/가라말/가레말

표준어 ‘가라말(털빛이 온통 검은 말)’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가라/가레’ 또는 ‘가라말/가레말’ 등으로 쓰이고 있다. 이 ‘가라/가레’는 몽골어 ‘qara’가 제줏말에 영향을 줘서 쓰인 것이다. 중세국어에서도 ‘가라말(가라말/黑馬 <『번역노걸대』(1517) 하:9>, 黑馬 가라말 <『역어유해』(1690) 하:28>)로 쓰였으니, 이 제줏말은 중세국어에서 거의 그대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적다/적데/적다몰/적데몰

표준어 ‘절따말(몸 전체의 털색이 밤색이거나 불그스름한 말)’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적다몰/적데몰’로 쓰였다. ‘절따말’에 대응하는 옛말은 ‘절다몰’로 쓰이고, 이 ‘절다몰’의 한자 차용 표기로 赤多馬(적다마)가 쓰였다. 제주말 ‘적다몰’의 ‘적다-’는 중세국어 ‘절다’가 변한 것이 아니라 차자 표기 赤多(적다)의 음차인 듯하다. 중세국어 ‘절다’는 몽골어 또는 만주어 ‘jerde-’에서 온 것이라고 한다.

질메

표준어 ‘길마’(짐을 싣거나 수레를 끌기 위하여 소나 말 따위의 등에 얹는 안장)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질메’이다. ‘길마’는 중세국어에서 ‘기르마’ 또는 ‘기르마’로 쓰였는데, 중세 몽골어 ‘gölme’에서 차용한 말이라고 한다. 제주말 ‘질메’는 근대국어 ‘기르매’에서 변한 것이다.

이외에도 몽골어 차용어는 더 있다.

3.3.3 일본어 차용어

일본어 차용어는 주로 일제강점기나 그 후에 들어온 것이 대부분이다.

미깡, 나스미깡, 킵깡

한자어 밀감(蜜柑)이나 귤(橘)의 일본어 발음 ‘미깡/미깡(みかん/ミカン)’이 영향을 줘서 제주말 ‘미깡’이 만들어져 많이 쓰인 적이 있다.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나 들을 수 있을 뿐, 장년층 이하에서는 ‘밀감’이나 ‘귤’, ‘감귤’ 등으로 쓰이고 있다.

『표준국어대사전』이나 『고려대 한국어대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여

름밀감’ 또는 ‘여름귤(--橘)’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한자어로 하귤(夏橘: 일본어에는 주로 夏蜜柑이나 夏橙을 쓰고 있다.)이라 하고 있다. 하귤(夏橘)에 대응하는 일본어는 なつみかん/ナツミカン(나쓰미감/나쓰미깡)이라 했는데, 이 말이 제줏말에 영향을 끼쳐서 ‘나쓰미깡/나쓰미깡’ 또는 ‘나쓰/나쓰’ 등으로 쓰인 적이 있다.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의 말에서나 들을 수 있다.

한자어 금감(金柑)에 대응하는 일본어 きんかん/キンカン(긴감)이 영향을 줘서 제줏말에서 ‘깡깡’이라 한 적이 있었다. 요즘에는 한자어 금감(金柑)이나 금귤(金橘)로 쓰는 경우가 많다.

이외에는 ‘난닝구, 뽀스, 도끼다시, 오니, 오야지, 다꾸앙, 오뎡, 야바이’ 등과 같은 일본어 차용어가 많이 쓰였다. 이들은 요즘 점차 사라지는 듯하다. 하지만 요즘 일본 영화나 일본 만화 등을 통해서 ‘반카이[만회/회복], 오다꾸(오타쿠), 이지메, 찌라시, 쿠사리, 스키다시, 나가리, 가라오케’ 등과 같은 새로운 일본어가 무차별적으로 들어오는 듯하다.

일본어식 영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들도 있는데, 그런 말을 썼던, 나이 많은 사람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런 말도 덩달아 사라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어사나 방언사에서 반길 일이다.

공구리/공그리

영어 concrete(콘크리트: 시멘트에 모래와 자갈, 골재 따위를 적당히 섞고 물에 반죽한 혼합물)가 일본어에 영향을 줘서 일본어 콘クリート(konkurīto/콩구리잇도)가 만들어지고, 이 발음이 제줏말에 영향을 줘서 ‘공구리’ 또는 ‘공그리’가 만들어져서 많이 쓰인 적이 있었다. 요즘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건축 일을 하는 사람들 사인에 일부 남아서 쓰이는 듯하다.

오라이

영어 all right가 일본어에 영향을 줘서 オーライ(오라이: 정지하거나 멈춰 있는 차가 출발해도 된다는 신호)가 만들어지고, 이 말이 제줏말에 영향을 줘서 ‘오라이’로 쓰인 적이 있다. 주로 나이 많은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고, 장년층 이하에서는 잘 들을 수 없다.

3.3.4 만주어 차용어

후리매, 두루막/두루마기/두루메기

표준어 ‘두루마기’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후리매, 두루막/두루마기/두루메기’ 등으로 쓰이고 있는데, 이 말은 만주어 kurume에서 온 것으로 보고 있다. 근대국어에서는 “褸子 쿠리매 <『동문유해』(1748) 상:55>. 補褸 흥비 붓친 쿠리매……褸子 쿠리매 <『한청문감』(1770?) 11:4>” 등으로 표기되었다.

호미

표준어 ‘낫’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호미’로 쓰이고 있다. 이 말은 만주어 homin에서 들어온 말이라고 한다. 중세국어에서는 ‘호미’로 쓰이고 근대국어에서는 ‘호미’로 쓰이다가, 표준어와 제줏말에서 ‘호미’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표준어 ‘호미’는 김매는 도구를 뜻하고, 제줏말 ‘호미’는 풀을 베거나 해초(海草)를 베는 데 사용하는 도구를 뜻하는 말로, 뜻의 차이가 있다.

제줏말에 만주어 차용어는 그리 많지 않다.

3.3.5 기타 차용어

담배

표준어 ‘담배’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담베’로 쓰이고 있다. 이 ‘담베’는 에스파냐 어(또는 포르투갈 어) tabaco(따바꼬)가 우리나라 말에 들어와 쓰인 것이다. 이 에스파냐어가 일본어에 영향을 미쳐 タバコ(tabako)로 쓰이고 이 말이 우리나라 말에 영향을 줬다고도 한다.

빵

‘빵’은 포르투갈 어 pão(판), 스페인 어 pan(판)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말이다.

가빠

‘가빠’(비바람이나 눈보라를 막기 위하여 만든 두꺼운 천. 또는 거기에 고무 같은 것을 먹인 천)는 포르투갈 어 capa(카파)가 우리나라 말에 영향을 줘서 쓰인 것이다. 이 말이 일본어에 영향을 줘서 カーパ(가빠)로 쓰이고, 이 말이 다시 우리나라 말에 영향을 줬다고도 한다.

이외에도 고유어인 듯이 변한 차용어가 많다.

3.4 혼종어

혼종어(混種語)는 고유어와 한자어, 차용어 등 양자 또는 삼자의 낱말 요소로 이루어진 말을 뜻하는 말로, 영어의 loanblend(프랑스어 요소+영어 요소의 보기로서는 nobleness, beautiful, aimless, troublesome 따위 ; 반대의 보기로서는 shepherdess, endearment,

wrappage 따위)와 같은 뜻으로 썼다. 그러므로 고유어와 한자어, 고유어와 차용어 또는 외래어, 한자어와 차용어 또는 외래어가 서로 합성되어 쓰인 말을 뜻한다.

영어의 loanblend는 사람에 따라 혼성어(混成語)로도 번역되나, 혼종어(混種語)로 번역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혼성어(混成語)는 영어의 portmanteau word나 blending(motor와 hotel을 결합하여 만든 motel처럼, 한 단어의 앞부분과 다른 단어의 끝 부분을 결합하여 만든 단어)의 번역어 개념으로 써서 구분하기로 한다.

한편 영어의 pidgin(피진)도 혼성어로 번역하여 쓰기도 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외래어로 인정하여 ‘피진’이라 하고 있다. 특히 영어권에서 외국인끼리 몇 개의 언어를 혼합하여 쓰는 보조 언어(영어에 중국어·인도네시아어·아프리카어 등의 낱말과 문법이 섞인 상거래용 혼성 영어가 있음.)를 ‘피진’이라 한다. 피진 잉글리시가 대표적이다.

초집(草-)

제주말에서 ‘새’로 지붕을 이은 집을 “새집”이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초집(草-)’이라 부른다. 젊은 층에서는 물론 장년 층에서도 ‘초가(草家)’나 ‘초가집(草家-)’이 일반적으로 쓰이지만, 나이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초집’이라는 말을 일반적으로 쓴다.

이 ‘초집’의 지붕을 이는 데 쓰는 풀을 ‘새’라 하고, 이 ‘새’가 자라거나 ‘새’를 가꾸는 밭을 ‘새왓’(표준어 : 새밭)이라 한다.

성아시(兄-)

표준어 ‘형제(兄弟)’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성아시’로 쓰이고 있다. ‘성아시’는 한자어 ‘형(兄)’이 구개음화와 단모음화의 과정을 거쳐서

쓰인 제줏말 ‘성’과, ‘아우’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아스’가 변하여 쓰인 제줏말 ‘아시’가 결합되어서 쓰인 것이다.

담배쌈/담배쌈지

표준어 ‘담배쌈지(살담배나 잎담배를 넣고 다니는 주머니)’에 대응하는 제줏말은 ‘담배쌈/담배쌈지’로 쓰이고 있다. 이 ‘담배쌈/담배쌈지’는 에스파냐 어 tabaco(따바코)에서 영향을 받은 ‘담배’와 순우리말 ‘쌈/쌈지’가 결합되어서 쓰인 말이다. ‘쌈’은 ‘쌈’의 중세국어 ‘뵘’이 변해서 쓰인 제줏말이다.

빵떡

‘빵떡’은 포르투갈 어 pão(팡), 스페인 어 pan(판) 등의 영향에서 쓰인 ‘빵’과 순우리말 ‘떡’이 결합되어서 쓰인 것이다. ‘떡’은 중세국어에서 ‘떡’으로 쓰였다.

감은유마/감은유메

털빛이 검은빛을 띤, 짙은 갈색의 말을 ‘감은유마/감은유메’라고 한다. ‘감은’은 ‘검-[黑]’에 대응하는 ‘감-[黑]’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쓰인 것이고, ‘유마/유메’는 한자어 ‘유마(驪馬)’에 영향을 받은 말이다. 우리말 ‘감은’과 한자어 ‘유마/유메’가 결합하여 쓰인 제줏말이 ‘감은유마/감은유메’이다.

이외에도 제줏말에 혼종어는 많이 있다. 근래에는 ‘주민자치센터, 월드컵로’ 등과 같이 건물 이름이나 도로명에서도 혼종어가 많이 쓰이고 있다. 더욱이 앞으로 이런 혼종어는 더 늘어나고 더 활발하게

쓰일 것으로 보인다.

4. 단어의 의미와 의미 관계

4.1 단어의 의미

사람이 사회생활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의사소통의 1차 도구인 언어, 곧 말을 해야 한다. 그런데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말소리는 물론 뜻(의미)을 공유해야 한다. 말하는 사람의 뜻, 그리고 듣는 사람의 뜻, 그리고 말이 가지고 있는 본래 뜻이 서로 통해야 뜻이 제대로 통하는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의 의사소통은 결국 의미의 소통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언어의 의미는 중요하다.

<참고>

의미장(意味場)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말들이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있다고 보면, 이러한 관계에 있는 언어 표현들의 집단이나 집합을 의미장(意味場)이라 한다.

이 말은 독일에서 발전한 장(場, field) 이론에서 나온 개념이다. 독일어 ‘bedeutungsfeld’(영어 semantic field)를 사람에 따라서 ‘의미장(意味場)’, ‘의미밭’, ‘개념장(개념밭)’, ‘어휘장(낱말밭)’, ‘언어장(언어밭)’ 등과 같은 용어로도 번역해서 쓰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하나의 언어에는 많은 의미장이 존재한다.

제웃말에는 ‘감다/검다, 히다, 붉다/발갡다/벌겡다, 푸리다/파랗다/퍼렇다, 노랗다’ 등은 색이나 색채를 표현하는 말로, 색채의 의미장을 이루고 있다. ‘하르부지, 할무니, 아부지, 어무니, 성, 아시, 누이’ 등과 같은 말은 친족의 의미장을 이루고 있다.

이와 같이 동일한 의미장에 속하는 표현들은 의미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지만, 모두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니다. 유의어들은 동일한 의미장에 속하기는 하지만, 유의어만으로 의미장이 구성되는 것은 아니다.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는 길의 하나는 그 단어와 의미적으로 관련이 있는 다른 단어와 비교하여 그들 간의 의미 관계를 살펴보는 일이다. 서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등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을 의미 관계를 살핀다고 한다.

4.2 다의 관계와 동음이의 관계

하나의 단어에는 하나의 뜻만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 뜻이 있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단어들은 상호 다양한 의미 관계를 맺는다. 하나의 단어가 하나의 뜻만을 가진 단어, 또는 그런 단어의 결합을 ‘단의어’라고 하고,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단어를 ‘다의어’라고 한다.

표준어 ‘산(평지보다 높이 솟아 있는 땅의 부분)’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오름’이나 ‘오름’으로 쓰이고 있다. 그런데 표준어 ‘산’은 산소(山所: 뫼가 있는 곳)를 뜻하는 말로도 쓰인다. 그러나 제주말에서는 ‘뫼가 있는 곳’을 ‘오름/오름’이라 하지 않고, 그냥 ‘산’이라 한다. 그러므로 제주말 ‘오름/오름’은 단의어이다.

제주말 ‘먹대[食]’는 표준어와 같이 매우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다. 음식 따위를 입을 통해 배 속으로 들여보낸다는 뜻도 있고, 담배를 피운다는 뜻도 있다. 또한 술을 마신다는 뜻도 있고, 일정한 나이에 이르거나 나이를 더한다는 뜻도 있다. 더 나아가 욕이나 편잔 따위를 듣거

나 당한다는 뜻도 있고, 뇌물을 받아 가지거나 수익·이문 따위를 차지하여 가진다는 뜻도 있다. 그러므로 제줏말 ‘먹다’는 다의어이다.

대개 단어는 하나의 형태에, 뜻은 여러 개가 대응하는 일이 흔하다. 뜻은 서로 다르지만 형태가 같은 것들은 ‘동음어’ 또는 ‘동음이의어’라고 한다.

표준어 ‘다래’(㉠ 다래나무. ㉡ 다래나무의 열매. ㉢ 아직 피지 않은 목화의 열매)에 대응하는 제줏말을 ‘드레’로 쓰이는데, 굳이 구분해서 말하려고 할 때는 ‘목화의 열매’를 ‘멘넛드레/멘네 드레’라 한다. 한편 목화의 열매는 ‘드레기’ 또는 ‘멘넛드레기’라고 하는데, 다래나무나 다래나무의 열매는 ‘드레기’라 하지 않는다.

4.3 상하 관계

단어의 의미 관계를 살펴다 보면, 단어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계층적인 포함 관계인 상하의 관계가 드러나기도 한다. 계층 구조에서 위에 있는 것을 ‘상의어(上義語)’라 하고, 아래에 있는 것을 ‘하의어(下義語)’라 한다. 뜻, 곧 의미를 중시한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지만, 위치를 중시한다면 ‘상위어(上位語)’와 ‘하위어(下位語)’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같은 자리에 놓이는 단어들은 ‘공하의어(共下義語)’ 또는 ‘동위어(同位語)’라 한다.

표준어 ‘돼지’에 대응하는 제줏말 ‘도새기/도야지/돛’을 상정해 보고, ‘암돼지’에 대응하는 제줏말 ‘암토새기/암토야지/암돛’과, ‘수돼지’에 대응하는 제줏말 ‘수토새기/수토야지/수돛’ 등을 상정해 보자. 이 경우에 ‘도새기/도야지/돛’은 계층 구조에서 위에 있으므로 ‘상의어’ 또는 ‘상위어’가 되고, ‘암토새기’와 ‘수토새기’는 ‘하의어’ 또는 ‘하위어’가 된다.

어'가 된다.

이런 상의어와 상의어의 관계에서는 일방적인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 곧 “우리집이 암토새기 쫓수다.”(우리 집에 암돼지가 있습니다.)라고 할 때, “우리집이 도새기 쫓수다.”(우리 집에 돼지가 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의어가 들어간 말이 옳으면(참이면) 상의어가 들어간 말도 항상 옳은 것이 된다. 이럴 때 문장에서 함의 관계가 있다 또는 함의 관계가 성립한다고 한다.

4.4 유의 관계

단어들 가운데 형태는 다르지만, 뜻이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들이 있는데, 이런 단어들을 ‘유의어(類義語)’라고 한다. ‘동의어(同義語)’라고도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단어에서 의미가 완전히 같고 모든 문맥에서 상호 교체되어 쓰일 수 있는 것은 없다.

- 얼굴/양지/뺨, 트멍/즈르/즈름/저름
- 아까/갓사, 흔저/재기/빨리/빨리

위에 보인 제죽말 단어 쌍들은 모두 형태상으로 다른 단어들이다. 그렇지만 의미는 거의 비슷하게 쓰이는 것들이다. 이러한 부류의 말은 일상적으로 비슷한말이라고 하나, 학문적으로는 유의어라고 한다. 이처럼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한 말들의 관계를 유의 관계에 있다고 하고, 유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유의어’라고 한다. 유의어를 ‘동의어’라 하기도 하나, 이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은 서로 의미가 비슷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의미가 같은 것은 아니라서 유의어라 하는 것이다.

- 얼굴은/양지는/뺨은 씻었다?(얼굴을 씻었느냐?)
- 그걸 헐 트멍/즈르/즈를/저를이 었다.(그것을 할 틈/겨를이 없다.)
- 잠잘 트멍/즈를에 그걸 해 불러.(잠잘 틈/겨를에 그것을 해 버려라.)

유의어는 차용에 의한 것, 방언 차이에 의한 것, 사용 영역의 차이에 의한 것, 문체의 차이에 의한 것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4.5 반의 관계

의미가 반대되는 단어들은 ‘반의어(反義語)’라고 한다. 다른 의미 내용은 공통적이고 오직 하나의 의미 내용에서만 반대가 될 때 반의어가 된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에서 나타나는 반의의 양상이 복잡해서 반의어를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하지만 대개 등급 반의어, 상보 반의어, 방향 반의어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이 양쪽 극단에 있고, 그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어 등급을 나눌 수 있는 반의어를 ‘등급 반의어’라 한다.

높다/높으다 - 낮다/낮이다
 하다 - 적다/족다
 빨르다/빨르다 - 느리다
 두텁다 - 얇롭다

널르다 - 좁다
 베다 - 게뻬다/게뵈다
 훤다 - ㄹ늘다
 붉다 - 어둡다

이상의 등급 반의어는 등급을 나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주로 형용사에서 많이 볼 수 있다. 이들은 중간 상태가 있기 때문에 한 쪽을 부정하는 것이 다른 쪽을 긍정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높이지 안허다’(높지 않다)가 반드시 낮다는 뜻은 아니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 가운데 의미 영역이 상호 배타적으로 둘로

나누어져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는 단어들 있는데, 이들을 ‘상보 반의어’라고 한다. 상보 반의어는 중간 상태가 존재하지 않는다.

남즈(男子)/남제 - 여즈(女子)/여제 알다 - 몰르다

반의 관계에 있는 단어들 가운데 반대 방향으로 이동함을 나타내는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관계에 있는 단어들을 ‘방향 반의어’라고 한다.

알/아래[下] - 위/위[上]	늑단손/오른손 - 왼손
부모 - 자식	성 - 아시
사다[買] - 팔다[賣]	
열다/열다[開] - 덮다/덮다[閉]	
올르다[昇] - 내리다/내리다[降]	
처음/처음/시작 - 끝/끝/조름[尾]	
일등(一等) - 꼴등/꼴등	
수톨마기 - 암톨마기	수톨찌귀 - 암톨찌귀
이렁 - 고랑	

위에 보인 반의어들은 기준점을 중심으로 서로 자리를 바꾸어 나타날 수 있는 것(역의 관계에 있는 반의어), 두 단어의 방향이 서로 반대 가 되는 것(역행 관계에 있는 반의어), 두 단어의 방향이 양쪽 끝을 나타내는 것(대척 관계에 있는 반의어), 기준점을 중심으로 상호 방향이 서로 다른 쪽을 나타내는 것(대응 관계에 있는 반의어) 들이다.

4.6 의미 변화

말은 계속해서 변화한다. 쓰이던 말이 안 쓰기도 하고, 안 쓰이던

말이 새로 쓰이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뜻으로 쓰이던 단어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쓰이기도 하고, 더 많은 뜻을 가진 말로 쓰이기도 한다. 이런 것을 ‘의미 확대’ 또는 ‘의미 확장’이라고 한다. 반대로 많은 뜻을 가졌던 말이 의미가 줄어들어 쓰이기도 한다. 이런 것을 ‘의미 축소’라고 한다. 또한 의미가 전이되는 것도 있다. 이런 것들은 의미의 범위가 변화한 것이다. 한편 경멸적 의미로 변하거나 개량적으로 의미가 변하는 등 가치가 변하는 것도 있다.

의미 변화는 언어적 원인, 역사적 원인, 사회적 원인, 심리적 원인 등으로 일어날 수가 있다. 언어적 원인에 의한 변화는 전염 또는 전파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고, 생략 또는 탈락(묵음화) 등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고, 민간 어원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역사적 원인에 의한 변화는 지시물의 본성이 변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지시물에 대한 지식의 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고, 지시물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다. 사회적 원인에 의한 변화는 의미의 특수화나 의미의 일반화 등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심리적 원인에 의한 변화는 감정적 요인, 금기 등의 요인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의미 변화의 결과는 크게 범위의 변화와 가치의 변화로 나눌 수 있다. 범위의 변화는 의미의 확대, 의미의 축소, 의미의 전이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가치의 변화는 긍정적 가치 부여, 부정적 가치 부여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숯다

“동네집 식게 넘어 나민 사을 불 아니 숯나.”(동넛집 제사 넘으면 사을 불을 아니 땀다.)와 같은 제주말에서 확인되는 ‘숯나’는 어간 ‘숯-’에 평서형어미 ‘-나’가 붙은 것이다. ‘숯-’의 활용형 ‘숯다’는 표준

어 ‘삼다’의 옛말 ‘삼다’가 그대로 이어진 것이다. 이 ‘삼다’의 원뜻은 “물에 넣고 끓이다”인데, 제주말에서는 ‘(불을) 때다’의 뜻으로도 의미가 확대되어 쓰인다.

이는 前生에 들기을 삶는 사르미니 <『월인석보』(1459)-중 23:80>
鯉魚를 슬모니 내 오란 病을 묻도다 <『분류두공부시언해』(초간본)(1481)

20:8>

네 콩 삶기 아디 못흐는 듯흐고나 <『번역노걸대』(1517) 상:19>
콩 흔 말을 뜨르게 삶고 밀 닷 되를 정히 굴회여 복가 <『신간구황촬
요』(윤석찬 교수본)』(1660?) 11>

煮肉 고기 삶다 <『역어유해』(1690) 상:50>

삼촌

표준어 ‘삼촌’에 대응하는 제주말은 ‘삼촌’으로 쓰인다. 그런데 표준어 ‘삼촌(三寸)’은 “아버지의 형제를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만 쓰이지만, 제주말 ‘삼촌’은 이외에도 “방계로 부모와 같은 항렬의 백부모·숙부모 또는 형제 자녀의 촌수” 또는 그들을 이르거나 부르는 말로도 쓰이고, 촌수로 삼촌 밖의 속항(叔行)인 친척이나, 친척이 아니지만 동네의 삼촌뻘이나 아버지뻘의 사람들을 가깝게 부르거나 일컫는 말로도 쓰인다. 그러므로 표준어 ‘삼촌’보다 제주말 ‘삼촌’의 의미가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5. 단어의 분류

5.1 단어 분류의 기준

단어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단어들의 수가 너무 많기 때

문에 구성과 기능을 비롯한 단어들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어를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분류한 결과를 품사라고 한다.

단어를 분류할 때는 기능과 형태, 의미의 세 가지를 기준으로 삼는다. 기능은 문장에서 쓰이는 성분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고, 형태는 단어의 꼴이 바뀌는지 바뀌지 않는지 그리고 어떻게 바뀌는지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며, 의미는 나타내는 뜻에 따라서 단어를 분류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할 때 확실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정도로 말하면 기능, 형태, 의미의 순이다. 형태의 바뀜 여부와 바뀌는 양상은 대개 토박이 화자의 직관으로 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모든 단어에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아니다. 따라서 단어를 분류할 때는 단어의 쓰임새, 즉 문장에서 다른 단어와 맺는 관계인 기능을 먼저 따르고, 기능에 의해 분류되지 않는 것들은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며, 그래도 분류되지 않는 것들은 의미에 따라서 분류한다.

기능을 기준으로 단어를 분류하면 먼저 체언, 관계언, 용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을 요약하고 전통적으로 언급되어 온 품사를 괄호 안에 보이면 아래와 같다.

- 용언: 문장에서 서술어 기능을 하는어들(동사, 형용사)
- 체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역할을 하는어들(명사, 대명사, 수사)
- 관계언: 체언과 결합하여 그 체언과 다른 단어와의 관계를 나타내거나 특별한 뜻을 첨가하기도 하는어들(조사)
- 수식언: 다른 단어의 뜻을 분명하게 정해 주거나 제한해 주는 수식 기능을 하는어들(부사, 관형사)

- 독립언: 다른 요소와 관련이 없이 홀로 나타날 수 있는 단어들(감탄사)

아래의 예문을 이용하여 위의 단어 부류들을 설명하기로 한다.

야, 느네 둘이 아뵙 실퍼도 이 돌을 든든이 보라.(야, 너희 둘이 아무리 싫어도 이 돌을 찬찬히 보아라.)

아래에서 언급할 독립언만으로 구성된 문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문장에 항상 나타나야 하는 요소가 있다. 이 요소를 서술어라고 하는데, 다른 요소의 동작이나 상태, 성질 따위를 서술해 주는 말이다. 위 예문에서는 ‘실퍼도’와 ‘보라’가 이에 해당하는데, 일반적으로 이 두 단어를 각각 형용사와 동사라고 부르고, 이 둘을 합쳐서 용언이라고 부른다.

이 서술어는 필수적으로 다른 요소가 문장 안에 함께 나타나도록 요구한다. 만약 서술어가 필수적인 요소 하나만 요구할 경우, 그 요소를 주어라고 하고, 어떤 단어가 주어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주격 조사라고 한다. 위의 예문에서 2인칭 대명사 ‘느’에 복수 접미사 ‘네’가 결합한 ‘느네’(너희)와 ‘둘’이 동격으로 전체 문장의 주어이고, ‘돌’로 하여금 주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주격 조사인 ‘이’이다. 만약 하나의 문장에 서술어만 나타나고 주어가 없으면 토박이 화자들은 그 문장을 어색하게 느낀다. 다시 말해서 원칙적으로 문장은 서술어 하나만으로 구성되지는 않고, 최소한 다른 요소 하나와 서술어로 구성된다. 예를 들어 “든든이 보아라.(찬찬히 보고 있더라.)”라는 문장을 들으면 ‘누가?,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하게 마련이다.

서술어가 주어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도 필수적으로 요구할 때가 있

다. 이 경우에 주어가 아닌 다른 요소를 목적어라고 하고 어떤 단어가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목적격 조사라고 한다. 주어만 필수적으로 요구하는지, 목적어까지 필수적으로 요구하는지 하는 것은 서술어에 속한 단어에 따라서 달라진다. 위 예문에서는 ‘보라’가 ‘느네’ 혹은 ‘돌’뿐만 아니라 ‘돌’도 요구하기 때문에 이 ‘돌’이 목적어이고 ‘돌’로 하여금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이 목적격 조사인 ‘을’이다. 서술어가 요구하는데도 목적어가 문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토박이 화자들은 그 문장 역시 어색하게 느낀다. 예를 들어 “가이가 든든이 보아라.(그 아이가 찬찬히 보고 있더라.)”라는 문장을 들으면 ‘무엇을?’이라는 질문을 하게 마련이다.

위에서 언급한 ‘느네’와 ‘돌’, ‘돌’은 주어, 목적어, 보어 위치에 모두 올 수 있다. 즉 이 단어들은 유사한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단어들을 모두 합쳐서 체언이라고 부른다.

한편 주어 역할을 하게 하는 ‘이’와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하는 ‘을’은 관계언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결국 주어나 목적어는 서술어가 문장에 함께 나타나도록 요구하는 것이고, 주어나 목적어 위치에 오는 단어를 서술어와 관련을 맺게 하는 역할을 ‘이’와 ‘을’이 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언에 속하는 것은 조사뿐이다.

또한 위의 예문에서 ‘실퍼도’(싫어도)라는 서술어는 ‘아멩’(아무리)이라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요구한다. ‘선택적’이라고 한 것은 ‘아멩’이라는 단어가 오지 않아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아멩’은 의미적으로 ‘실퍼도’라는 서술어의 정도를 지정해 준다. ‘든든이’(찬찬히)와 ‘보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다른 단어의 의미를 한정해 주는 것들을 수식언이라 부른다. 한편 ‘돌’ 앞에 오는 ‘이’ 역시 수식언이다. 분포 상으로는 이 단어가 없어도 토박이 화자들이 전체 문

장을 어색하게 느끼지 않고 의미적으로는 ‘돌’의 위치를 지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체언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관형사라고 하고 ‘아멤’처럼 용언을 수식하는 단어들을 부사라고 한다.

그런데 아래의 첫째와 둘째 예문에서 ‘경’(그렇게)과 ‘인칙’(일찍)은 각각 ‘갓수강’(갓습니까)을 수식하는데, 둘째 예문에서는 ‘경’이 ‘인칙’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는 용언뿐만 아니라 다른 부사도 수식한다고 해야 한다.

경 갓수강?(그렇게 갓습니까?)

인칙 갓수강?(일찍 갓습니까?)

경 인칙 갓수강?(그렇게 일찍 갓습니까?)

마지막으로 ‘야’는 독립언이라고 한다. 이 문장에서 뒤에 오는 문장의 다른 요소들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야’만으로도 문장이 성립될 수도 있다. 이 독립언에 속하는 것은 감탄사와 체언+호격 조사이다.

형태를 기준으로 삼으면 단어들은 크게 가변어와 불변어로 나눌 수 있다. 가변어는 단어의 꼴이 바뀌면서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들이고, 불변어들은 어떤 경우에도 단어의 꼴이 바뀌지 않는 것들이다. 이때 가변어의 꼴이 바뀐다는 것은 형태소의 꼴이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이형태와는 다른 개념이다. 즉 환경에 따라 단어의 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법적인 뜻을 나타내기 위해 단어의 꼴이 바뀐다는 뜻이다.

앞에서 분류했던 단어 부류 중에서 가변어에 속하는 것은 용언과 서술격 조사이다. 앞에서 용언의 예로 든 ‘보라’의 어간 ‘보-’와 ‘실퍼도’의 어간 ‘실프-’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 뒤에 어미들이 와서

다양한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보-+-어도 → 보아도
보-+-으민 → 보민
보-+-어사 → 보아사
실프-+-어도 → 실퍼도
실프-+-으민 → 실프민
실프-+-어사 → 실퍼사

그러나 ‘보-’와 ‘실프-’ 뒤에 올 수 있는 어미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제죽말에서 ‘보는다’(보는데)나 ‘보는’에서처럼, ‘보-’ 뒤에는 ‘-느-’가 올 수 있지만, “*실프는다”나 “*실프는” 대신 ‘실핀디’(싫은데)와 ‘실핀’(싫은)이 사용되기 때문에 ‘실프-’ 뒤에는 ‘-느-’가 올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보는다’와 ‘실핀디’, ‘보는’과 ‘실핀’의 문법적인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두 부류를 구별하여, ‘보-’는 동사에 속한다고 보고, ‘실프-’는 형용사에 속한다고 본다. 한편 서술격 조사 ‘이-’는 ‘-느-’가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형용사와 같지만, 그 앞에 항상 체언류가 온다는 점에서 형용사와 구별되고, 항상 체언 뒤에 오는 조사에 속한다고 간주된다.

나머지 단어 부류들, 즉 체언, 서술격 조사를 제외한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단어의 끝이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을 불변어라고 하는데, 이 불변어는 다시 주어와 목적어와 보어라는 여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체언과, 오직 하나의 역할만을 하는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으로 나누어진다.

체언을 더 구분하려면 의미에 따라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기능이 나 형태에 기대서는 더 이상 구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미를 기준으로 체언은 아래의 세 품사로 나뉜다.

- 명사: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말
- 대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대신 나타내는 말
-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나타내는 말

여기에서 ‘사물’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것은 “물질 세계에 있는 모든 구체적이며 개별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이나 일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이름이나 ‘걱정’과 같은 것들은 명사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단어 분류의 기준과 그 결과는 아래와 같다.

		기능	형태(특징)	의미
용언	동사	원칙적으로 문장의 필수 성분	바뀜(어간에 ‘느’ 결합 가능)	
	형용사		바뀜(어간에 ‘느’ 결합 불가능)	
관계언	서술격 조사	다른 말과의 관계 표시	바뀜(항상 체언류와 결합)	
	조사			
체언	명사	주어, 목적어, 보어	바뀌지 않음	사물의 이름
	대명사			명사 대용
	수사			수량이나 순서
수식언	관형사	체언 수식		
	부사	용언, 다른 부사 수식		
독립언	감탄사	홀로 쓰임		

5.2 체언

일반적으로 체언(體言)은 격조사와 결합하며 주어, 목적어, 보어의 문장 성분이 된다. 체언은 형태 변화가 없고,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특징이 있다. 명사, 대명사, 수사 등이 체언에 속한다.

여기서는 제ڑ말 명사, 대명사, 수사의 문법적 기능과 형태를 살펴 보겠다.

5.2.1 명사

① 고유 명사와 보통 명사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가리키는 말을 명사라고 한다. ‘제주도, 천지연, 설문대’ 등과 같이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고유 명사라고 한다. ‘사람, 땅, 하늘’과 같이 일반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을 가리키는 것을 보통 명사라고 한다.

(1) 천지연은 으라 번 보난 놋이 익다.(천지연은 여러 번 보니까 낮이 익다.)

(1)에서 ‘천지연’과 같이 고유한 특정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고유 명사이고, ‘놋’과 같이 일반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것은 보통 명사이다.

② 자립 명사와 의존 명사

명사에는 자립성을 띠고,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자립 명사가 있다. 자립 명사에 비해 준자립성을 띠며, 항상 관형어의 수식을 받는 의존 명사가 있다.

(2) 지네 말 곧는 줄도 몰랐저.(자기네 말을 하는 줄도 모르고 있네.)

(2)에서 ‘말’과 같이 문장 내에서 다른 성분의 도움 없이 단독으로 쓰이는 것은 자립 명사이다. ‘줄’과 같이 반드시 다른 성분(관형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의존 명사이다.

의존 명사는 문법 기능에 따라 보편성 의존 명사, 주어성 의존 명사, 서술성 의존 명사, 부사성 의존 명사, 단위성 의존 명사로 구분된다. 각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3) 산방산에 강 보민 물이 떨어지는 디가 있어마썸.(산방산에 가서 보면 물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요.)

(3)에서 ‘디’는 표준어 ‘데’에 해당하는 보편성 의존 명사이다. 제주말 의존 명사 ‘디’는 관형어에 후행하며, 격조사 ‘가’나 ‘를’과 결합한다.

표준어 ‘차례’는 명사(순서), 의존 명사(번)의 문법기능이 있고, 제주말 ‘차례’는 명사, 의존 명사 이외에 접사로도 쓰인다.

즉 제주말 ‘차례’는 ‘순서, 차례’를 뜻하는 명사의 주 기능이 있으며, 표준어 ‘줄, 것’에 대응되는 의존 명사로도 쓰이고, 접미사 ‘빨’의 문법 기능도 있다.

(4) ㄱ. 이제 너가 말할 차례여.(이제 네가 말할 순서다.)

ㄴ. 스방이 어두워 부난 누겐 차례도 몰르켜.(사방이 어두워서 누구인 줄도/누구인지도 모르겠다.)

ㄷ. 그 어른이 느영 삼춘차례 아니가.(그 어른이 너와 삼춘빨 아니냐.)

(4ㄱ)에서 제주말 ‘차례’는 표준어 ‘순서, 차례’의 의미와 같다. (4

ㄴ)에서 관형어 ‘누건’은 후행하는 의존 명사 ‘차례’를 수식하고 있어서 표준어 ‘줄’의 문법 기능과 같으나 ‘-ㄴ지’의 의미로 해석할 때 더 자연스럽다. 여기서 ‘차례’는 인지동사 ‘모르다, 알다’와 쓰여서 ‘추측, 가정, 단정, 불확실’의 담화 의미를 나타낸다. (4ㄷ)에 쓰인 ‘차례’는 친척 관계임을 알려주는 접미사 ‘뻘’의 의미로 쓰였다.

제줏말 ‘차례’가 표준어 ‘줄’에 대응하지만, (5ㄱ)과 같이 제줏말 의존 명사로는 ‘중’이 빈번히 사용된다.

- (5) ㄱ. 가인 시국에 죽은 줄 알았저.(그 아인 시국에 죽은 줄 알았다.)
 ㄴ. 야인 나 모르는 생인게.(이 아인 나를 모르는 모양이네.)

(5ㄱ)에서 의존 명사 ‘중’은 인지동사 ‘알다, 모르다’와 쓰이면서 명제에 대한 화자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4ㄴ)에 쓰인 ‘차례’의 문법 기능과 같다.

(5ㄴ)에 쓰인 의존 명사 ‘생’은 화자의 ‘추측, 짐작’의 의미를 나타내며,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 뒤에 위치한다. 이는 표준어 ‘모양’의 의미에 대응된다. 제줏말 ‘생’의 이 형태로 ‘상’도 쓰인다.

제줏말 단위성 의존 명사의 형태는 표준어와 동일한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

제줏말 단위성 의존 명사에는 뭇(단), 바리(바리), 베풀(컬레), 파니(빼기; 논이나 밭을 세는 단위), 적(술) 등이 있다.

바리는 곡식의 종류에 따라 양이 다르다. 즉 조는 10뭇이 1바리이고, 메밀은 4뭇이 1바리이다. 소 먹이는 꼴은 30뭇이 1바리이다.

이 외에도 표준어에 쓰이는 단위성 의존 명사 ‘냥(한약재나 귀금속 등의 무게 단위. 한 냥은 37.5g), 칭(한 칭은 백근), 홉(한 되의 1/10), 근, 말, 되, 섬, 장’ 등은 제줏말에서도 그대로 쓰인다.

(6) ㄱ. 밥 흔 적 도라.(밥 한 술 달라.)

ㄴ. 가인 친정에서 논 두 과니 물려받았저.(그 아인 친정에서 논 두 빼기 물려받았다.)

<제ڑ말 의존 명사 유형>

종류	기능과 성격	보기	
		제ڑ말	표준어
보편성	문장 내에서 여러 성분으로 사용	디, 것 등	분, 이, 것, 데, 바 등
주어성	문장 내에서 주어로 사용	수, 내기 등	지, 수, 리, 나위 등
서술성	문장 내에서 서술어로 사용	따른, 생/상, 모냐 등	따름, 뿐, 터, 때문 등
부사성	문장 내에서 부사어로 사용	츠레, 만이, 중, 줄, 냥 등	대로, 양, 만큼, 체, 줄 등
단위성	수량이나 단위를 나타낼 때 사용	개, 베, 되, 적, 몫 등	개, 쟈레, 되, 술, 단 등

5.2.2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여 받는 것을 대명사라고 한다. 대명사에는 사물을 대신 가리키는 지시 대명사와 사람을 대신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가 있다.

지시 대명사는 화자를 기준으로 하여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가리킬 때 쓰인다. 표준어 지시 대명사는 ‘여기, 거기, 저기’가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제ڑ말 지시 대명사에는 ‘이디, 그디, 저디’ 등이 있다. 사물을 가리키는 대명사에는 ‘이것, 그것, 저것’ 등이 있으며, 구어 형태로는 ‘이거, 그거, 저거’ 등이 있다.

- (7) ㄱ. 이디 ㄱ만이 앓앙 이시게.(여기 가만히 앉아 있자.)
 ㄴ. 그디 먹을 거 핫저.(거기 먹을 것이 많다.)
 ㄷ. 저디 강 보라.(저기 가서 보아라.)

인칭 대명사에는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다. 제쫘말 인칭 대명사 형태를 보면 1인칭에는 ‘나’, 2인칭에는 ‘너, 느’, 3인칭에는 ‘이녁, 지, 가이, 자이’ 등이 있다.

인칭 대명사의 복수 형태에는 ‘우리, 느네, 가이네’ 등이 있다.

인칭 대명사 중 미지칭(未知稱)에는 ‘누게’가 있다. 부정칭(不定稱)에는 ‘아무게’가 있다. 재귀칭(재귀 대명사)에는 ‘자기, 제, 이녁, 지’가 있다. 재귀 대명사는 앞에 한 번 나온 대명사를 다시 가리킨다는 뜻이다.

- (8) ㄱ. 누게가 물통을 청소해신고?(누가 우물을 청소했을까?)
 ㄴ. 가인 자기대로 숙제해라.(그 아인 자기대로 숙제하더라.)
 ㄷ. 자인 우리신디 지네 일 도왜도렌 험신게.(저 아인 우리에게 자기네 일 도와달라고 하고 있네.)

5.2.3 수사

사물의 수량이나 순서를 가리키는 품사를 수사라고 한다. 수사에는 ‘하나, 둘, 셋, 넷’과 같이 수량을 가리키는 양수사가 있고, ‘첫째, 아홉째’와 같이 순서를 가리키는 서수사가 있다.

‘하나, 둘, 열’과 같이 쓰이는 고유어 수사와 ‘일(一), 이(二), 십(十)’과 같이 쓰이는 한자어 수사가 있다. 표준어와 제쫘말 수사의 문법적 기능은 같다.

다만 제쫘말 고유어 수사에는 ‘흐나, 싯, 닛, 다숫, 으숫, 으답’ 등

형태면에서 표준어와 다른 것이 쓰이고 있다.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제ڑ말도 수사와 수 관형사의 구별이 필요하다. 수사는 체언에 속하므로 격조사와 결합할 수 있는데, 수 관형사는 후행하는 체언을 수식하는 기능이 있다.

(9) ㄱ. 가이신디 사탕 흐나 주라.(그 아이에게 사탕 하나 주어라.)

ㄴ. 교실에 간 보난 혹생 흐 명이 앓안 잇어라.(교실에 가서 보니 학생 한 명이 앓아 있더라.)

(9ㄱ)에서 ‘흐나’는 수사이고, 목적격 조사 ‘를’이 생략되었다. (9ㄴ)에서 ‘흐’는 수 관형사로서 단위성 의존 명사 ‘명’을 수식한다.

5.3 관계언

문장 내에서 단어들의 문법적 관계를 표시해 주는 것을 관계언이라고 하는데, 조사가 이에 해당한다. 조사는 크게 격조사, 접속조사, 보조조사로 구분한다.

5.3.1 격조사

격조사는 체언(주로 명사)과 결합하며, 문장 내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 관형어, 보어, 서술어, 독립어 등의 문장 성분 성립에 관여한다.

제ڑ말 격조사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학교 문법 기준) ‘주격 조사, 목적격 조사, 관형격 조사, 보격 조사, 부사격 조사, 서술격 조사, 호격 조사’ 등으로 구분된다.

제ڑ말 격조사의 형태를 보면 주격 조사 ‘이/가, 에서, 서’ 목적격

조사 ‘을/를’ 보격 조사 ‘이/가’ 관형격 조사 ‘이, 네’ 호격 조사 ‘아/야’ 서술격 조사 ‘이다’ 등이 있다.

부사격 조사는 의미에 따라 처격(처소격) ‘에, 에서, 디, 디서’, 여격 ‘신디, 그라’, 동반격 ‘영’, 비교격 ‘왕/광’, 방향격 ‘레, 더레’ 등으로 구분된다.

① 주격 조사

체언과 결합하여 그 문장의 주체가 되게 하는 것을 주격 조사라고 한다. 제ڑ말 주격 조사는 (10)과 같이 표준어와 형태와 문법적 기능이 같은 ‘이/가’가 쓰이고, 단체 주격을 나타내는 ‘에서/서’도 있다.

- (10) ㄱ. 아이덜이 이제도 질에서 놀암신가?(아이들이 지금도 길에서 놀고 있는가?)
- ㄴ. 느간 날 속여 부난 경 욱들어서네.(네가 나를 속여 버리니 그렇게 야단맞았다.)
- ㄷ. 모실에서 그 일을 시작했저.(마을에서 그 일을 시작했다.)

(11)에서 인수사(사람을 가리키는 수사) ‘둘이’와 결합한 ‘서’에는 주격 조사의 기능이 있으므로, 이를 주격 조사 ‘가’로 바꾸어도 -둘이가 -의미는 같다. 다만 인수사가 주어일 때에 서술어는 동사여야 하는 통사 제약이 있다.

- (11) 둘이서 걸어감시냐?(둘이서 걸어가고 있느냐?)

(12)에서 보듯이 제ڑ말 주격 조사도 표준어에서와 같이 생략이 가능하다.

(12) 그디 사람 셔?(거기 사람이 있는가?)

② 관형격 조사

체언을 수식하는 관형어의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을 관형격 격조사라고 한다. 제줏말 관형격 조사에는 ‘이, 네’가 있다.

(13) ㄱ. 그 사람은 가난한 집인 즈순이랏수다.(그 사람은 가난한 집의 자손이었습니다.)

ㄴ. 느네 오라방 어디 가니?(네 오라버니는 어디 가더냐?)

관형격 조사 ‘이’는 체언에 고루 붙을 수 있지만 ‘네’는 선행 체언이 인칭일 때에만 쓰인다.

관형격 조사 ‘네’는 표준어 복수 접미사 ‘네’와 형태가 같다. 제줏말 ‘네’는 선행 체언이 단수일 때는 관형격 조사로 쓰인다. 선행 체언이 복수일 때는 복수접미사의 문법 기능이 있다(야네, 자네 등).

(14)는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것이며, 이는 표준어의 통사 특성과 같다.

(14) 이거 누게 거라?(이것은 누구의 것이냐?)

③ 부사격 조사

체언 뒤에 연결되어 용언을 수식하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게 하는 것을 부사격 조사라고 한다. 부사격 조사는 ‘처격, 방향격, 여격, 동반격, 비교격’ 등 의미에 따라 하위 범주로 나뉜다.

• 처격 조사

처격(처소격) 조사는 장소나 대상을 뜻하는 체언과 결합하는데, 이

때 이와 호응하는 서술어(동사)의 행동을 한정한다.

제주말 처격 조사는 (15)와 같이 표준어 처격 조사와 동일한 ‘에, 에서’ 이 외에 ‘이’, ‘이서’, ‘디’, ‘디서’ 등이 더 쓰인다.

(15) ㄱ. 그 집 올레에 간 사 두서 일름을 불렀수다.(그 집 올레에 가서 서 있으면서 이름을 불렀습니다.)

ㄴ. 저 사람은 제주에서 살았저.(저 사람은 제주에서 살았다.)

ㄷ. 는 혹교서 와시냐?(너는 학교에서 왔느냐?)

처격 조사 ‘에’는 ‘목표’와 ‘소재’를 의미하며, ‘에서’ 역시 처소와 관련된 형식으로 ‘소재’ 표시 기능이 있다.

(16)에 쓰인 처격 조사 ‘이, 이서’는 표준어에 동화되어 ‘에, 에서’로 대체되고 있다.

(16) ㄱ. 우리 삼촌은양 사둔침이 딸 보레 갖추다.(우리 삼촌은요 사 둔집에 딸 보러 가셨습니다.)

ㄴ. 딱 바쁜디 집이서 뭐험디?(아주 바쁜데 집에서 뭐하고 있니?)

다음은 표준어에는 없는 제주말 처격 조사 ‘디, 디서’의 쓰임을 보겠다.

(17) ㄱ. 숫디 머 이시냐 보라.(술에 뭐가 있는지 보아라.)

ㄴ. 가인 밭디서 검질 맺저.(그 아이는 밭에서 김을 매고 있다.)

(17)에서 보면 ‘디’나 ‘디서’의 선행 요소가 처소 명사임을 알 수 있다. 처소의 ‘디’에 ‘서’가 융합된 ‘디서’는 어떤 사건이나 사태가 발생하는 공간적인 장소와 존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방향격 조사

제ڑ말 방향격 조사에는 ‘레’, ‘더레/드레’ 등이 있다.

(18ㄱ)에서 선행 명사에 붙는 ‘레’는 방향의 의미자질을 가지며, 선행 명사가 모음일 때 쓰인다. (18ㄴ)에서 ‘더레’는 선행 명사가 자음일 때 쓰인다.

(18) ㄱ. 거쓴 츄지름 단지레 손을 적전.(얼른 츄기름 단지에 손을 적
셨다.)

ㄴ. 긔사 저 집더레 들어간 건 누게고?(츄 전에 저 집으로 들어
간 것은 누구인가?)

(19)에서 ‘이레, 그레, 저레’ 등은 지시 대명사 ‘이, 그, 저’에 방향격 조사 ‘레’가 결합되어 방향(향진)의 의미가 강하게 나타난다.

(19) ㄱ. 이레 오라.(여기로 와라.)

ㄴ. 그레 놔두라.(거기에 놔둬라.)

ㄷ. 저레 강 보게.(저기로 가서 보자.)

• 여격 조사

여격 조사는 선행 명사를 직접적으로 대상화할 때 쓰인다.

표준어 여격 조사는 ‘에게, 께’, ‘한테’ 등이 있고, 제ڑ말 여격 조사는 표준어와 동일한 형태 이외에 ‘신디’, ‘신디레’, ‘안티’, ‘안티레’, ‘긔라’ 등이 있다.

(20ㄱ)에서 ‘신디’는 표준어 ‘께’, ‘에게’와 문법 기능이 같다. (20ㄴ)에서 여격 조사 ‘신디’에 방향의 의미를 지닌 ‘레’가 결합된 ‘신디레’도 ‘에게’의 의미로 쓰인다. ‘신디레’는 ‘신디’보다 그 대상에 대해 향

진의 의미가 강한 편이다.

- (20) ㄱ. 어머은 촌촌이 일어산 똥신디 간 말 콜아라.(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서 딸에게 가서 말을 하더라.)
ㄴ. 선생이 혹생신디레 먹을 거 줘라.(선생님께서 학생에게 먹을 것을 주시더라.)

(21)에서 ‘안티’는 표준어 ‘에게, 께, 한테’로 대역되나 ‘한테’가 적격이다. 또한 ‘안티’, ‘안티레’의 선행 체언은 사람에 한정된다.

제ڑ말 여격 조사 ‘신디’, ‘신디레’, ‘안티’, ‘안티레’ 등의 형태는 서술어(용언)에 따라 그 쓰임이 달라진다.

- (21) ㄱ. 손님안티 버릇 엇인 짓 말라.(손님한테 버릇 없는 짓 말라.)
ㄴ. 각시안티레 스실 말을 혹엇수다.(각시한테 사실 말을 하였습니다.)

(22)에서 보듯이 제ڑ말 여격 조사 ‘궤라’는 다른 여격 조사에 비해 동사적 제약이 있다. 즉 ‘궤라’의 선행 체언은 인칭에 한정되고, 서술어가 ‘혹다’ 등 일부 동사일 때만 쓰인다.

- (22) ㄱ. 네 벗궤라 일헤 도렐 혹라.(네 벗에게 일헤 달라고 하여라.)
ㄴ. 가인 네궤라 츄마이 입을 펠 수가 엇텐 혹여라.(그 아인 너에게 차마 입을 펠 수가 없다고 하더라.)

• 동반격 조사

표준어 동반격 조사에는 ‘와/과’ 형태가 있으며, 이에 대응되는 제ڑ말 동반격 조사에는 ‘(이)영’이 있다.

(23) 나열 같이 일하게.(나와 같이 일하자.)

• 비교격 조사

표준어 비교격 조사에는 ‘와/과’가 있으며, 제주말 비교격 조사에는 ‘왕/광’이 있다.

(24) ㄱ. 우리집인 아들광 딸이 잘 드툰다.(우리집에는 아들과 딸이 잘 다툰다.)

ㄴ. 느광 난 공부하는 방식이 트나다.(너와 나는 공부하는 방식이 다르다.)

이 외에도 제주말 부사격 조사에는 도구의 ‘로써’, 자격의 ‘로서’ 등이 있다.

④ 그 외 격조사

제주말 목적격 조사에는 ‘을/를’이 있고, 보격 조사에는 ‘이/가’가 있다. 호격 조사에는 ‘아/야’가 쓰이며, 서술격 조사는 ‘이다’가 쓰인다. 이들은 표준어 격조사의 형태나 문법 기능과 동일하다.

(25) ㄱ. 무사 날 찾았수과?(왜 나를 찾고 있나요?)

ㄴ. 숯디 이신 밥은 죽인 웨신게.(술에 있는 밥은 죽이 되었네.)

ㄷ. 나 조케야, 훈저 집에 돌아오라.(내 조카야, 어서 집에 돌아오너라.)

ㄹ. 이딘 우리 살아난 집이여.(여긴 우리가 살았던 집이다.)

<제ڑ말 격조사 종류>

격조사 종류	제ڑ말	표준어
주격 조사	이/가, 예서, 서	이/가, 예서, 서, 께서
목적격 조사	르, 을/를	르, 을/를
보격 조사	이/가	이/가
관형격 조사	이, 네	의
호격 조사	아/야	아/야
서술격 조사	이다	이다
부사격 조사	-	-

부사격 조사	제ڑ말	표준어
처격	예, 예서, 디, 디서	예, 예서
방향격	레, 더레/드레	로
여격	신디/신디레, 안티/안티레, ㄱ라	에게, 한테, 께
동반격	(이)영	와/과
비교격	왕/광	와/과

5.3.2 접속 조사

문장 내에서 단어와 단어를 이어주는 것을 접속 조사라고 한다. 제ڑ말 접속 조사에는 ‘광, (이)영’이 있고, 표준어에는 ‘와/과, 하고, (이)랑’ 등이 있다.

- (26) ㄱ. 느영 나영 곶이 방 청소ㅎ게.(너와 내가 같이 방 청소하자.)
 ㄴ. 어명광 아방은 먼 디 갖저.(어머니와 아버지는 먼 데 갔다.)

5.3.3 보조사

보조사는 주로 체언과 결합하여 그 의미를 더해 준다. 격조사는 선

행 체언에만 결합해야 하는 통사 제약이 있는데 비해, 보조사는 체언 이외에 다른 품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제ڑ말 보조사에는 ‘라근(은/는), ٱ이(같이, 처럼), 처룩/ᄃ추룩(처럼, 같이), ᄃ장/ᄃ지(까지), 아올라(마저, 조차), 냥(대로), 만이(만큼), ٱ이/ٱ이(밖에), (이랑)마랑(커녕), 사(아)’ 등이 있다.

이외에 표준어와 형태가 동일한 보조사 ‘은/는, 도, 만, ٱ, 부터’ 등이 제ڑ말 보조사로도 쓰인다.

(27) ٱ. 너라근 이디 오지 말라.(너는 여기 오지 마라.)

ㄴ. 이녁ٱ이 공부 하영 혼 사름은 잘 몰라.(자네같이 공부 많이 한 사람은 잘 모른다.)

ㄷ. 느처룩 말 하영 곧지 안ᄃ켜.(너처럼 말 많이 하지 않겠다.)

ㄹ. 가이넌 쌍둥이난 생긴 거ᄃ지 ٱ으다.(그 아이들은 쌍둥이어서 생긴 것까지 같다.)

ㄹ. 어멍아올라 욱ᄃ민 안 돼주.(어머니마저 욱하면 안 되지.)

ㅂ. 나냥으로 알앙 가켜.(나대로 알아서 가겠다.)

ㅅ. 가이만이 일 잘ᄃ는 사름 엇다.(그 아이만큼 일 잘하는 사람이 없다.)

ㅇ. 느ٱ이 몰르켜.(너밖에 모르겠다.)

ㅈ. 글 씀이랑마랑 놀ᄃ져.(글을 쓰기는커녕 놀고 있다.)

ㅊ. 나사 그 일을 ᄃ켜마는 가이사 안 ᄃᄃ 거여.(나야 그 일을 하겠다마는 그 아이야 안 할 거다.)

(27ٱ)에서 제ڑ말 보조사 ‘라근’은 표준어 ‘은/는’에 해당된다. 초점이 ‘너라근’에 있어서 너의 행동에 제약이 있다.

(27ㄴ)에서 보조사 ‘ٱ이’는 선행 명사 ‘이녁’을 한정하면서 비교의 의미로 쓰였다.

(27ㄷ)에서 보조사 ‘처록’은 ‘처록/처름/ᄃ추록’ 등의 이형태가 있으며, 표준어 ‘처럼, 같이’에 대응된다.

보조사 ‘같이’와 ‘처록’은 아래 예문과 같이 대체가 가능하다.

(27ㄷ) ‘느골이 말 하영 곧지 안ᄃ켜.

(27ㄹ)에 쓰인 보조사 ‘ᄃ지’는 ‘ᄃ지’와 더불어 중세국어 형태이다. 이 두 형태가 현대국어에서는 ‘까지’로 통일되었고, 제주말에는 ‘ᄃ지’로 남아 있다. 제주말 보조사 ‘ᄃ지’의 이형태로 ‘ᄃ장/꺼정’이 있다.

(27ㅁ)에서 보조사 ‘아올라’는 표준어 ‘마저, 조차’의 의미에 해당된다. ‘아올라’는 선행 명사의 긍정적인 행동을 기대할 때 그 기대가 실현되지 않음을 나무라는 의미로 쓰인다.

표준어 ‘아올러’는 부사이고 ‘더불어’의 의미가 있다. 중세국어 ‘아올다’에서 현대국어 ‘아우르다’로 변했고, 이 ‘아우르다’에서 부사 ‘아올러’가 파생되었다.

(27ㄴ)에서 보조사 ‘냥’은 조사 ‘으로’와 결합하여 ‘냥으로’ 형태로 쓰인다. ‘냥으로’는 주로 인칭 대명사와 결합하여 쓰이는데(나냥으로, 느냥으로 등), 보통 명사와 결합할 때는 ‘냥’만 쓰인다.

느 먹음냥 ᄃ라.(네 마음대로 해라.)

제주말 보조사 ‘냥’은 표준어 ‘대로’의 쓰임과 같다. 즉 표준어 ‘대로’는 보조사와 의존 명사로 통용되는데, 제주말 ‘냥’도 이와 같은 문법 기능이 있다.

먹건 먹는 냥 내 불라.(먹으면 먹는 대로 내 버려라.)

(27ㄱ)에서 보조사 ‘만^이’는 ‘어느 정도’에 해당하는 비교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표준어 ‘만큼’에는 의존 명사와 보조사의 문법 기능이 있는데 제춧말 ‘만^이’도 이와 같다.

느 먹을 만^이 가지라.(네가 먹을 만큼 가져라.)

(27ㅇ)에서 보조사 ‘밖^이’는 선행 명사만을 한정하고 있다. 즉 보조사 ‘밖^이’의 제한 범위는 선행 명사를 넘지 않는다.

(27ㄷ)에서 ‘(이랑)마랑’은 표준어 ‘(는)커녕’에 해당된다. 제춧말 보조사 ‘(이랑)마랑’은 표준어 ‘(는)커녕’의 통사 구조와 같으며 ‘고사하고, 그만두고’의 뜻이 있다.

(27ㅈ)에 쓰인 제춧말 보조사 ‘사’는 표준어 ‘아/야’에 해당된다. 중세국어 ‘사’ 형태가 표준어에서는 ‘사>아’의 과정을 거쳤고, 제춧말은 ‘사>사’로 변해서 지금도 쓰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조사는 선행 명사를 기준으로 해서 동사구의 발화 내용을 제약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보조사는 단순히 선행 명사에만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발화된 문장 전체에 관계된다고 볼 수 있다.

5.3.4 종결 보조사

종결 보조사는 문장 끝에 쓰인다. 표준어 종결 보조사에는 ‘마는, 그러, 요’ 등이 있다. 제춧말 종결 보조사에는 높임말로 쓰이는 ‘마썸, 양/예’와 낮춤말로 쓰이는 ‘게, 기, 이’ 등이 있다.

<참고>

표준어 높임법은 화자나 청자의 사회적 요인(나이, 성별, 직업, 종교, 대화 장면 등)에 어울리게 달라지는 말씨를 가리킨다.

높임법에는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등이 있으며, 선어말 어미에 의해 실현된다. 다만 주체 높임법은 어휘로도 실현된다.

이 중에 상대 높임법은 선어말 어미 이외에 첨사에 의해서도 표현된다. 첨사는 한 문장 내에서 종결 어미 자리에 놓이기 때문에 종결 어미의 통사 기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 첨사는 화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해서 문장 전체에 의미를 덧붙이는 기능이 있다. 즉 대화 상황에 따라서 화자가 첨사들을 선택하므로 이런 문법 기능이 있는 것을 첨사라고 부른다.

이 첨사를 학교 문법에서는 종결 보조사로 다루고 있다.

① 낮춤말 종결 보조사

제웃말 낮춤말(반말) 종결 보조사에는 ‘게, 이, 기’가 있다. 이 형태들은 화자가 청자보다 연장자일 때(또한 동년배일 때) 선택되어 문장 종결에 쓰인다.

(28) ㄱ. 난 오늘 밧디서 일했주게/기/이.(난 오늘 밧에서 일했어.)

ㄴ. 난게/이 오늘게/이 밧디서게/이 일했주.

ㄷ. *난기 오늘기 밧디서기 일했주.

(28ㄱ)에서 종결 어미 ‘주’와 종결 보조사 ‘게, 기, 이’는 자유롭게 선택되어 쓰인다. (28ㄴ)에서 보듯이 종결 보조사 ‘게’와 ‘이’는 한 문장 내에서 거의 통사적인 제약 없이 쓰인다.

(28ㄷ)에서 알 수 있듯이 종결 보조사 ‘기’는 종결 어미 ‘주’와만 통

합하므로, 종결 보조사 ‘게’나 ‘이’에 비하면 통사 제약 환경이 심한 편이다.

제ڑ말 종결 보조사는 화자의 확신, 의지, 단정, 강조 등 화자의 생각을 분명히 전달하려는 의지가 강할 때 쓰인다. 또한 종결 보조사는 부름말과 응답에서도 쓰인다.

② 높임말 종결 보조사

제ڑ말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문법 형태소에는 선어말어미 ‘-우-/-수-’와 ‘-ㅂ-’ 등이 있다.

종결 보조사 ‘마썸, 양, 예’ 등은 주로 문장 종결형에 첨가되어서 청자를 높여 준다. 이 종결 보조사는 표준어 ‘요/말입니다’에 대응된다.

- (29) ㄱ. 어디 가지 말앙 이디 ㄱ만이 이십서양/예.(어디 가지 말고 여기 가만히 계십시오.)
ㄴ. 이제랑 일ㅎ게마썸.(이제는 일하십시오.)

(29)를 보면 제ڑ말 ‘양, 예’는 표준어 ‘요’에 해당하며, 종결 보조사 ‘마썸’과 마찬가지로 문장 종결에 위치하며 상대를 높여주는 의미가 있다.

‘양, 예’는 주로 아주높임이나 두루낮춤 어미에 덧붙어서 상대를 높여주는데 비해, ‘마썸’은 주로 두루낮춤 종결 어미에 덧붙어서 상대를 높여주는 기능이 있다.

- (30) ㄱ. 아멩헤도양/예 어멍이양/예 최고우다양/예.
ㄴ. *아멩헤도마썸 어멍이마썸 최고우다마썸.
ㄷ. 아멩헤도 어멍이 최고주마썸.(아무리헤도 어머니가 최고예요.)

(30ㄱ)을 보면 한 문장 내에서 자유롭게 발화되는 ‘양, 예’는 표준어 ‘요’의 기능과 같다. (30ㄴ, ㄷ)에서 보듯이 ‘마씀’은 문장 끝에 놓여야 한다는 통사 제약이 있다.

종결 보조사 ‘양, 예’는 문장 끝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화자의 심리 상태에 따라 문장 가운데에서도 쓰여 상대에 대한 높임의 강도를 더해 주기도 한다.

제ڑ말 종결 보조사 ‘양, 예, 마씀’은 명사, 부사, 조사, 연결 어미, 종결 어미 등과 통합하여 화자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종결 보조사는 화자가 상대방에게 ‘단정, 확인, 동의 요구’ 등의 뜻을 표현할 때 쓰인다.

5.4 용언

용언은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가변어이고, 문장 내에서 서술어의 기능이 있다. 동사와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한다.

5.4.1 동사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작용을 가리키는 것을 동사라고 한다. (31)에서 동사 ‘붙다, 곤다’는 주어 ‘브름, 가인’에 대해 서술어로 쓰였다.

(31) ㄱ. 브름 붙업서.(바람이 불고 있다.)

ㄴ. 가인 이녁 생각을 잘 곤나.(그 아인 자신의 생각을 잘 말한다.)

동사는 문장 내에서 통사적 기능에 따라 자동사와 타동사로 구분한

다. (31ㄱ)과 같이 그 움직임이 주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은 자동사이다. (31ㄴ)과 같이 그 움직임이 목적어에 미치는 것이 타동사이다.

동사의 성격을 좀더 살펴보면, (32ㄱ)은 자동사의 사례이고, (32ㄴ)은 타동사의 사례이다.

- (32) ㄱ. 살다, 잇다/잇다(있다) 눅다(눅다), 땡기다(다니다), 앓다(앓다)
ㄴ. 낚다, 넘다, 막다, 잡다, 훗다(찾다)

표준어 ‘있다’에 대응되는 제주말 ‘잇다/이시다’와 ‘잇다/시다’ 양 형태는 화자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어 쓰인다. 대체적으로 ‘잇다, 잇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인다. 이에 비해 ‘이시다, 시다’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쓰이는데, 이러한 음운 환경이 규칙적으로 적용되지는 않는다.

5.4.2 형용사

사람이나 사물의 상태나 성질을 가리키는 것을 형용사라고 한다. 형용사는 기능에 따라 성상 형용사, 지시 형용사로 구분한다.

(33)에서 형용사 ‘하다’와 ‘굽다’는 주어 ‘이딘, 느가’에 대해 서술어로 쓰였다.

- (33) ㄱ. 이딘 사람이 한게.(여긴 사람이 많네.)
ㄴ. 느가 한복 입은 잘도 굽다이.(네가 한복을 입으니 아주 굽네.)

성상 형용사는 (34ㄱ)과 같이 대상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낸다. 반면 지시 형용사는 (34ㄴ)과 같이 사물을 지시하는 기능이 있다.

- (34) ㄱ. 굵다, 검다, 들다(달다), 높다, 아프다, 좋다
 ㄴ. 영하다(이렇다), 경하다(그렇다), 어쩡하다(어떠하다)

동사는 명령문(35ㄱ)과 청유문(35ㄴ)의 서술어가 된다. 그런데 형용사는 명령형 어미(36ㄱ)나 청유형 어미(36ㄴ)와 결합하지 못한다.

동사는 움직임을 나타내므로 ‘앉다, 먹다’ 등이 서술어로 쓰여서 주어나 화자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할 수 있다.

형용사는 상태를 나타내므로 ‘좋다’에는 상대방에게 명령하거나 부탁할 수 있는 성질이 없다.

- (35) ㄱ. 이디 ㄱ만이 앉이라.(여기 가만히 앉아라.)
 ㄴ. 이 빙떡 먹어 보게.(이 빙떡 먹어 보자.)

- (36) ㄱ. *느 먹음이 좋아라.
 ㄴ. *우리 먹음이 좋게.

동사와 형용사는 문장에서 서술어의 기능이 있고,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는 공통점이 있다.

동사는 명령문과 청유문을 만들 수 있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 ‘-는-’과 결합이 가능하다. 반면 형용사는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는 동사와 형용사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5.4.3 보조 용언

문장 성분 중에 서술어의 기능을 갖는 것에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이 있다. 보조 용언이란 단어 뜻 그대로 의미와 통사 기능 면에서 본용언의 의미를 도와주며, 단독으로 쓰이지 않고 반드시 본용언 뒤에

쓰인다. 표준어 보조 용언에는 본래부터 보조 용언으로 쓰이는 것과 본용언에서 보조 용언으로 문법화된 것의 두 종류가 있다. 제3말 보조 용언은 표준어와 유사하다.

<참고>

표준어에서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구별하는 방법이 있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 사이에는 다른 문장 성분이 개입되지 않는다. 그 사이에 다른 성분이 개입되면 의미와 통사 특성이 달라진다.

즉 보조 용언이 본용언과 통합할 때에는 일정한 연결 어미를 요구하는 제약이 있다. 두 용언 사이에 '-서'가 개입될 수 있거나, 휴지가 있으면 둘 다 본용언이고, 이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관계이다.

그런데 제3말에서는 본용언에 연결 어미 '-앙-/-'이나 '-안-/-'이 결합되면 후행하는 용언은 본용언으로 쓰인 것이다. 여기서 '-오, -니'이 '-서'의 기능에 해당된다.

본용언은 서술어로서 자립성이 있으나, 보조 용언은 대체로 자립성이 부족하다.

보조 용언은 본용언+보조적 연결 어미 '-아/-어, -게, -지, -고'에 후행한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의 통사 특성은 제3말과 표준어가 동일하다.

제3말 보조 동사에는 '두다, 불다(버리다), 나다, 말다, 잇다(있다), 가다, 오다, 보다, 주다, 지다' 등이 있다.

보조 형용사는 '-고정 하다, -는 생이다' 등 추측의 의미를 지닌 구 형태로 실현되는 점이 표준어와 다르다.

① 두다

제ڑ말 보조 동사 ‘두다’는 ‘놓다, 가지다’와 더불어 보유의 의미를 지닌다. 보조 동사 ‘두다’는 보조적 연결 어미 ‘-아’와 같이 쓰인다.

(37) 그 옷을 이디 머쳐 두라.(그 옷을 여기 맡겨 두어라.)

② 붙다

제ڑ말 ‘붙다/비다’는 표준어 ‘버리다’에 해당하는 보조 동사이며, ‘나다, 말다’와 더불어 종결 보조 동사이다.

(38) 가이가 떡을 먹어 붙었저.(그 아이가 떡을 먹어 버렸다.)

표준어 ‘버리다’나 제ڑ말 ‘붙다’가 연결어미 ‘-아’와 같이 쓰이는 통사 기능은 같다. 다만 표준어 ‘버리다’는 본동사의 주 기능이 있는데, 이와 의미가 같은 제ڑ말 ‘붙다’는 본동사로는 쓰이지 않는다.

③ 나다

(39) 이 말 들어 납디가?(이 말 들어 보셨습니까?)

(39)의 ‘나다’는 종결 보조 동사이며, 보조적 연결 어미 ‘-아’와 같이 쓰인다. 보조 동사 ‘나다’는 ‘행위 완료’의 의미로 쓰이며, 과거에 그런 행동이나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뜻이다.

④ 말다

‘말다’는 제ڑ말에서 본동사의 기능이 강하며 보조 동사의 문법 기

능도 있다. 예문 (40)에서 보듯이 연결 어미 ‘-고’와 보조 동사 ‘말다’가 호응하며, 종결의 의미로 쓰였다.

(40) 남편이 죽게 되고 말았주.(남편이 죽게 되고 말았다.)

⑤ 가다

보조 동사 ‘가다’는 진행의 의미가 있으며, 표준어와 크게 다른 점은 없다.

(41)에서 보조 동사 ‘가다’는 보조적 연결 어미 ‘-아’와 같이 쓰인다. 이때 ‘가다’는 선행하는 본동사의 의미가 진행되는 ‘정도 또는 움직임의 의미’로 쓰인다.

(41) 일이 잘 뒀어 감신게.(일이 잘 되어 가고 있네.)

⑥ 오다

‘오다’는 진행의 보조 동사이고, 보조적 연결 어미 ‘-아’와 통합한다. 동사 ‘가다’가 출발점에서 도착점(近 → 遠)으로 향하는 것이라면, ‘오다’는 도착점(遠 → 近)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 요소 역시 동사여야 한다.

(42) 이제까지 잘 견더 왔주.(지금까지 잘 견뎌 왔지.)

⑦ 보다

‘보다’는 시행 보조 동사이다. 보조 동사 ‘보다’는 선행 본동사의 동작을 실행해 본다는 의미가 있고, 보조적 연결 어미 ‘-아’와 같이 쓰

인다. 이러한 통사 기능은 표준어와 동일하다.

(43) 밥 먹어 보주.(밥 먹어 보자.)

⑧ 주다

(44) 돈 이시민 꾸와 주라.(돈 있으면 빌려 주라.)

(44)의 ‘주다’는 봉사의 보조 동사이며, 연결 어미 ‘-아’와 같이 쓰인다. 동사 ‘주다’는 남에게 어떤 행동을 하는 상황이거나 도움을 주는 상황일 때 쓰인다. 보조 동사로 쓰일 때도 본동사의 의미가 남아 있다.

제주말에서는 동사 ‘주다’ 대신 ‘도라’의 쓰임이 좀더 자연스럽다(‘꾸와 도라’). 다만 여기서는 보조 동사 ‘주다’의 쓰임을 알아보기 위하여 ‘꾸와 주라’를 제시하였다.

⑨ 지다

제주말 ‘지다’는 표준어와 마찬가지로 피동 보조 동사로 쓰이고, 보조적 연결 어미 ‘-어’와 같이 쓰인다.

(45)에서 ‘지다’는 ‘피동성’의 의미자질을 갖고 있다.

(45) 는 그 문제 풀어지크냐?(너는 그 문제를 풀어지겠니/풀 수 있겠니?)

제주말 보조 동사 중에 ‘두다, 불다, 나다, 가다, 오다, 보다, 주다, 지다’ 등은 보조적 연결 어미 ‘-아’와 호응한다. ‘말다’는 보조적 연결 어미 ‘-고’와 호응한다.

⑩ -(으)ㄴ 생이다, -고정 하다

제ڑ말 ‘생, 모양’은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과 결합하여 추측 보조 형용사의 의미로도 쓰인다. ‘-고정 하다’는 표준어 ‘-고 싶다’의 의미와 같다.

(46) ㄱ. 아방이 경 곁은 생이여/모양이여.(아버지가 그렇게 말했는가 보다/말한 모양이다.)

ㄴ. 난 가이영 놀고정 하다.(난 그 아이와 놀고 싶다.)

(46ㄱ)에서 보듯이 ‘생’은 추측 보조 형용사인 ‘보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또한 ‘생이다’ 자리에 ‘모양(모양)’이 쓰이는 것도 자연스럽다. 표준어에서 명사 ‘모양’은 추측이나 짐작의 의미로도 쓰인다. 이때 ‘모양’은 서술격 조사 ‘이다’와 결합하여 서술어로 쓰이는데, 제ڑ말 ‘생이다’와 의미·통사 구조가 같다.

(46ㄴ)에서 연결 어미 ‘-고정’과 동사 ‘하다’가 통합되어 ‘-고 싶다’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표준어에는 추측의 보조 형용사 ‘싶다’가 있는데 제ڑ말에는 동일한 형태는 없다. 다만 (46ㄴ)에서 보듯이 이에 대응되는 어휘가 그 역할을 대행하고 있다.

5.4.4 용언의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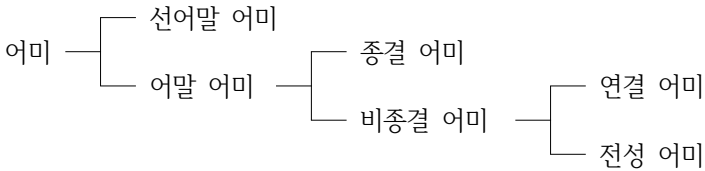
① 어간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을 어간이라 하고, 형태가 변하는 부분을 어미라고 한다. (47)에서 어간에 어미 ‘-다’를 결합한 형태를 기본형이라 한다. 즉 ‘춡다, 아프다’에서 ‘춡-, 아프-’는 어간에 해당되고, ‘-는다, -느냐, -고, -아’ 등은 어미에 해당된다.

- (47) ㄱ. 좃{는다, 느냐, 고, 아}
 ㄴ. 아프{는다, 느냐, 고, 아}

② 어미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부분이 어미이다. 어미는 크게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뉜다. 어말 어미는 종결 어미와 비종결 어미로 구분한다. 비종결 어미에는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가 속한다.



여기서는 제ڑ말 어미의 문법 기능을 알아보겠다.

• 선어말 어미

선어말 어미는 어간과 어말 어미 사이에 놓인다. 선어말 어미는 성격에 따라 분리적 선어말 어미와 교착적 선어말 어미로 나뉜다.

다른 어미와 결합에 제약이 없는 것을 분리적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 여기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제 선어말 어미 등이 있다.

다른 어미와 결합에 제약이 있는 것을 교착적 선어말 어미라고 한다. 여기에는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의지 선어말 어미, 서법 표시 선어말 어미 등이 있다.

먼저 분리적 선어말 어미의 쓰임을 알아보겠다.

표준어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가 제ڑ말에서는 잘 안 쓰였

는데, 표준어의 영향으로 지금은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다.

시제 선어말 어미에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았-/-엇-’,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ㄹ-’이 있다. 또한 과거 회상 시제로 쓰이는 ‘-아-/-어-’는 표준어 ‘-더-’와 문법 기능이 같다.

상(동작상)의 기능을 나타내는 ‘-았-/-었-/-았시-/-었시-’은 현재 진행의 의미로 쓰이고, ‘-았-/-엇-/-아시-/-어시-’은 과거 완료의 의미로 쓰이는데, 이 형태는 제ڑ말의 중요한 특징이다.

표준어에서 동작상은 주로 보조 용언에 의해 표현된다. 즉 ‘-고 있다’는 진행상이고, ‘-어 있다’는 완료상의 의미로 쓰인다. 반면 제ڑ말 동작상은 선어말 어미로 나타난다.

(48ㄱ)에서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표준어 ‘-았-’이 쓰이는데, 이는 제ڑ말과 형태가 다르다. (48ㄴ)에서 ‘-어-’는 과거 회상 시제 선어말 어미로 쓰였으며, 표준어 ‘-더-’에 대응된다.

(48ㄷ)에 쓰인 ‘-았시-’는 현재 진행의 의미가 있고, (48ㄹ)에 쓰인 ‘-아시-’는 과거 완료의 의미가 있다.

(48) ㄱ. 가인 집이 갔져.(그 아인 집에 갔다.)

ㄴ. 가이가 이디 이신 거 몬 먹어라.(그 아이가 여기 있는 거 다 먹더라.)

ㄷ. 이디서 놀았시라.(여기서 놀고 있어라.)

ㄹ. 느 먼저 가시라.(너 먼저 가 있어라.)

다음은 교착적 선어말 어미의 쓰임을 알아보겠다.

(49ㄱ, ㄴ)을 보면 제ڑ말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우-/-수-, -버-’ 등이 쓰였다. (49ㄷ)에는 화자의 의지를 나타내는 ‘-으크-’가 쓰였

다. (49ㄹ)에는 서법 표시 선어말 어미 ‘-다-’가 쓰였다.

(49) ㄱ. 이견 음식이 아니온다.(이견 음식이 아닙니다.)

ㄴ. 혼자 집이 올서.(빨리 집에 오세요.)

ㄷ. 나가 일 하영 흐크라.(내가 일 많이 하겠다.)

ㄹ. 삼촌이 경 꼴읍디다.(삼촌이 그렇게 말하던데요.)

• 종결 어미

종결 어미에는 평서형 어미, 의문형 어미, 명령형 어미, 청유형 어미, 감탄형 어미 등이 있다.

제ڑ말에서는 화자의 의지/청유/허락의 의미를 지닌 종결 어미로 ‘-저, -주’가 보편적으로 쓰인다.

평서형 어미 ‘-다’, 의문형 어미 ‘-가, -광, -까, -과, -팡’, 명령형 어미 ‘-아라/-어라, -서’, 청유형 어미 ‘-게’, 감탄형 어미 ‘-구나’ 등이 있다.

(50) ㄱ. 가인 아무거나 잘 떡쥬.(그 아인 아무거나 잘 먹는다.)

ㄴ. 우리 아인 훙교에 갓저.(우리 아인 학교에 갔다.)

ㄷ. 집이 가게.(집에 가자.)

ㄹ. 이디서 놀암수팠?(여기서 놀고 계십니까?)

• 연결 어미

두 개 이상의 문장(단문)을 연결할 때 쓰이는 것을 연결 어미라고 한다. 여기에는 대등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가 속한다.

대등적 연결 어미

두 문장을 대등하게 어어 주는 어미를 대등적 연결 어미라고 한다. 이 어미에는 ‘-곡, -명’ 등이 있다.

(51) ㄱ. 는 공부하며 놀래 불렀시냐?(너는 공부하면서 노래 부르고 있니?)

ㄴ. 그 돈으로 사탕도 사 먹고, 껌기도 사 먹고 하켜.(그 돈으로 사탕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고 하겠다.)

종속적 연결 어미

종속적 연결 어미는 선행절과 후행절이 종속적인 관계로 이어질 때 쓰인다. 종속적 연결 어미에는 이유, 원인, 조건을 나타내는 ‘-(으)난, -민(은/은), -매, -안/-언, -양/-영’ 이 있다. 목적을 나타내는 ‘-레’ 와 중단을 뜻하는 ‘당(다가)’이 있고, 당위를 뜻하는 ‘-어사/-아사’ 등이 있다.

(52) ㄱ. 그 사람 아는 거 보난 이디 사람인게.(그 사람 아는 것을 보니 여기 사람이구나.)

ㄴ. 이제 가면 언제 와질디사.(이제 가면 언제 오게 될는지.)

ㄷ. 나가 앞이 감시면 느랑 조롭에 오라.(내가 앞에 가고 있으니 너는 뒤에 와라.)

ㄹ. 가인 일하연 돈 벌었저.(그 아인 일해서 돈 벌었다.)

ㅁ. 이레 와 자당 감시.(여기 와서 주무시다가 가십시오.)

ㅂ. 바당이 메역 가지레 갖단 왔저.(바다에 미역 가지러 갔다가 왔다.)

ㅅ. 밥을 잘 먹어사 공부도 잘해진다.(밥을 잘 먹어야 공부도 잘 할 수 있다.)

보조적 연결 어미

보조적 연결 어미는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연결시켜 주는데, ‘-아 /-어, -게, -지, -고’ 등이 속한다. 보조적 연결 어미의 쓰임은 앞에 나온 보조 용언 항에 제시되어 있다.

표준어와 제주말 모두 보조적 연결 어미 ‘-지’는 부정 서술어에 선행하는 본용언과 같이 쓰인다.

• 전성 어미

전성 어미는 한 문장에서 품사의 전성에 관여하는 것을 가리킨다. 여기에는 명사형 어미와 관형사형 어미가 속한다.

(53)에는 명사형 어미 ‘-고/음, -기’가 쓰였다. 동사 ‘먹다’와 형용사 ‘좋다’는 서술어의 기능이 있으므로 조사와 결합할 수 없다. 그런데 용언 어간에 명사형 어미가 결합되어 체언의 구실을 할 수 있어야 격조사와 결합이 가능하다.

(53) ㄱ. 는 하영 먹^음도 했^지.(년 많이 먹기도 하네.)

ㄴ. 이 집이 좋^기는 흐다마는 흐끔 멀다.(이 집이 좋기는 하지만 조금 멀다.)

(54)에는 관형사형 어미 ‘-(으)ㄴ, -(으)ㄹ’ 등이 쓰였다. 형용사 ‘좋다’와 동사 ‘공부하다’는 서술어의 기능이 있으므로 체언을 수식할 수 없다. 그런데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면 문장 성분상 관형어처럼 쓰여서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줄 수가 있다.

(54) ㄱ. 우리 동네 좋^은 사람이 잇엇^지.(우리 동네에 힘 좋은 사람이 있었다.)

ㄴ. 가이가 경 공부홀 중 몰랐저.(그 아이가 그렇게 공부할 줄 몰랐다.)

5.4.5 불규칙 용언

용언이 활용할 때 어간의 일부, 어미의 일부, 어간과 어미 일부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불규칙 용언이라 한다.

용언이 활용할 때 (55ㄱ)과 같이 어간 ‘잡-’이 형태 변화 없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것을 규칙 용언이라 한다. 반면 (55ㄴ)과 같이 어간 ‘근-’이 일부 어미 앞에서는 ‘굴-’로 변하므로, 이를 불규칙 용언이라고 한다.

(55) ㄱ. 잡{고, 지, 으니, 으며, 아서}

ㄴ. 근{고, 근지}, 굴{으니, 으며, 아서}.

<참고>

표준어 불규칙 동사에는 ‘ㄷ 불규칙 동사, ㅅ 불규칙 동사, ㅂ 불규칙 동사, ㄹ 불규칙 동사, ㅍ 불규칙 동사, ㅊ 불규칙 동사, ㄷ 불규칙 동사, ㄴ 불규칙 동사, ㄹ 불규칙 동사, ㄷ 불규칙 동사, ㄴ 불규칙 동사, ㄹ 불규칙 동사’ 등이 있다.

표준어 불규칙 형용사에는 ‘ㅅ 불규칙 형용사, ㅂ 불규칙 형용사, ㄹ 불규칙 형용사, ㅍ 불규칙 형용사, ㅊ 불규칙 형용사, ㄷ 불규칙 형용사, ㄴ 불규칙 형용사, ㄹ 불규칙 형용사, ㄷ 불규칙 형용사, ㄴ 불규칙 형용사, ㄹ 불규칙 형용사’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제3말과 표준어 불규칙 용언은 대동소이하다. 먼저 제3말 불규칙 동사의 쓰임을 살펴보겠다.

‘ㄷ 불규칙 동사’는 ‘든다’가 ‘든고, 든지, 들으라’와 같이 모음 어미

앞에서 어간의 일부인 ‘ㄷ’이 ‘ㄹ’로 형태가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ㅂ 불규칙 동사’는 ‘굽다’가 ‘굽고, 굽지, 구웁, 구우라’와 같이 활용할 때 어간의 일부인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하는 것을 가리킨다.

표준어 ‘짓다’는 ㅅ 불규칙 동사인데, 제주말에서는 규칙 동사로 나타난다. 즉 ‘짓다’는 ‘짓고, 짓으니[지스니], 짓어서[지서서]’ 등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제주말 ‘잇대[連], 굶다, 낫다’ 등도 규칙 동사에 해당되는데, 이 동사들이 표준어에서는 불규칙 동사에 해당된다.

표준어는 ‘오르다’와 같이 ‘르 불규칙 동사’가 있는데 제주말에는 ‘르’ 불규칙 동사는 없다. 제주말 ‘올르다’는 ‘올랑, 올르곡’에서 보듯이 규칙적으로 활용한다.

다음은 불규칙 형용사의 쓰임을 알아보겠다.

‘ㅂ 불규칙 형용사’는 ‘조랍다, 곱다’와 같이 어간의 일부인 ‘ㅂ’이 모음 어미 앞에서 ‘오/우’로 변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조랍고, 조라우니, 조라와서’나 ‘곱고, 고투니, 고투서’ 등으로 형태 변화가 나타난다.

위에서 알 수 있듯이 불규칙 용언은 일반적으로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할 때에 형태 변화가 나타난다.

5.5 수식언

수식언은 품사를 기능에 따라 나눈 것인데 관형사와 부사가 있다. 이들은 자립 형태인 불변어이지만 조사나 어미가 붙지 못한다. 다만, 부사에는 보조사가 결합되기도 한다.

5.5.1 관형사

‘작산(양으로 많거나, 부피가 큰) 거, 하간(다양한) 물건’에서처럼 ‘작산, 하간’과 같이 체언인 ‘거, 물건’의 앞에만 쓰여서 그 체언의 상태나 속성을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단어를 관형사라 한다.

① 관형사의 형성

‘으라(여러), 작산’과 같이 본래부터 관형사인 것이 있고, ‘하간, 좋건, 다른’과 같이 어근에 접사가 붙었거나, 이미 굳어져서 관형사로 보아야 할 것도 있다.

‘이, 그, 저’나 ‘한, 두, 서’들은 조사와 같이 쓰였을 때는 대명사로, 체언을 수식할 때는 관형사로 보는 것도 있다.

한자어 ‘매(每)’가 ‘매 사름, 매 거’처럼 쓰일 때는 관형사로, ‘-적’이 명사 어근에 붙어서 ‘형식적, 실질적, 개인적’이 될 때도 파생 관형사가 된다.

② 관형사의 특징

첫째는 관형사는 체언과 같이 자립 형태이지만 조사가 붙지 않는다. 그래서 체언과 구별된다.

‘우리 아기’에서 ‘우리’가 ‘아기’를 수식하고는 있지만 ‘우리’에는 관형격 조사 ‘이’를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형사가 아닌 대명사에서 관형어로 기능만 것이다.

둘째는 용언처럼 어미 활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용언과 구별된다. ‘부지런^ㅎ 사름’에서 ‘부지런^ㅎ’은 ‘부지런^ㅎ-’에 관형사형 어미 ‘-ㄴ’이 붙어서 ‘사름’을 수식하고 있다. ‘부지런^ㅎ다’는 서술어로도 쓸

수 있다. 그러므로 ‘부지런^ㅎ’은 관형사가 아닌, 형용사 ‘부지런^ㅎ다’에서 전성한 관형어이다.

셋째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체언 중 명사를 수식한다. ‘이 모든 것, 온 모든 일’에서 ‘이, 모든’이 ‘것’을, ‘온, 모든’이 ‘일’을 수식하는 것으로 본다.

③ 관형사의 유형

관형사는 뜻에 따라 성상 관형사, 지시 관형사, 수 관형사로 나뉜다.

성상 관형사는 ‘새 옷, ^ㄴ단(오른) 손, 하간 물건’과 같이 수식을 받는 체언의 성질이나 상태가 어떠함을 나타내는 ‘새, ^ㄴ단, 하간’ 따위를 가리킨다. 이런 관형사에는 ‘굴^ㄴ근/근, 웬^ㄴ갓/온^ㄴ갓, 좋^ㄴ건, 헛’ 따위들이 있다. ‘순’이 관형사로 쓰일 때는 ‘순 엄살쟁이, 순 어거지, 순 거짓말’처럼 쓰일 때이고, ‘순두부, 순술’일 때는 접두사로 볼 수 있다.

‘^ㅎ 닻^ㅅ썰, ^ㅎ 북^ㅅ름, ^ㅎ 뒤^ㅅ 해’에 쓰인 ‘^ㅎ’은 날짜나 해에 관련된 말을 수식하고 있다. 또 ‘매 말^ㅅ째(맨 나중에)’와 ‘매 것^에’의 ‘매’는 형태는 같으나 ‘매 것^에’는 한자어 ‘매(每)’로 보이나, ‘매 말^ㅅ째’의 매는 고유어로 보인다. 이때는 ‘맨’과 같은 뜻으로 볼 수 있다. ‘약 닻^ㅅ썰, 약 일 년’의 ‘약’도 한자어 관형사이다.

‘^ㄴ단 손, ^ㄴ단 착, ^ㄴ단 펜’이나 ‘웬 손, 웬 펜’에 쓰인 ‘^ㄴ단, 웬’도 고유어 관형사이다. 이는 방향에 관한 말을 수식한다.

지시 관형사는 화자와 수식을 받는 체언의 관계를 주관적으로 나타낸다. 주로 시간과 공간을 가리키는 말에 쓰인다. 특히 이때는 띄어쓰기에 조심해야 한다.

‘이 날^짜, 이 학교’일 때는 띄어 쓰는데, ‘그때, 요^때’나 ‘이^디, 그^디, 저^디’들은 붙여 쓴다. 그러나 ‘이, 그, 저’가 관형사임에는 변동이 없

다. 그리고 ‘이까짓 거, 저까짓 거, 요까짓 거’들은 파생 관형사로 쓰인 것이다.

수 관형사는 수식을 받는 체언의 수량이나, 순서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웨 아들, 웨 거, 웨 바농’이나 ‘으라 사름, 작산 사름, 하간 사름’이나, ‘다섯 사름, 백 사름’에 쓰인 ‘으라, 작산, 하간’들이나 ‘다섯, 백’은 수량을 나타내는 수 관형사이다.

‘쳇 아들, 둘쳇/두쳇 각시, 셋 아시, 말젓 아들’에 쓰인 ‘쳇, 둘쳇/두쳇, 셋, 말젓’ 들은 순서를 나타내는 제줏말 관형사이다.

<참고>

관형사의 띄어쓰기

띄어 쓰는 것 :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새 집, 첫 만남, 옛 노래
각 가정, 귀 회사, 매 경기
맨 끝, 맨 뒤, 맨 먼저

붙여 쓰는 것 : 새날, 새댁, 새봄
첫인상, 첫사랑, 첫걸음
옛길, 옛사람, 옛집

5.5.2 부사

‘크컬(깨끗하게) 먹으라, 잘도(무척) 곱다’에서 ‘크컬, 잘도’와 같이 용언인 ‘먹-, 곱-’의 의미를 한정하여 움직임이나 상태를 분명히 해 주는 단어가 부사이다.

부사는 일반적으로 용언의 앞에 쓰여 뒤의 용언을 수식하는 것이 주된 기능이다. 그러나 문장 안의 다른 부사, 명사, 관형사, 그리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한다.

① 부사의 형성

‘거쓴/거썸(얼른), 고들베(쉬지 않고), 모큰(흠썸), 어가라/어거라(얼른), 지(애써), 꺄컬, 흠마(아차 했으면)’와 같이 단일 부사도 있고, ‘뉘우(몹시), 헛짓네(자주), 헤(거의)’나 ‘이영(이렇게), 저영, 이레(이리), 그레’와 같이 파생 부사도 있다. 그리고 ‘속히, 급히’와 같이 한자어에서 파생 한 것도 있다. ‘올락늑력(오르락내리락), 얼트락달트락(덜크락덜크락)’과 같이 합성과 파생이 겹쳐 된 부사도 있다. 특히 제주말 부사는 표준어의 그것과는 다른 형태로 쓰이는 것이 많다.

② 부사의 특징

첫째, 부사는 체언과 같은 불변어인 자립 형태이다. 그러나 격조사는 붙지 않는다. 이 점이 체언과 다르다. 그렇지만, 보조사는 같이 쓰이는 일이 있다. 이 점은 또 관형사와 다르다.

둘째, 수식하는 범위가 넓다. 명사, 용언, 관형사, 다른 부사 따위를 수식한다. ‘모큰 속앗저(무척 수고했다)’는 동사를, ‘잘도 곱다(무척 곱다)’는 형용사를, ‘잘도 새 거여(매우 새 것이다)’는 관형사를, ‘흐썸 더 도라(조금 더 달라)’는 다른 부사를, ‘바로 앞더레’는 명사를, ‘춤말 가인 제주 시리 그런 일을 잘 흐여라’에서는 문장을 수식하고 있다.

③ 부사의 유형

문장이나 담화에서 기능에 따라 성분 부사와 문장 부사로 나눌 수

도 있다. 문장에서 한 성분을 수식하는 것이 성분 부사이고,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것이 문장 부사이다.

성분 부사는 성상 부사, 지시 부사, 부정 부사로 나뉜다.

성상 부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성분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꾸미는 것인데, 그 수식 내용에 따라 상태·정도·시간·처소 부사로 나뉜다. ‘모근 속았저, 복짝 지치다(나른하게 지치다)’ ‘일을 죽금살금 흐엿저’에서 ‘모근, 복짝, 죽금살금’들은 정도 부사이다.

‘해삭해삭 웃어라, 무랑무랑 먹어라’에서 ‘해삭해삭, 무랑무랑’은 상태 부사이다.

‘어가라 왔저’와 ‘ㄱ째 와서라’에서의 ‘어가라’와 ‘ㄱ째’는 시간 부사이고, ‘멀리 가불엇저’나 ‘이레 오라’에서의 ‘멀리, 이레’는 처소 부사이다.

위에서처럼 부사를 통해서 동사의 움직임은 ‘어떻게 한다’거나, 형용사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부사로는 ‘거쓴/거썩, 고들베, 족영, 족족, 죽을락살락, 혼짓네, 하영, 헤’들과 ‘그레, 미룻(미리), 저레’들이 있다.

성상 부사에는 ‘흥글흥글, 몽끌몽끌’이나 ‘왕그랑뎡그랑’과 같은 사물의 움직임이나 소리를 흉내 낸 부사도 있다. 전자를 의태 부사, 후자를 의성 부사라고 한다. 이들을 상징 부사라고도 한다.

지시 부사는 수식하는 부사를 통해서 동사의 움직임을 ‘어느 쪽으로 한다’거나, 형용사의 ‘상태가 어느 만큼이다’는 뜻을 나타내는 부사이다. 주로 표준어에서는 ‘이리, 저리, 그리’로 나타내나 제춧말에서는 그와 같은 뜻으로 쓰이지만 형태는 다르게 쓰이는 게 많다. ‘이영, 저영, 이레, 그레’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 고장은 이영(도) 곱다.’는 ‘이렇게까지도 (무척) 곱다’는 말인데,

‘이영(도)’가 고운 상태를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나타내고 있다. 또, ‘이영 돌안 값저.’는 ‘이렇게 돌아서 가고 있다.’인데, ‘이영’은 ‘도는 방향’을 지시하고 있다. 그런데 지시 부사는 쓰이는 자리에 따라 처소 부사나 시간 부사와 겹칠 때도 있다.

부정 부사는 부사가 부정의 뜻을 가진 ‘못, 아니/안’과 같은 것이다. ‘는 못 간다.’에서 ‘못’은 동사만 수식하나, ‘안/아니’는 ‘아니/안 값저’나 ‘아니/안 열다’와 같이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한다. ‘안’을 ‘의도 부정’, ‘못’을 ‘능력 부정’으로 본다.

문장 부사는 문장 전체를 수식해 주는 부사이다. 문장 부사는 ‘무사, 제발, 참말, 차마, 차마가라, 초싱, 단단, 똑, 흥쓸도’나 ‘다행히, 설마, 과연’과 같이 화자의 심리적 태도를 나타내는 양태 부사와 ‘경히, 경해도/게도, 경헌디/젠디’와 같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 부사로 나뉜다.

양태 부사는 화자의 마음이나 태도를 나타내면서 문장 전체를 꾸며 주는 부사인데 일반적으로 문장 첫머리에 쓰인다. 다만, 제숫말의 부사들은 표준어 부사와는 다른 것들이 많다.

- 차마 그게 아까와도 보내 불티야?(차마 그게 아까워도 보내 버리겠느냐?)
- 차마가라 누가 경 흥여시냐?(차마 너가 그랬느냐?)
- 흙마 그거 잃어볼 뻔했저.(아차 했으면 - 하마 잃어버릴 뻔했다.)
- 흙치 그거 는 안 된다.(전혀 그거 닌 안 된다.)
- 흙치 늘랑 그레 갈 생각하지 말라.(아예 너는 그리 갈 생각하지 마라.)
- 참말 누가 경 흘 거냐?(정말 너가 그렇게 하겠느냐?)
- 으따가라 흥쓸 경 흥난 어땡.(어쨌든 조금 그러면 어때.)
- 초싱 가이가 경 흥카?(과연 그 아이가 그럴까?)

위의 예와 같이 양태 부사는 문장의 첫머리에 오는 경우가 많고,

그 의미에 상응하는 어미와 호응을 이루는 것이 보통이다. 즉, 단정은 평서형과, 의혹은 의문문과, 희망은 명령문이나 조건의 연결 어미와 호응한다.

접속 부사는 ‘경하고/게고, 경하난/게난, 경하더라도, 경하주마는/게주마는, 또, 또로, 이영하고/예고, 저영하고/제고’ 등과 같이 문장을 이어주는 구실을 한다. ‘경하고, 경하난’은 표준어 ‘그리고, 그러니까’에 대응된다. 그래서 접속 부사로 보는 것이다.

표준어에서는 접속 부사를 단어와 단어,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면서 뒷말을 꾸며 주는 부사라고 하는데, 제춧말에서는 단어와 단어를 이어 줄 때는 ‘너영 철수, 너광 철수’로나 ‘너 하곡 철수 하곡’ 따위로 쓰여서 ‘및, 또는, 곧’ 따위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침 점 징심으로 먹었져.’일 때 ‘점’이 부사로 보이는데 ‘명사’로 되어 있다.

<참고>

특이한 부사

제춧말에서는 ‘잘도 값져.(잘도 나아간다.)’나 ‘잘도 곱다.(매우 곱다.)’가 쓰인다. 그래서 ‘잘도’는 동사도 수식하고 형용사도 수식한다.

그런데 표준어에서는 ‘잘’은 동사만 수식한다. 그래서 ‘잘도’는 ‘잘’과 ‘도’로 나뉜다. 제춧말에서도 동사를 수식할 때는 표준어 쓰임과 같을 수도 있지만, 형용사를 수식할 때는 ‘잘도’는 분리되지 않는다. *‘잘 곱다, *잘 춥다’로는 쓰이지 않고 ‘잘도 곱다, 잘도 춥다’로만 쓰인다.

그리고 동사를 수식하는 ‘잘도’와 형용사를 수식하는 ‘잘도’는 뜻도 다르다. 동사를 수식하는 ‘잘도’는 ‘잘’에 보조사 ‘도’의 뜻을 더하면 되지만, 형용사를 수식하는 ‘잘도’는 ‘무척, 매우, 대단히’ 정도의 뜻이다. 그래서 제춧말에서는 형용사에 쓰이는 ‘잘도’는 비분리적이고, ‘잘’과는 다른 뜻의 부사이다.

5.6 독립언

문장이나 담화에서 다른 성분에 얽매지 않고 독립적으로 쓰이는 품사를 독립언이라 한다. 독립언에는 감탄사가 있다.

‘아이고, 아’나 ‘게메, 게메서란, 나야더리, 으마, 으나’와 같이 화자의 본능적 놀람이나, 느낌, 부름과 대답, 입버릇으로 내는 단어들을 감탄사라 한다.

감탄사에는 ‘아, 아가, 아가기여, 으나’나 ‘왕, 으씩, 머식게, 으/으’와 같이 단일어로 된 것이 있다. 또한 ‘으마늬들라, 아이고어멍아, 제나잘관이여’와 같이 관용적으로 쓰이는 것이 있고, ‘아니, 양, 마씀’과 같이 다른 말에서 전성되어 쓰이는 것도 있다.

감탄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탄사는 문장이나 담화에서 비교적 독립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위치가 자유롭고, 다른 성분과 호응하는 일이 거의 없다.¹⁾

둘째, 조사와 결합하는 일도 없으며,²⁾ 형태가 변하지도 않는다.

감탄사는 ‘아, 어츨, 아이고’와 같이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고 감정을 표출하는 감정 감탄사와 ‘양, 으나, 보라, 옹거니, 제나, 게메’나 ‘왕, 으씩, 머식게’와 같이 상대방을 의식하며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의지 감탄사로 나뉜다.

감탄사는 쓰이는 자리에 따라 품사가 통용된다.

• 형용사 → 감탄사

자네 말이 옹거니. → 옹거니, 그거 잘 뒤텔저.

1) 감탄사의 특징에서 독립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부르는 말 ‘어이’는 높임말과 같이 쓸 수 없으며, ‘양, 마씀’은 ‘해라체’에 쓸 수가 없다.

2) ‘철수야, 영수야’는 호격 조사 ‘야’가 붙은 것으로 감탄사가 아니다.

- 동사 → 감탄사
 자네가 돈을 내볼라. → 내볼라, 아명 흐민 어떻 흐느니?
 자네가 그걸 잘 보라. → 보라, 흐는 짓 흐고는?
- 대명사 → 감탄사
 이놈이 나쁜 놈이다. → 이놈, 저리 가거라.
- 명사 → 감탄사
 그게 춤말이나? → 춤말, 미치겠네!
- 종결보조사 → 감탄사
 잘 갑서양. → 양, 할마님 어드레 감수가?
- 조사 → 감탄사
 철수야, 어디 감이니? → 야, 너 어디 감이니?

제4장 문장

1. 문장 이해의 기초

1.1 문장과 문법 단위

문장은 사람의 경험 내용, 생각 등을 표현하는 언어 단위이다. 내용 면에서 완결성을 갖추어야 하고, 형식 면에서는 문장이 종결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다. 다음을 문장의 예로 들 수 있다.

(1) 어머니가 빨래를 헹으셨다.(어머니께서 빨래를 하시고 있어요.)

문장은 어절, 구(句), 절(節) 등의 하위 문법 단위로 구성된다.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마디(토막)로 대체로 띄어쓰기와 일치하는 단위이다. (1)은 3개의 어절로 구성된 문장이다.

구(句)는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한 품사의 단어처럼 쓰이는 문법 단위를 말한다. 아래의 예에서 밑줄 친 부분이 구(句)에 해당한다.

(2) 가. 우리 아시는 학교 갔수다.(우리 동생은 학교에 갔어요.)

나. 무사 경 와림수과?(왜 그렇게 서두르세요?)

다. 승기가 막 싱싱흔게.(나물이 아주 싱싱하네.)

러. 저 두 사람은 성제냐?(저 두 사람은 형제니?)

마. 영미는 잘도 빨리 들읍네다.(영미는 아주 빨리 달립니다.)

위에서 밑줄 그은 부분은 문장 안에서 각각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관형사구, 부사구의 기능을 한다.

절(節)은 문장 구성의 필수 요소인 주어와 서술어 등을 갖추고 있지만 그 자체가 더 큰 문장 속의 한 성분이 되는 단위를 말한다.

(3) 난 느영 말을 곧기가 실프다.(난 너하고 말을 하기 싫어.)

위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주어 ‘나’와 서술어 ‘곧다’, 그리고 목적어 ‘말’ 등 문장 구성 요건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는 독립적으로 쓰이지 않고 전체 문장 속에서 주어 역할을 하므로 절(節)이 된다.

1.2 문장 성분

문장을 구성하면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맡는 요소들을 문장 성분이라고 한다. 문장 성분은 역할에 따라 주성분, 부속 성분, 독립 성분으로 나눌 수 있다.

1.2.1 주성분

주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데 뼈대가 되는 성분으로 그것이 빠지면 불완전한 문장이 된다. 주성분에는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가 있다.

주어는 동작, 성질, 상태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을 말한다.

(4) 민지가 웃엄수다.(민지가 웃어요.)

(4)에서 ‘웃다’라는 동작의 주체는 ‘민지’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민지’이다.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 성질, 상태 등을 풀이하는 기능을 한다.

- (5) ㄱ. 비가 왓신게.(비가 오네.)
 ㄴ. 성이 조반을 먹엇수다.(형이 아침을 먹었어요.)
 ㄷ. 옷이 곱수다.(옷이 예뻐요.)
 ㄹ. 이것은 몐국이우다.(이것은 몐국이에요.)

(5ㄱ~ㄹ)에서 밑줄 친 ‘왓신게(오다)’, ‘먹엇수다(먹다)’, ‘곱수다(곱다)’, ‘몐국이우다(몐국이다)’는 각각 주어 ‘비’, ‘성’, ‘옷’, ‘이것’의 서술어이다.

한편, 온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반드시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가 다르다. 이러한 문장 성분의 수를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한다.

- (6) 눈이 왓수다.(눈이 와요.)

(6)에 쓰인 서술어 ‘오다’는 주어 하나만을 필요로 하므로 한 자리 서술어이다.

다음 예문 (7)의 ‘좋아하다’는 주어 외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므로 두 자리 서술어이다.

- (7) 난 멜컷을 좋아홉네다.(난 멜치컷을 좋아합니다.)

다음 예문 (8)에 쓰인 서술어 ‘안네다’는 주어와 목적어 외에 ‘할머니신디’라는 부사어를 필요로 하므로 세 자리 서술어이다.

- (8) 성이 할머니신디 용돈을 안넛수다.(형이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어요.)

목적어는 서술어로 쓰인 동작의 대상이 되는 성분을 말한다.

(9) ㄱ. 할머니가 나물을 삶았다.(할머니께서 나물을 삶았어요.)

ㄴ. 이모가 손을 씻었다.(이모께서 손을 씻고 있어요.)

(9ㄱ, ㄴ)에서 ‘삶다’, ‘씻다’라는 동작의 대상이 되는 ‘나물’과 ‘손’이 목적어이다.

보여는 주어, 목적어 외에 서술어가 요구하는 필수적인 문장 성분을 말한다.

(10) ㄱ. 미숙이는 줍녀가 뒀었다.(미숙이는 해녀가 되었어요.)

ㄴ. 그건 보말이 아니었다.(그건 고등이 아니에요.)

(10ㄱ, ㄴ)에서 서술어 ‘뒀다’와 ‘아니다’ 앞에 오는 ‘줍녀가’, ‘보말이’ 등의 성분이 없으면 의미상으로 온전한 문장이 되지 않는다. 이들 서술어는 체언에 조사 ‘이/가’가 붙은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이러한 문장 성분을 보여라고 한다.

1.2.2 부속 성분

부속 성분은 문장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문장 내의 다른 성분을 수식하는 역할을 한다. 관형어와 부사어가 부속 성분에 해당한다.

관형어는 기본적으로 체언을 꾸며 주는 역할을 한다. 관형어는 단독으로 쓰이지 못하고 그것을 꾸미는 체언 앞에서만 쓰인다.

(11) ㄱ. 한 사람만 왔다.(한 사람만 왔어요.)

ㄴ. 영미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았다.(영미는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있어요.)

ㄷ. 우는 아이신디 떡 하나 더 준다.(우는 아이한테 떡 하나 더 주지.)

ㄹ. 조락진 감을 잘도 먹었저.(뽕은 감을 아주 잘 먹네.)

(11ㄱ~ㄹ)에 제시한 것처럼 관형사, 체언, 용언의 관형사형 등이 관형어 역할을 한다.

한편, 표준어에서는 체언에 조사 ‘의’가 붙어서 다음과 같이 관형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2) ㄱ. 가을은 독서의 계절입니다.

ㄴ. 내 꿈은 중국을 여행하는 거예요.

제삿말에서도 (12ㄱ)과 같이 ‘명사+의’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는 문어적 환경에서이기는 하지만 확인이 가능하다. 그러나 (12ㄴ)과 같이 인칭 대명사에 격조사 ‘의’가 붙은 형태는 관형어로 쓰이지 않는다.

(13) ㄱ. *내 방에 강 보라.

ㄴ. 나 방에 강 보라.(내 방에 가서 보라.)

제삿말에서는 (13ㄱ)에서처럼 인칭 대명사에 격조사 ‘의’가 붙은 ‘나+의>내’ 형태는 관형어로 쓰이지 않는다. 인칭 대명사가 격조사의 도움 없이 홀로 관형어의 기능을 한다.

부사어는 주로 서술어로 쓰인 동사, 형용사를 수식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이다.

(14) ㄱ. 흔저 읍서.(어서 오십시오.)

ㄴ. 선물을 하영 받았수다.(선물을 많이 받았어요.)

- ㄷ. 정지에 갖추다.(부엌에 갔어요.)
- ㄹ. 손이 잘도 곱수다.(손이 아주 곱네요.)

위에 제시된 예를 보면 부사, 체언에 부사격 조사가 붙은 형태 등이 문장 안에서 부사어의 역할을 하고 있다.

1.2.3 독립 성분

독립 성분은 문장 내의 다른 성분과는 직접적 관련 없이 독립되어 있는 성분을 말한다. 독립 성분이 될 수 있는 말을 독립어라고 한다. 감탄사와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가 결합한 형태가 독립어의 기능을 한다.

- (15) ㄱ. 아이고, 다리 아파 죽어지켜!(아이고, 다리 아파서 죽겠어!)
- ㄴ. 게메, 난 잘 모르크라.(글쎄, 난 잘 모르겠어.)
- ㄷ. 민철아, 이거 마당더레 놓으라.(민철아, 이거 마당에 놓아라.)

(15)에서 밑줄을 그어서 보인 감탄사 ‘아이고’, ‘게메’와 체언에 호격 조사 ‘아/야’가 결합한 형태인 ‘민철아’ 등이 독립어이다. 이들은 뒤에 오는 문장의 한 성분으로 기능할 수 없으므로 독립어로 분류된다.

2. 문장의 확대

2.1 홀문장과 접문장

문장은 일정한 원리에 의해 확대될 수 있다. 가장 간단한 형식의 문장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는데 이를 홀문장이라 한다. 여기

에서 확대되어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라고 한다. **흘문장**이 모여 겹문장을 이루게 되는 것을 **문장의 확대**라고 한다.

(1) ㄱ. 비가 왔지.(비가 와.)
주어 서술어

ㄴ. 비가 오며 바람도 불었지.(비가 오면서 바람도 불고 있어.)
주어 서술어 주어 서술어

(1ㄱ)은 주어와 서술어가 한 번 나타나므로 **흘문장**이고, (1ㄴ)은 주어와 서술어가 두 번 나타나므로 **겹문장**이다.

흘문장이 겹문장으로 확대되는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된다. 흘문장과 흘문장이 이어지거나 흘문장이 다른 문장 속의 한 문장 성분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

2.2 안긴문장과 안은문장

문장을 확대할 때는 하나의 문장이 더 큰 문장 속의 한 성분이 되어 명사절, 서술절, 관형절, 부사절, 인용절 등으로 안길 수 있다. 이처럼 하나의 문장이 절(節)이 되어 다른 문장의 한 성분으로 쓰이는 문장을 **안긴문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절(節)을 안고 있는 문장을 **안은문장**이라고 한다.

2.2.1 명사절을 안은 문장

명사절은 명사형 어미 ‘-(으)ㄴ,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먼저 ‘-(으)ㄴ’이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을 안은 문장을 제시한다.

(2) ㄱ. 넌 재기 집이 같이 낮을 거야.(넌 빨리 집에 가는 게 좋을 거야.)

- ㄴ. 가인 멧심홀으로 바당이 안 값주.(개는 멧심하느라고 바다에 안 가는 거지.)
- ㄷ. 그 케긴 지정 먹음도 홉네다.(그 고기는 지져서 먹기도 합니다.)
- ㄹ. 는 어드레 값이니?(너는 어디로 가는 거니?)
- ㅁ. 난 웨가집이 값이우다.(난 외갓집에 가는 거예요.)

다음, ‘-기’가 붙어서 만들어진 명사절을 안은 문장을 제시한다.

- (3) ㄱ. 이 약은 먹기가 수월혀여.(이 약은 먹기가 수월해.)
- ㄴ. 메날 일하기를 좋아할 사름이 시크냐?(메날 일하기를 좋아할 사 람이 있겠어?)
- ㄷ. 삼촌네 받은 수박 갈기에 좋읍주.(삼촌네 받은 수박을 갈기에 좋 지요.)

2.2.2 관형절을 안은 문장

관형절은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으)ㄹ’, ‘-단/던’이 붙어 서 만들어진다. 관형절을 안은 문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4) ㄱ. 저디서 웨는 사름은 누게우파?(저기서 소리치는 사람은 누구 예요?)
- ㄴ. 곱닥홀 옷 입언 어디 감수파?(고운 옷 입고 어디 가세요?)
- ㄷ. 밥상 우터 이신 숟가락은 누게 거니?(밥상 위에 있는 숟가락 은 누구 거니?)
- ㄹ. 긋새 먹은 국은 맛이 좁지롱헤냐?(아까 먹은 국은 맛이 좁 째니?)
- ㅁ. 으름에 쓸 모즈 혀나 사사쿠다.(여름에 쓸 모자를 하나 사야 겠어요.)

ㄷ. 성 입단/입던 옷이라도 입을티아?(형이 입던 옷이라도 입을래?)

관형사형 어미 ‘-는’, ‘-(으)ㄴ’, ‘-(으)ㄹ’, ‘-단/던’에 의해 안긴 문장이 표현하는 시간은 서로 다르다.

한편, 표준어에서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은 경우 ‘있다’와 ‘없다’는 다음과 같이 ‘-는’에 의해 관형절로 안긴다.

- (5) ㄱ. 재미있는 책
- ㄴ. 맛없는 음식

그러나 제ڑ말에서는 표준어 ‘있다’, ‘없다’에 대응되는 ‘이시다’, ‘엇다’는 ‘-(으)ㄴ’에 의해 관형절로 안긴다. 다음에 그 예를 제시한다.

- (6) ㄱ. 저디 이신 낭(저기에 있는 나무)
- ㄴ. 집 엇은 신세/집 엇인 신세(집이 없는 신세)

(6ㄴ)에서 ‘엇은’과 ‘엇인’은 ‘엇다’를 서술어로 하는 관형절이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지역에 따라 어미 ‘-(으)ㄴ’이나 ‘-(이)ㄴ’을 달리 사용함으로써 형태가 갈린 것이다.

2.2.3 부사절을 안은 문장

부사절은 문장을 부사형으로 바꾸어 주는 ‘-이’, ‘-게’, ‘-도록’ 등의 어미가 붙어서 만들어진다. 다음 예들이 부사절을 안은 문장이다.

- (7) ㄱ. 영수는 돈 흔 폰 엇이 장게갓수다.(영수는 돈 한 폰 없이 장가를 갔어요.)

- ㄴ. 성호는 땀이 나게 들었지.(성호는 땀이 나게 뛰고 있어.)
- ㄷ. 난 날이 밝도록 한숨도 못 잤수다.(난 날이 밝도록 한숨도 못 잤어요.)

2.2.4 서술절을 안은 문장

문장 속에 서술어 기능을 하는 절이 안긴 문장을 서술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서술절은 다른 절(節)과는 달리 특정 표지가 없이 다른 문장 속에 안긴다. 다음 예들이 이에 해당한다.

- (8) ㄱ. 이 밭은 농수가 잘 돼어.(이 밭은 농수가 잘 돼.)
- ㄴ. 우리 누인 얼굴이 곱수다.(우리 누이는 얼굴이 곱와요.)
- ㄷ. 제주도는 오름이 하.(제주도는 오름이 많아.)

2.2.5 인용절을 안은 문장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절이 안긴 문장³⁾을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라고 한다.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여 전달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화자가 간접화하여 옮기는 방식이 그것이다. 전자를 직접 인용, 후자를 간접 인용이라고 한다.

직접 인용이든 간접 인용이든 원래 발화를 한 사람은 주어로 표현된다. 그리고 원래 발화를 들은 사람(원래 발화에서의 대화 참여자)은 ‘신디’, ‘안티’, ‘ㄱ라’ 등이 결합되어 표현된다.

3) 다른 사람의 말 외에도 화자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이나 이전에 했던 말도 인용절로 안길 수 있다.

① 직접 인용

제웃말에서 직접 인용은 인용절로 안기는 문장의 종류에 관계없이 특정 조사나 어미에 기대지 않고 이루어진다.

그리고 인용절을 안은 문장의 서술어는 안긴문장이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인 경우 대체로 ‘ㅎ다’가 쓰인다. 안긴문장이 의문문인 경우는 ‘ㅎ다’, ‘듣다[問]’, ‘묻다’가 쓰인다. 먼저 평서문, 감탄문, 명령문, 청유문이었던 원래 발화가 직접 인용절로 안긴 예를 든다.

- (9) ㄱ. 영이가 순이신디 “난 쉬었져.” ㅎ디다.(영이가 순이한테 “난 쉬고 있어.”라고 하던데요.)
ㄴ. 아버지가 “아이고, 브름 하영 붙었고나!” ㅎ여고.(아버지께서 “아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구나!”라고 하던데.)
ㄷ. 아시가 나그라 “이레 읍서.” ㅎ연게.(동생이 나한테 “이리로 오십시오.”라고 하더라.)
ㄹ. 성이 누이안티 “같이 놀게.” ㅎ여고.(형이 누이한테 “같이 놀자.”라고 하던데.)

다음은 의문문이었던 원래 발화가 직접 인용절로 안긴 문장의 예이다.

- (10) ㄱ. 철수가 삼춘신디 “어디 감수과?” ㅎ디다.(철수가 삼춘께 “어디 가세요?”라고 하던데요.)
ㄴ. 철수가 삼춘신디 “어디 감수과?” 들읍디다.
ㄷ. 철수가 삼춘신디 “어디 감수과?” 물읍디다.

(10ㄱ~ㄷ)에서 인용절을 안은 문장의 서술어로 ‘ㅎ다, 듣다[問], 묻다’가 쓰였음이 확인된다.

② 간접 인용

제주말에서 간접 인용절은 인용 어미⁴⁾ ‘-엔’에 의하여 만들어진다⁵⁾. 발화자, 시간과 관련된 발화 상황에 따라서 ‘-엔’이 사용되기도 하나 여기서는 ‘-엔’을 기본형으로 하여 서술하기로 한다. 참고로, 표준어에서는 원래 발화가 간접 인용절이 되어 다른 문장에 안길 때 상대 높임법이 중화되지만 제주말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그대로 실현된다.

간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에서는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어미에 인용 어미가 연결될 때 일정한 모습으로 축약된다. 그 몇 유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이 ‘ㅏ’, ‘ㅑ’인 경우 그 끝모음이 탈락하고 그 앞의 자음과 인용 어미 ‘-엔’이 축약되어 간접 인용절이 만들어진다. (11ㄱ, ㄴ)이 그 예이다.

(11) ㄱ. 먹었수다(평서문) → 먹었수ㄷ + 엔 → 먹었수덴

ㄴ. 가게(청유문) → 가ㄱ + 엔 → 가겐

둘째,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이 ‘ㅓ’인 경우 그 끝모음이 탈락하고 그 앞의 자음과 인용 어미 ‘-엔’이 축약되어 간접 인용절이 만들어진다. 다음이 그 예들이다.

4) 표준어에서 간접 인용은 조사에 기대어 이루어지므로 학교 문법에서 ‘인용 어미’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아쉬운 대로 무리가 없다고 생각되는 용어를 만들어 쓴 것이다. 그것은 원래 발화를 간접 인용절로 만드는 ‘-엔’이 원래 발화의 서술어의 어미와 결합할 때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는 특성에 근거한 것이다.

5) 제주말 간접 인용의 간략한 소개를 위해 고영진(1984)의 논의에서 일부를 발췌, 정리하여 옮겨 놓았다. 단, 제시되는 예문은 그대로 옮기지 않았으며, 『제주어 표기법』(2013), 『제주어 표기법 해설』(2014)에 따라 표기를 달리한 것도 있다. 따라서 규칙 설명도 약간 달라진 것이 있다.

- (12) ㄱ. 먹읍서(명령문) → 먹읍ㅅ + 엔 → 먹읍센
 ㄴ. 사키어(평서문) → 사키 + 엔 → 사키엔/사켄⁶⁾

셋째,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이 ‘ㅅ’인 경우 두 가지 양상으로 축약된다. ‘ㅅ(wa)’에서 ‘ㅅ’만 탈락하여 반모음 ‘w’와 인용 어미가 연결되거나 ‘ㅅ’가 탈락하여 인용 어미가 연결되는 방식이 그것이다. 다음 예 (13ㄱ)은 전자의 방법으로, (13ㄴ)은 후자의 방법으로 축약된 예들이다.

- (13) ㄱ. 감수ㅅ(의문문) → 감수ㅅw + 엔 → 감수웬
 ㄴ. 감수ㅅ(의문문) → 감수ㅅ + 엔 → 감수켄

간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의 서술어는 원래 발화가 평서문, 명령문, 청유문의 경우 ‘곤다’, ‘말ㅎ다’, ‘ㅎ다’ 등이 쓰인다. 그리고 원래 발화가 의문문인 경우 ‘듣대[問]’, ‘묻다’, ‘ㅎ다’ 등이 쓰인다.

여기에서는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 원래 발화와 그렇지 않은 원래 발화를 구분하여 이들이 간접 인용절로 안기는 모습을 보이기로 한다. 다만, 감탄문의 경우 혼잣말의 특성을 보여 상대 높임법의 실현과는 무관하다고 판단되므로 별도로 서술한다.

먼저 원래 발화에서 상대 높임법이 실현된 문장이 인용절로 안긴 모습을 제시한다. 각 예문 번호 다음 ‘ㄱ’에 제시된 것은 원래 발화이고, ‘ㄴ’이나 ‘ㄷ’에 제시된 것은 간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⁷⁾

6) ‘사켄’은 모음 충돌 회피를 위해 인용 어미 앞 음절 모음을 탈락시킨 형태이다.
 7) 이름,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 등으로 대화 참여자를 ‘A → B’와 같이 표시하였다.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호칭어는 상대 대화 참여자와의 관계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예를 들면, ‘철수 → 이모’는 철수가 자신의 이모한테 발화를 하였음을 의미한다.

(14) ㄱ. 철수 → 이모

난 김치를 잘 먹읍네다.(나는 김치를 잘 먹습니다.)

ㄴ. 나 → 친구

철수가 지네 이모안티 이녁은 김치를 잘 먹읍네텐 햏여고.(철수가 자기 이모한테 자기는 김치를 잘 먹는다고 하던데.)

(15) ㄱ. 영수 → 삼촌

검질은 다 뻬디가?(김은 다 매셨습니까?)

ㄴ. 나 → 아버지

영수가 지네 삼촌ㄴ라 검질은 다 뻬디겐 햏디다.(영수가 자기 삼촌께 김은 다 매셨느냐고 하던데요.)

(14ㄴ), (15ㄴ)은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 ‘ㅏ’가 탈락하고 그 앞의 자음과 인용 어미 ‘-엔’이 축약되어 간접 인용절이 만들어진 것들이다.

(16) ㄱ. 아시 → 나

이제랑 햏쓸 햏셔.(이제는 좀 쉬십시오.)

ㄴ. 나 → 친구

우리 아시가 나안티 이제랑 햏쓸 햏셌 햏여라.(철수가 나한테 이제는 좀 쉬시라고 하더라.)

(17) ㄱ. 영이 → 나

장이 글읍셔⁸⁾.(시장에 같이 가지지요.)

ㄴ. 나 → 친구

영이가 나신디 장이 글읍셌 곺안게.(영이가 나한테 시장에 같이 가지자고 하더라.)

8) ‘-(으)벼셔’는 명령형 어미이다. 그런데 이는 ‘청유’를 나타내는 어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동사 ‘가다’에 연결되어 쓰일 때가 그렇다. 이때 ‘가다’는 ‘글다’의 형태로 쓰인다.

(16ㄴ), (17ㄴ)에 제시한 예들은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 ‘ㄱ’이 탈락하고 그 앞의 자음과 인용 어미 ‘-엔’이 축약되어 간접 인용절이 만들어진 것들이다.

다음 예문 (18ㄴ)은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 ‘ㄴ(wa)’에서 ‘ㄴ’만 탈락하여 반모음 ‘w’와 인용 어미가 연결된 것이다. 그리고 (18ㄷ)은 ‘ㄴ’이 탈락하여 인용 어미가 연결된 간접 인용절을 안은 문장이다.

(18) ㄱ. 순이 → 나

우리 삼촌은 어디 갔수과?(우리 삼촌은 어디 가셨어요?)

ㄴ. 나 → 할머니

순이가 나ㄴ라 지네 삼촌은 어디 갔수웬 들읍디다.(순이가 나한테 자기네 삼촌은 어디 가셨느냐고 묻던데요.)

ㄷ. 나 → 할머니

순이가 나ㄴ라 지네 삼촌은 어디 갔수웬 들읍디다.(순이가 나한테 자기네 삼촌은 어디 가셨느냐고 묻던데요.)

다음으로 원래 발화에서 상대 높임법이 실현되지 않은 문장이 간접 인용절로 안긴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19) ㄱ. 삼촌 → 나

제주도 마농은 뽽나.(제주도 마늘은 매워.)

ㄴ. 나 → 어머니

삼촌이 나신디 제주도 마농은 뽽넌 홉디다.(삼촌께서 나한테 제주도 마늘은 뽽다고 하시던데요.)

(20) ㄱ. 이장님 → 나

오늘 느네 아방 식계가?(오늘 너희 아버지 제사니?)

ㄴ. 나 → 동생

이장님이 나신디 오닐 우리 아버지 식계젠 들어고.(이장님께 서 나한테 오늘 우리 아버지 제사냐고 물으시던데.)

(21) ㄱ. 이모 → 나

는 재기 집이 가라.(너는 빨리 집에 가거라.)

ㄴ. 나 → 아버지

이모가 나신디 재기 집이 가렌 홉디다.(이모께서 나한테 빨리 집에 가라고 하시던데요.)

(22) ㄱ. 철수 → 영이

학교에 곶이 글라9).(학교에 같이 가자.)

ㄴ. 나 → 어머니

철수가 영이안티 학교에 곶이 글렌 홉디다.(철수가 영이한테 학교에 같이 가자고 하던데요.)

예문 (19ㄴ), (20ㄴ), (21ㄴ), (22ㄴ)은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 ‘ㅏ’가 탈락하고 그 앞의 자음과 인용 어미 ‘-엔’이 축약되어 간접 인용절이 만들어진 예들이다.

(23) ㄱ. 민재 → 경수

난 밥 먹엇저.(난 밥을 먹었어.)

ㄴ. 나 → 친구

민재가 경수신디 이녁은 밥 먹엇젠 곶아라.(민재가 경수한테 자기는 밥을 먹었다고 말하더라.)

9) ‘-(으)라’는 명령형 어미이다. 그런데 이는 ‘청유’를 나타내는 어미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동사 ‘가다’에 연결되어 쓰일 때가 그렇다. 이때 ‘가다’는 ‘글다’의 형태로 쓰인다.

(23ㄴ)은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 ‘ㄷ’가 탈락한 형태에 인용 어미가 연결되어 간접 인용절이 만들어진 것이다.

다음 (24ㄴ)은 원래 발화에 쓰인 서술어의 끝모음 ‘ㄱ’가 탈락한 형태에 인용 어미가 연결되어 간접 인용절이 만들어진 것이다.

(24) ㄱ. 민재 → 영수

흔디 즈냐 먹게.(같이 저녁을 먹자.)

ㄴ. 나 → 어머니

민재가 영수ㄹ라 흔디 즈냐 먹겐 흡디다.(민재가 영수한테 같이 저녁을 먹자고 하던데요.)

앞에서는 원래 발화가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인 경우 상대 높임법의 실현 여부에 따라 구분하여 간접 인용절로 안기는 모습을 살펴보았다.

다음은 원래 발화가 감탄문인 경우 간접 인용절로 안기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한다.

표준어의 경우 원래 발화가 감탄문인 경우 간접 인용절로 안길 때 어미는 평서형으로 귀착된다(남기심·고영근, 2015: 357). 제춧말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음에 예문을 제시한다.

(25) ㄱ. 고모 : 아이고, 날이 어둑엇고나!(아이고, 날이 어두워졌구나!)

ㄴ. 나 → 아버지

고모가 날이 어둑엇텐 곱읍디다.(고모께서 날이 어두워졌다 고 하시던데요.)

ㄷ. 나 → 아버지

고모가 날이 어둑엇젠 곱읍디다.(고모께서 날이 어두워졌다 고 하시던데요.)

위에 제시된 원래 발화의 서술어 ‘어둑엇고나’는 평서형 어미가 쓰인 ‘어둑엇다’, ‘어둑엇저’ 등으로 귀착되어 인용절로 안긴다. 따라서 (25ㄴ)과 같은 인용절로 안길 수도 있고 (25ㄷ)과 같이 안길 수도 있다.

감탄문이 간접 인용절로 안길 때 감탄사는 의미상으로 이에 상응하는 부사로 치환되기도 한다.

(26) ㄱ. 할머니 : 아이고, 종애 아프다!(아이고, 종아리가 아프다!)

ㄴ. 나 → 아버지

할머니가 종애 막 아프덴 곱읍디다.(할머니께서 종아리가 아주 아프다고 하시던데요.)

원래 발화에 쓰인 감탄사 ‘아이고’가 (26ㄴ)과 같이 간접 인용절로 안길 때 부사 ‘막’으로 치환되었다.

2.3 이어진문장

이어진문장은 둘 이상의 홑문장이 연결 어미에 의해 연결된 문장을 말한다. 이때 각각의 홑문장은 더 큰 문장의 한 성분이 되므로 문장이 아닌 절(節)의 자격만 갖는다.

이어진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에 따라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나눌 수 있다.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대등한 문장을 말한다. 앞절과 뒷절의 연결에는 ‘-꼭[나열]’, ‘-주만[대조]’, ‘-(으)나[선택]’ 등과 같은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 (27ㄱ~ㄷ)이 이에 해당한다.

(27) ㄱ. 아신 놀꼭 성은 일험수다.(동생은 놀고 형은 일해요.)

ㄴ. 그건 헐헐주만 이건 헐쓸 비쌘주.(그건 싸지만 이건 약간 비쌘요.)

ㄷ. 밥을 먹으나 떡을 먹으나 허라.(밥을 먹든지 떡을 먹든지 해라.)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은 앞절과 뒷절의 의미 관계가 종속적인 문장을 말한다. 대체로 앞절이 뒷절에 대해 종속적인 의미 관계를 갖는다. 앞절과 뒷절의 연결에는 ‘-(으)난[이유·원인]’, ‘-(으)민[조건]’, ‘-젠[목적]’, ‘-아도/-어도/-여도[양보]’와 같은 연결 어미가 사용된다.

(28) ㄱ. 뚝은 밥 먹으난 심이 낫져.(따뜻한 밥을 먹으니 힘이 나네.)

ㄴ. 약 불르민 낫을 거여.(약 바르면 나을 거야.)

ㄷ. 민재는 고사리 케젠 산더레 갖추다.(민재는 고사리를 캐려고 산으로 갔어요.)

ㄹ. 난 아멩 베고파도 독새긴 안 먹쿠다.(난 아무리 베고파도 달 같은 안 먹겠어요.)

예문 (28ㄱ~ㄹ)은 각각 앞절이 뒷절에 대해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들이다.

3. 문장의 표현

3.1 종결 표현

제ڑ말을 비롯한 국어의 모든 방언은 그 문장에 쓰인 종결 어미에 따라 전체 문장의 의미가 결정된다. 종결 어미는 문장을 끝맺는 기능과 화자의 의도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결정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문장은 그 종결 표현 방식에 따라 평서문, 감탄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평서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특정 요구 없이 어떤 사실이나 자신의

생각, 경험 등을 진술하는 문장이다. 다음 예문이 평서문에 해당한다.

- (1) ㄱ. 오늘은 날씨가 좋다.(오늘은 날씨가 좋아요.)
- ㄴ. 난 밭다 갔어.(난 밭에 간다.)

감탄문은 화자가 청자를 별로 의식하지 않거나 거의 독백하는 상태에서 자기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이다. 다음에 감탄문의 예를 제시한다.

- (2) 아이고, 날이 잘도 열구나!(아이고, 날씨가 아주 출구나!)

의문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통해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이다. 의문문에는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과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이 있다.

- (3) ㄱ. 무시겨 먹엄수파?(뭘 드세요?)
- ㄴ. 어드레 감이니?(어디로 가는 거니?)

(3ㄱ~ㄴ)은 청자에게 일정한 설명을 요구하는 설명 의문문의 예들이다.

다음 예문 (4ㄱ~ㄴ)은 긍정이나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판정 의문문의 예들이다.

- (4) ㄱ. 별초 다 흠데가?(별초 다 하셨습니까?)
- ㄴ. 야인 느네 아덜이냐?(얘는 네 아들이니?)

한편, 형태상으로는 의문문이나 청자에게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다음과 같은 문장을 수사 의문문이라고 한다.

(5) 개이가 무사 그걸 곱지느니?(개가 왜 그걸 숨기겠니?)

(5)는 설명 또는 긍정, 부정의 응답을 요구하는 의문문이 아니라 “개가 그걸 숨길 리가 없다.”는 화자의 판단, 믿음의 내용을 표현하는 수사 의문문이다.

명령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는 문장이다. 다음 예들이 명령문에 해당한다.

(6) ㄱ. 삼촌, 저레 누워서.(삼촌, 저리로 누우십시오.)

ㄴ. 혼자 학교에 가라.(어서 학교에 가거라.)

청유문은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같이 하도록 요청하는 문장이다.

(7) ㄱ. 벨랑 나영 같이 한라산에 갑주.(내일은 저하고 같이 한라산에 가시지요.)

ㄴ. 나영 혼자 놀게.(나하고 같이 놀자.)

3.2 피동과 사동 표현

3.2.1 피동 표현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 따위를 말로 표현하여 완결된 내용을 나타낼 때, 그 안에서 동작을 하는 대상이 스스로 하는 것을 말로 표현한 것을 ‘능동 표현’이라 한다.

반면에 말 속의 주체가 동작이나 행동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동작이 이루어지거나 영향을 받는 말로 표현한 것을 ‘피동 표현’이라 한다.

- (8) ㄱ. 아이가 재열을 잡았신게.(아이가 매미를 잡고 있네.)
 - ㄴ. 재열이 아이신디 껌혀신게.(매미가 아이에게 잡혔네.)
 - ㄷ. 베염이 밥주리생일 잡안 먹었신게.(뱀이 참새를 잡아서 먹고 있네.)
 - ㄹ. 밥주리생이가 베염신디 껌현 먹혔신게.(참새가 뱀에게 잡혀서 먹히고 있네.)

위 두 말을 비교해 보자. 예문 (8ㄱ)은 주어가 ‘아이’이고 목적어가 ‘재열(매미)’이고, ‘재열’을 잡는 주체는 ‘아이’이다. 그런데 예문 (8ㄴ)을 보면, 예문 (8ㄱ)의 목적어 ‘재열(매미)’이 예문 (8ㄴ)에서 주어로 쓰였다. 예문 (8ㄱ)의 주어 ‘아이’가 예문 (8ㄴ)에서는 여격 조사 ‘신디(에게)’와 어울려서 피동문이 되었다. 더욱이 예문 (8ㄱ)에서는 능동사 ‘잡다’가 쓰였는데, 예문 (8ㄴ)에서는 능동사 ‘잡다’에 피동의 접사 ‘-히-’가 덧붙어서 피동문이 되었다.

예문 (8ㄷ)과 (8ㄹ)도 마찬가지이다. 예문 (8ㄱ)은 주어가 ‘베염(뱀)’이고 목적어가 ‘밥주리생이(참새)’이고, ‘밥주리생이’를 잡는 주체는 ‘베염’이다. 그런데 예문 (8ㄷ)을 보면, 예문 (8ㄷ)의 목적어 ‘밥주리생이(참새)’가 예문 (8ㄹ)에서 주어로 쓰이고, 예문 (8ㄷ)의 주어 ‘밥주리생이’가 예문 (8ㄹ)에서 여격 조사 ‘신디(에게)’와 어울려서 피동문이 되었다. 더욱이 예문 (8ㄷ)에서는 능동사 ‘잡다’와 ‘먹다’가 쓰였는데, 예문 (8ㄹ)에서는 능동사 ‘잡다’와 ‘먹다’에 피동의 접사 ‘-히-’가 덧붙어서 피동문이 되었다.

제ڑ말 피동사 ‘축이다’는 ‘축다’(물기에 젖어 축축해지다)에 피동의 접사 ‘-이-’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제ڑ말 피동사 ‘껌지다/껌지다(끼이다)’ 등은 ‘껌히다’로도 쓰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피동의 접사 ‘-지-’는 기원적

으로는 피동의 접사 ‘-히-’에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쫓말 피동사 ‘안지다’도 ‘안기다’에서 확인되는 피동의 접사 ‘-기-’의 변음이라 할 수 있다.

듣다 - 들리다
먹다 - 먹히다/백히다
보다 - 보이다
안다 - 안기다/엔기다(엥기다)/안지다
잡다 - 잡히다/좍히다
좃다 - 좃이다
좍다/줍다 - 좍지다/줍지다/좍히다
축다 - 축이다
풀다 - 풀리다

이와 같이 피동사는 능동사 어간에 피동의 접사 ‘-이-, -히-, -지-, -리-, -기-’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이렇게 능동사에 붙어서 피동을 만드는 접사를 ‘피동 접미사’라고 한다. 어간에 피동 접미사가 붙어서 파생되는 피동 표현은 ‘파생적 피동 표현’ 또는 ‘피동 접미사에 의한 피동 표현’이라고 부른다. 접미사에 의한 피동은 달리 ‘단형 피동’이라고도 부른다.

한편 서술어에 제쫓말 ‘-뉘다, -아/어 지다, -게 뉘다’ 따위의 보조동사가 덧붙어서 쓰인 것도 피동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뉘다, -아(어) 지다’와 같은 보조동사 표현이 덧붙어서 이루어진 피동 표현을 ‘-아(어) 지다’에 의한 피동 표현 또는 ‘통사적 피동 표현’이라고 부른다. 이를 달리 ‘장형 피동’ 또는 ‘보조동사 피동’이라고도 부른다.

- 상 잘 닦아점수다.(상 잘 닦이고 있습니다.)

- 질 잘 닦으난, 이제 차도 잘 탕겨지큰게마썸.(길을 잘 닦았으니, 이제 차도 잘 다닐 수 있겠습니다.)
- 뽕끼칠 잘 뒤어신게마썸.(페인트칠이 잘 되었습니다.)
- 메칠 시면 잔치 먹게 될 거우다.(며칠 있으면 잔치 먹게 될 것입니다.)

한편 다음과 같이 서술어 ‘당ㅎ다(당허다)’나 ‘-게 멘들다’ 등이 붙어서 이루어진 말도 피동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당ㅎ다’나 ‘-게 멘들다’ 등과 같은 서술어가 목적어 바로 뒤에서 쓰인 것은 ‘쩍히다’나 ‘먹게 뒤다’와 같은 문법 요소가 없는 것으로, 피동의 뜻을 가진다. 이와 같은 ‘피동 표현’을 ‘어휘적 피동 표현’ 또는 ‘어휘적 피동법’이라 한다.

- 난 안직ㄱ지 큰일은 안 당헤낫주.(나는 아직까지 큰일을 안 당했었지.)
- 어뎡이 자이 공부허게 멘들암신게.(어머니가 재 공부하게 만고 있네.)

3.2.2 사동 표현

사람의 말 속에서 동작이나 행동을 직접 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시켜서 하게 하느냐에 따라 문장은 주동문과 사동문으로 나뉜다. 주동문에 쓰인 서술어를 주동사라 하고, 사동문에 쓰인 서술어를 사동사라 한다.

사동문은 말을 할 때, 말 속의 주체가 제3자에게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을 써서 나타난 것이다. 말 속의 주체가 자기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남으로 하여금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표현이 들어 있으면, 그 표현을 ‘사동 표현’이라 한다.

- (9) ㄱ. 가이가 옷을 입었어라.(그 아이가 옷을 입고 있더라.)
 ㄴ. 아방이 가이 저술옷 입지라.(아버지가 그 아이 겨울옷을 입혀라.)

- ㄷ. 가이가 밥을 먹었어라.(그 아이가 밥을 먹고 있더라.)
- ㄹ. 어명이 가이 밥 먹어라.(어머니가 그 아이 밥 먹어라.)

위 (9ㄱ)과 (9ㄷ) 두 문장에서 ‘입었어라’와 ‘먹었어라’는 각각 본인(가이: 그 아이)이 스스로 옷을 입고 있더라, 본인이 스스로 밥을 먹고 있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문장의 주체가 스스로 동작을 행한다는 표현을 한 것이다.

그런데 위 (9ㄴ)과 (9ㄹ) 두 문장에서 ‘입지라’와 ‘먹어라’는 각각 ‘입혀라’와 ‘먹여라’라는 뜻으로, 주체는 ‘아방(아버지)’과 ‘어명(어머니)’이고, 서술어의 행위가 미치는 대상(객체)은 ‘가이(그 아이)’가 된다.

이와 같이 말 속의 사동사는 동사 어간에 사동의 접사 ‘-이-, -지-,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결합하여 쓰인다. 이들 접사는 ‘사동 접미사’라 하고, 어간에 사동 접미사가 붙어서 이루어진 사동 표현을 ‘파생적 사동 표현’ 또는 ‘사동 접미사에 의한 사동 표현’이라고 부른다. 이를 달리 ‘단형 사동’이라고도 부른다.

제쫓말 사동사 ‘살리다, 울리다, 알리다’ 등은 각각 ‘살다, 울다, 알다’에 사동의 접사 ‘-리-’가 붙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제쫓말 사동사 ‘입지다(입히다), 앉지다(앉히다/안지다(앉히다), 눕지다/눅지다(눅히다)’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동의 접사 ‘-지-’는 기원적으로는 사동의 접사 ‘-히-’에서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쫓말 사동사 ‘기치다/그치다/근치다/끈치다’ 등에서 확인되는 ‘기치-/그치-’는 현대국어 ‘끓다’에 대응하는 중세국어 ‘꺄다>꺄다’와 근대국어 ‘끓다>끓다’에 사동의 접사 ‘-이-’가 붙어서 쓰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쫓말 사동사 ‘눅추대[눅추다]’는 ‘눅다’에 사동의 접사 ‘-추-’가 붙

어서 이루어진 말이다.

제ڑ말 사동사 ‘돋구다’는 ‘돋다’에 사동의 접사 ‘-구-’가 붙은 것이고, ‘돋우다’는 ‘돋다’에 사동의 접사 ‘-우-’가 붙은 것이다.

제ڑ말 사동사 ‘웃지다/웃주다’는 ‘웃다’에 사동의 접사 ‘-지-’와 ‘-주-’가 붙은 것인데, 이는 ‘-기-’의 변음이라 할 수 있다.

제ڑ말 사동사 ‘씩우다/씨우다’는 ‘쓰다’에 사동의 접사 ‘-우-’가 붙은 것이다.

(10) ㄱ. 어멍이 아이신디/아이안티 옷을 입졌져.(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고 있네.)

ㄴ. 그 어멍은 아이신디/아이안티 흥상 비싼 옷만 상 입진다.(그 어머니는 아이에게 항상 비싼 옷만 사서 입힌다.)

*긫다 - 기치다/그치다

*긫다 - 근치다

꺠다 - 치다

높다 - 높이다

놀다 - 놀리다

눗다 - 눗추다[늑추다]

눗다/눗다 - 눗지다/눗지다/눗히다

닫다 - 닫히다

돋다 - 돋구다/돋우다

떡다 - 떡이다/백이다

보다 - 베우다

쓰다 - 씹우다/씨우다

업다 - 업지다/업히다

얏다/얏다 - 얏지다/안지다/얏지다/안치다

웃다 - 웃주다/웃지다

입다 - 입지다/입히다

위 예문 (10ㄱ)과 (10ㄴ)을 비교해 보자. 두 문장은 모두 사동문이다. 그런데 예문 (10ㄱ)의 ‘입지다’는 주체인 ‘어멍(어머니)’이 ‘아이신디(아이에게)’ 옷을 입힌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사동에서도 직접 사동의 뜻만 가진다.

그런데 예문 (10ㄴ)의 ‘입지다’에는 주체인 ‘어멍(어머니)’이 ‘아이신디(아이에게)’ 직접 비싼 옷을 입히는 뜻도 있고, 비싼 옷을 사 준다는 뜻도 있다. 곧 직접 사동의 뜻도 있을 수 있고, 간접 사동의 뜻도 있을 수 있다.

서술어의 어간에 보조 동사 ‘-게 하다(허다)’가 붙어서 쓰인 것도 사동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서술어 어간에 보조 동사 ‘-게 하다(허다)’가 붙어서 쓰인 것을 ‘-게 하다’에 의한 사동 표현 또는 ‘-게 하다’에 의한 통사적 ‘사동 표현’이라 부른다. 이를 달리 ‘장형 사동’ 또는 ‘보조 동사 사동’이라고도 부른다. 장형 사동은 제ڑ말에서 매우 생산적이다.

어멍이 자이 밥 먹게 허라/허라.(어머니가 재 밥을 먹게 해라.)
아방이 가이 줌자게 허라/허라.(아버지가 개 잠자게 해라.)

일상적인 제ڑ말 대화에서는 사동문의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하게 행동해야 할 사람을 내세울 때는 그 사람을 주어 자리에 놓아서 말을 한다.

한편 목적어 뒤에 제ڑ말 ‘시기다/시키다’를 놓아서 하는 말도 사동 표현이 된다. 이와 같이 ‘시기다’가 붙어서 사동 표현이 되는 것을 어휘적 사동 표현이라 한다.

아방이 자이 일 시기라/시키라.(아버지가 재 일을 하도록 시켜라.)
성이 가이 책 익게 시기라/시키라.(형이 재 책을 읽도록 시켜라.)

제쫓말에서 ‘웃주다’는 ‘높이다’ 또는 ‘높이 대접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사동의 뜻을 가지고 있다. 기원적으로는 ‘높다’는 뜻을 가진 ‘웃다’에서 파생된 말인 듯한데, 표준어에서나 제쫓말에서 이런 뜻을 가진 ‘웃다’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웃주다’도 어휘적 사동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웃겨 주민 좋아해여.(그 사람은 높여 대접해 주면 좋아해.)

3.3 시간 표현

시제란 문법 범주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인지,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일인지, 혹은 앞으로 일어날 일인지를 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시제는 화자가 말하는 시점인 발화시와 문장 속의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나는 시점인 사건시와의 선후 관계를 따라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로 나눈다. 시제를 표현하는 것은 주로 선어말 어미와 같이 쓰인 종결 표현이나 안긴문장의 관형사형 어미와 시간 부사어로 표현된다.

제쫓말에서는 동사나 형용사에 쓰이는 선어말 어미와 같이 쓰인 종결 표현이나 안긴문장의 관형사형 어미의 쓰임이 표준어와 다를 때도 있어, 표준어 시제와는 다른 점도 있다.

그러한 예를 몇 가지를 들면,

첫째는 시제와 관련된 ‘-느냐, -는다’나 관형사형 어미 ‘-는’이 표준어에서는 동사에만 쓰인다. 그러나 제쫓말에서는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도 쓰인다. 그래서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거나, 시제나 시상을 가르는 기준도 표준어와 다를 수 있다.

표준어에서는 과거 시제로는 ‘-았-/-었-’이 쓰이나, 제춧말에는 그와 비슷한 ‘-았-/-아시-, -안디-’가 쓰인다. 표준어에서는 ‘-았-/-었-’이 과거 시제로 쓰인다는 데 이의가 없다. 그러나 제춧말에서는 이 ‘-았-/-아시-, -안디-’가 보기에 따라서는 시제나 상으로 볼 수도 있어, 시제나 상을 가리기는 쉽지 않다. 또한 제춧말에는 표준어에는 없는 시상을 나타내는 형태들도 있다.

둘째는 표준어의 ‘-어서, -다가, -려고’는 제춧말에서는 둘로 나뉘어 ‘-영, -언’, ‘-당, -단’, ‘-쟁, -젠’으로 쓰인다. 그리고 인용격 조사 ‘이라고’와 같은 뜻도 둘로 나뉘어 ‘이영, 이엔’으로 쓰인다. 이들은 뒤에 오는 어미들과 호응하면서 쓰이는데, 이 ‘-ㅇ, -ㄴ’을 때가림소(줄여서 ‘때소’)라고 한다. 이들도 제춧말 시상 체계에 크게 작용한다.

셋째는 제춧말에서는 의문문과 평서문이 짝을 이루어 쓰인다. ‘-느냐’로 물으면 ‘-는다/-나’로, ‘-(으)냐’로 물으면 ‘-다/-저’로 대답한다. 표준어는 이런 짝임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춧말 의문문에 쓰이는 어미들도 시상의 범주에 넣을 수 있다.

예를 들면 표준어 ‘있다’에 대응되는 제춧말 ‘잇-/이시-/잇-/시-’를 통해서 어미의 활용과 때가림소 ‘-ㅇ, -ㄴ’과의 호응을 살펴볼 수 있다.

- (11) ㄱ. 집에 왕 잇느냐? - 왕 잇나.(집에 와서 있느냐? - *있는다.)¹⁰⁾
 ㄴ. 집에 완 시냐? - 완 잇저/다.(집에 와서 *있냐 - 와서 있다.)

표준어는 물음 ‘잇느냐’에 대답 ‘있다’가 쓰인다. 만일 ‘있다’가 표준어에서 동사라면 ‘잇느냐 - 있다’로 쓰여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10) “*있는다’처럼 위첨자가 붙어 있는 것은 표준어로는 쓰이지 않음을 나타낸다. **가볍는다’ 따위도 마찬가지이다. 제춧말을 표준어로 옮기기가 쉽지 않아 그렇게 쓴 것일 뿐이다.

않았다. 그러나 제춧말에서는 ‘잇느냐 - 잇나(잇는다)’와 ‘시냐(잇냐) - 시저(잇다)’로 나뉘어 물음과 대답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물음에서는 ‘-느-’ 유무의 대립이 나타나고, 대답에서는 ‘-는-/ㄴ-’의 유무로 대립한다.

만일 ‘-느-’나 ‘-는-’이 표준어에서처럼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면, 표준어 ‘잇-’에는 현재 시제로 묻고, 과거 시제나 완료로 대답한 셈이 된다. 그러나 제춧말에서는 ‘-느냐’에는 ‘-는다’가 ‘-(으)냐’에는 ‘-다 /-저’로 물음과 대답이 된다.

형용사에서 쓰임을 보자.

(12) ㄱ. 베당도 가볍느냐? - 베당도 가볍나.(무겁다가도 *가볍느냐? - *가볍는다.)

ㄴ. 베단도 가벼우냐? - 베단도 가볍다.(무겁다가도 가벼우냐? - 무겁다가도 가볍다.)

표준어 형용사에는 (12ㄱ)의 ‘*가볍느냐, *가볍는다’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제춧말에서는 쓰인다.

다음에는 동사에서의 쓰임을 보면,

(13) ㄱ. 먹영 가느냐? - 간다.(먹고서 가느냐? - 간다.)

ㄴ. *먹영 - *먹언 *가냐? - *가다.(먹고서 *가냐? - ?가다.11)

ㄷ. 먹영 감시느냐? - 감신다.(먹고서 가고 있느냐? - 먹고서 가고 *있는다.)

ㄹ. 먹언 감시냐? - 값저.(먹고서 가고 *있느냐? - 먹고서 가고 있다.)

11) 표준어에서는 ‘-다’가 특수한 경우에는 동사 어간에 바로 붙어 쓰이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춧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ㄱ. 먹영 가시느냐? - 먹영 가신다.(먹고서 갔느냐 - *갔는다.)

ㄴ. 먹언 가시냐? - 먹언 갔저.(먹고서 *갔냐 - 갔다.)

동사에서는 표준어나 제춧말에서 모처럼 (13ㄱ)에서는 ‘가느냐 - 간다’로 같게 쓰인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느냐, -는다/-니다’의 쓰임을 보면, 표준어에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았-’의 뒤에는 (13ㄴ)에서는 ‘-았느냐’로 묻고, (10ㄴ)에서는 ‘-았다’로 대답했다.

그런데 제춧말에는 ‘-았-’ 대신에 ‘-암시-/-았-’과 ‘-아시-/-았-’이 쓰여도 ‘-느냐 -는다’와 ‘-(으)나 -다/-저’가 모두 그대로 쓰인다. 그러니까 표준어처럼 ‘-았-’의 뒤에 쓰인 ‘-았느냐’의 선어말 어미 ‘-느-/-는-’의 기능인 시제나 상이 사라지는 일이 없다.

또 하나는 관형사형 어미 짜임이 표준어와 다르다. 위의 (13ㄷ, ㄹ)에서의 ‘감시느냐 - 감시냐’도 관형사형 어미로 바꾸면 “*감시는”으로 쓰이지 않는다. 그래서 ‘가는’이 되는데, ‘간다’의 ‘-는’과 같기 때문에 이들을 분간하기 위해서는 ‘-는¹’과 ‘-는²’로 해야 한다. 그리고 ‘곱다’가 ‘고운’이 되면, ‘고왔다’도 ‘고운’이 되는데 이들도 ‘-(으)나¹’과 ‘-(으)나²’로 나누게 된다.

<참고>

먹고서 올 것이다./먹영 올 거여. : 먹고서 오더라./먹언 오라라.
놀다가 올 것이다./놀당 올 거여. : 놀다가 오더라./놀단 오라라.
먹으려고 할 것이다./먹쟁 흘 거여. : 먹으려고 하더라./먹젠 흥여라.
간다고 할 것이다./간뎡 흘 거여. : 간다고 하더라./간텐 흥여라.

표준어는 같은 ‘-고서, -다가, -려고, -다고’이지만 뒤의 어미의 시제에 따라 뜻이 결정된다. 제춧말에서는 ‘-영, -언, -당, -단, -쟁,

-젠, -땡, -땡'으로 나뉘어, '-오'이 붙은 '-어서'와 '-니'이 붙은 '-어서'는 다르며, 그것이 뒤에 오는 어미들과 호응한다. 그 호응이 어긋나면 문장도 어긋나게 된다. '-오'은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거나 같을 때 쓰이고, '-니'은 사건시가 발화시와 같거나 앞설 때 쓰인다.

여기서는 이 '-오, -니'을 때가림소(줄여서 때소)라고 부른다. '때를 가리어 나타내는 형태소'란 뜻으로 썼다. 제춧말의 모든 어미는 이 때소와 호응해서 쓰여야 한다. 본용언과 보조 용언을 가르는 방법으로 쓰이고,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는 기준도 되는 중요한 문법소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준어와 제춧말이 다른 점이 있지만 학교 문법에 준하여 시간 표현을 살펴보도록 한다.

3.3.1 과거 시제

과거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표준어에서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 '-았-/-었-, -더-, -았었-/-였었-' 따위가 있다. 그리고 관형사형 어미로는 '-(으)ㄴ, -던'이 있다.

제춧말에서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 '-안디-/-언디-, -앗/아시-, -고-/-과-, -아-/-더-, -데-/-디-' 따위가 있다. 종결 어미에는 '-언-/-안-', 관형사형 어미에는 '-(으)ㄴ, -단-/-던'과 시간 부사어 '어제, 벌써, 전이' 따위가 있다.

① 선어말 어미로 표현되는 과거 시제

- (14) ㄱ. 는 칠수영 싸완디아?(너는 칠수랑 싸웠느냐?)
 ㄴ. 으, 난 칠수영 싸왓저.(그래, 난 칠수랑 싸웠다.)
 ㄷ. 칠순 영수영 싸와샤?(칠수는 영수랑 싸웠느냐?)

ㄹ. 으, 철순 영수영 싸웠저.(그래, 철순 영수랑 싸웠다.)

제ڑ말 선어말 어미 ‘-안디-, -앗-/아시-’를 시제, 상 어느 쪽으로 볼 것인지는 같이 쓰이는 동사나 다른 요소들에 따라 결정된다. (14)와 같이 ‘싸완디아, 싸와샤, 싸왓저’의 ‘싸우다’에 쓰인 ‘-안디-, -아시-, -앗-’은 사건시가 발화시를 앞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아래는 다르다.

(15) ㄱ. 는 그디 앓안디아?(너는 거기 앓았느냐?)

ㄴ. 으, 난 이디 앓았저.(그래, 난 여기 앓았다.)

ㄷ. 철순 그디 앓아샤?(철순 거기 앓았느냐?)

ㄹ. 으, 철순 그디 앓았저.(그래, 철순 거기 앓았다.)

(15)에서 ‘앓안디아, 앓아샤, 앓았저’에는 같은 선어말 어미 ‘-안디-’와 ‘-앗-/아시-’가 쓰였지만 여기서는 시제가 아니라 완료상으로 볼 수 있다. 그것은 ‘앓-(앓-)’의 상태의 지속의 뜻을 나타내는 동사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시제나 상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안디’를 ‘오+아+ㄴ+ㄷ+ㅣ’로 분석하면 ‘-(으)ㄴ’은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어도 과거 시제를 나타내지만, 그것을 그렇게 분석하지 않고 ‘-안디-’를 선어말 어미로 보았다. 그것은 2인칭 주어에만 쓰이기 때문이다.

(16) ㄱ. 그디 신 건 책이랏저.(거기 있는 것은 책이었다.)

ㄴ. 바깳딘 얼엇저.(바깥은 추웠다. - 추운 상태이다.)

(16ㄱ)의 서술격 조사 ‘이-’에 ‘-랏-’이 쓰였는데 이것도 ‘-앗/엇-’의 변이형태이기 때문에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그러나 (16ㄴ)의

‘-엇-/-랏-’은 형용사에 쓰여서 상과 시제로 볼 수도 있다.

(17) ㄱ. 는 뭐ㅎ단 완디?(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ㄴ. 으, (난) 일ㅎ단 왔져.(그래, (난) 일하다가 왔다.)

(17)은 겹문장으로 ‘무엇ㅎ단, 일ㅎ단’의 ‘-다’에 쓰인 때소 ‘-ㄴ’은 관형사형 어미가 아니다. 이 때소 ‘-ㄴ’에 대립되는 ‘-ㅇ’이 따로 있다. 이 ‘-ㄴ’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다. 그래서 때소 ‘-ㄴ’을 과거 시제로 보는 일도 있다. 이 때소 ‘-ㄴ’의 뒤에 오는 어미들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거나 일치하는 어미가 와야 바른 호응이 된다.

‘완디’의 ‘-안디’는 미지칭 대명사와 같이 쓰인다. 이때는 ‘완디아’에서 ‘-아’가 준 것이다. ‘-안디-’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18) ㄱ. 하르바님도 일ㅎ엿수과? - 예, 나도 일ㅎ엿수다.(할아버지께 서도 일하셨습니까? - 예, 나도 일하였습니다.)

ㄴ. 하르바님도 일ㅎ여수과? - 예, 나도 일ㅎ여수다.

(18ㄱ)과 (18ㄴ)은 가운데의 표준어와 같은 뜻이다. (18ㄱ) ‘일ㅎ엿수과’와 (18ㄴ) ‘일ㅎ여수과’는 발음도 다르고 형태 분석도 다르다. 하나는 ‘일ㅎ+엿+수과’이고, 하나는 ‘일ㅎ+여시+우과’에서 ‘ㅎ여수과’로 축약이 된 것이다. 특히 ‘ㅎ엿-’일 때 ‘-엿-’과 ‘-여시-’가 ‘-엇-’의 변이형태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쓰였다.

‘ㅎ여수과, ㅎ여수다’는 옛 정의현 지역인 서귀, 남원, 표선 성산과 그 이웃 지역인 함덕, 조천 등지에서 쓰인다. ‘ㅎ엿수가/과, ㅎ엿수다’는 그 이외의 지역에서 쓰인다.

(19) ㄱ. 하르바님도 빳디 간 일ᄃᆞᆫ수과? - 예, 나도 빳디 간 일ᄃᆞᆫ수다.(할아버지께서도 밭에 가서 일하셨습니다? - 예, 나도 밭에 가서 일하셨습니다.)

ㄴ. 하르바님도 빳디 간 일ᄃᆞᆫ수과? - 예, 나도 빳디 간 일ᄃᆞᆫ수다.

(19)에서 ‘간’의 때소 ‘-ㄴ’과 ‘-수과/우과, -수다/우다’가 호응해서 바른 겹문장이다.

(20) ㄱ. 는 밥 춧안 먹ᄃᆞᆫ디아?(너는 밥을 찾아서 먹었느냐?)

ㄴ. 으, 난 밥 춧안 먹ᄃᆞᆫ라/떡과라.(으, 난 밥을 찾아서 먹었다.)

(20)에서 ‘먹고/과라’의 ‘-고-/과-’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이 어미는 1인칭에만 쓰이는 제약이 있다.

(21) ㄱ. 철순 집이 왓단 어드레 가(아)니?(철수는 집에 왔다가 어디로 가더냐?)

ㄴ. 철순 집이 왓단 ᄃᆞᆫ레 가(아)라.(철순 집에 왔다가 학교로 가더라.)

제췌말에는 과거 경험을 돌이켜 회상하는 ‘-더-/아-’가 쓰인다. (-아-)는 ‘-더-/아-’의 변이형태이다. 이들도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다. ‘-아-/더-’는 때소 ‘-ㄴ’과 호응한다.

(22) ㄱ. 이건 무신 책이라니?(이건 무슨 책이더냐?)

ㄴ. 이건 얼마나 고와니?(이건 얼마나 곱더냐?)

(22)에서 서술격 조사와 형용사에 쓰인 ‘-라-/아-’도 ‘-더-’와 같

은 뜻의 과거 시제이다.

<참고>

제춧말에는 표준어 어미 ‘-어/-아/-여’에 어간 ‘오-’나 서술격 조사 어간 ‘이-’에 쓰이는 어미 ‘-라’가 더 있다. 이들은 보조적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로도 쓰인다.

그리고 표준어 선어말 어미로 ‘-어/-아’에 ‘잇-’이 융합된 ‘-였-/-왔-/-였-’이 쓰이는데, 제춧말에서는 그와 비슷한 ‘-엇-/-앗-/-엇-’으로 쓰이면서 어간 ‘오-, 이-’의 뒤에서는 ‘-랏-’으로도 쓰인다.

그리고 표준어에서는 선어말 어미로 ‘-더-’ 하나만 쓰이는데, 제춧말에서는 ‘-어/-아/-여-’로도 쓰이고, 마찬가지로 어간 ‘오-, 이-’의 뒤에서는 ‘-라-’로 쓰이기도 한다.

또 표준어에는 없는 선어말 어미 ‘-았-/-았시-’도 어간 ‘오-, 이-’ 뒤에서는 ‘-랏-/-람시-’로, 때소가 붙은 ‘-영-/-양-/-영’이나 ‘-연-/-안-/-연’도 ‘오-, 이-’의 뒤에서는 ‘-랑, -란’으로, 그 밖에 ‘-언디-/-안디-’도 ‘오-, 이-’ 뒤에서는 ‘-란디-’로 쓰인다.

다만, 어간 ‘오-, 이-’의 뒤에 쓰이는 연결 어미나 종결 어미 ‘-라’나, 선어말 어미 ‘-라-’나 ‘-랏-/-라시-, -랏-/-라시-’와 때소가 붙은 ‘-랑, -란’은 모두 수의적 변이 형태이다.

(23) ㄱ. 성님은 떡을 먹언 갑테가?(형님은 떡을 먹고서 가셨습니까?)

ㄴ. 예, 성님은 떡을 먹언 갑테다.(예, 형님이 떡을 먹고서 가셨습니다.)

(23)에서 위는 3인칭 주어 ‘성님’과 호응하는 서술어 ‘갑테가’에서 밑줄 친 ‘-데-’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는 앞서는 선어말 어미로 과거 시제를 뜻한다.

- (24) ㄱ. 성님은 떡을 먹은 웁데가?(형님은 떡을 먹고서 오셨습니까?)
 ㄴ. 오, 난 떡을 먹은 오고/과라.(그래, 난 떡을 먹고서 왔다.)

(24)는 청자가 2인칭 주어 ‘성님’에 쓰인 ‘웁데가’의 ‘-데-’가 과거 시제를 표현하고, ‘-고-/과-’도 같은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표준어에서 ‘-았었-/였었-’은 발화시보다 전에 발생하여 현재와는 단절된 사건을 표현하는 데 쓰여서 ‘-았-/였-’과 의미 차이를 보이는데 ‘-엇던’도 그와 같이 ‘-엇-’과는 다르게 쓰인다.

- (25) ㄱ. 그거 나 보았던 거야.(그거 내가 보았던 거야.)
 ㄴ. 그 좋았던 시절 다 보내고.(그 좋았던 시절 다 보내고.)
 ㄷ. 과장이랐던 사람(과장이었던 사람)

제주말에서는 ‘-였었-’은 쓰이지 않는다. 그러나 ‘-엇던-’은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에도 쓰인다. ‘-엇던-’은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 (26) ㄱ. 그거 먹어 낫저.(먹었었다 - 먹었던 적이 있다.)
 ㄴ. 그 사람은 시장이라 낫저.(시장이었었다 - 시장이었던 적이 있다.)

표준어 ‘-였었-’에 대응되는 것으로 제주말 ‘-어 낫-/라 낫-’이나 ‘-어 낫던/-라 낫던’도 주로 쓰인다. ‘-어 나-’는 상적인 쓰임이어서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다룰 수는 없다. 그러나 ‘나-’의 뒤에 쓰인 ‘-았-’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② 종결 어미로 표현되는 과거 시제

- (27) ㄱ. 는 무엇하단 왔?(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ㄴ. 으, (난) 일하단 완.(그래, (난) 일하다가 왔다.)

(27)에서 '완'의 '-안'은 억양에 따라 물음도 되고, 대답도 되는 종결 어미다. 이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과거 시제이다. 때소 '-ㄴ'과만 호응한다.

(28) ㄱ. 그딘 듯지 아니 흐연 얼언?(거기는 따뜻하지 않고 추웠어?
- 추운 상태로 있어?)

ㄴ. 으, 여긴 듯지 아니 흐연 얼언.(그래, 여긴 따뜻하지 않고 추웠어. - 추운 상태로 있어.)

형용사에 쓰인 '-언'은 시제 선어말 어미라기보다는 상으로 볼 수 있다.

(29) ㄱ. 어젠 듯지 아니 흐연 얼언?(어제는 따뜻하지 않고 추웠어?)

ㄴ. 으, 어젠 듯지 아니 흐연 얼언.(그래, 어제는 따뜻하지 않고 추웠어.)

형용사에서는 시간 부사어가 같이 쓰인 경우는 '-언'도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로 볼 수 있다.

(30) ㄱ. 그건 느 연필이언?(그건 네 연필이었어?)

ㄴ. 으, 그건 나 연필이언.(그래, 그건 내 연필이었어.)

서술격 조사에도 '-언'이 과거 시제로 쓰였다.

③ 관형사형 어미로 표현되는 과거 시제

(31) ㄱ. 저건 철수네가 살단/던 집이어.(저건 철수네가 살던 집이다.)

ㄴ. 저건 철수네가 작년에 산 집이어.(저건 철수네가 작년에 산 집이다.)

(31)에서 관형사형 어미 ‘살단’의 ‘-단/던’이나 ‘-(으)ㄴ’은 모두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선 과거 시제를 나타낸다.

(32) ㄱ. 가이가 어리던 시절은 힘들었져.(그 애가 어렸던 시절은 힘들었다.)

ㄴ. 가이가 혹생이던 시절은 힘들었져.(그 애가 학생이던 시절은 힘들었다.)

동사,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던’을 과거 시제로 쓴다. ‘-던’은 ‘-더-’와 같이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 회상하는 의미로 쓰인다.

아래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 쓰인 관형사형 어미는 독특하게 되었다.

(33) ㄱ. 이 분 블르민 양지가 곱나. ⇒ 곱는 양지

ㄴ. 이 분 블르민 양지가 고울 거여. ⇒ 고울 양지

ㄷ. 이 분 블르난 양지가 곱다. ⇒ 고운 양지

ㄹ. 이 분 블르난 양지가 고왓져. ⇒ 곱는 양지

ㅁ. 이 분 블르난 양지가 고왓져. ⇒ 고운 양지

제숫말에서 어미의 활용은 표준어와 다른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관형사형 전성 어미도 다르다. ‘곱나’는 ‘곱는’, ‘고왓져’도 ‘곱는’으로 전성되고, ‘곱다’는 ‘고운’, ‘고왓져’도 ‘고운’으로 전성된다면, 형태는 같지만 뜻이 다르므로 ‘-는¹, -는²’와 ‘-(으)ㄴ¹, -(으)ㄴ²’로 나누어야 한다.

(34) ㄱ. 철순 두린 땐 고생했져.(철수는 어린 때는 고생했다.)

ㄴ. 철순 혹생인 땐 착해 낫져.(철순 학생인 때 착했었다.)

(34)에서 ‘두린 때, 학생인 때’의 ‘-(으)ㄴ’은 ‘어렸던 때, 학생이었던 때’와 같은 뜻으로 과거 시제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으)ㄴ²’이다.

④ 시간 부사어로 표현되는 과거 시제

(35) ㄱ. 철순 어제 와서라.(철순 어제 왔다.)

ㄴ. 철순 어제 와실 거여.(철순 어제 왔을 것이다.)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방법으로 ‘어제, 옛날, 벌써’와 같은 시간 부사어를 사용하는 일도 있다. (35ㄱ)에서는 시간 부사어와 ‘와서라’의 ‘-아서-’가 호응해서 과거 시제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35ㄴ)에서는 ‘어제’와 ‘-(으)ㄴ 거’는 호응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화자가 말하는 태도에 의해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어제’와는 ‘왔저’가 호응하는데, 단정적이 된다. 이것을 추정적 형태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철수가 왔단 값저’를 ‘왔단 감실 거여’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런 쓰임은 때소와 같이 쓰였을 때도 나타난다.

그래서 시간 부사어를 써서 ‘어제, 전이(전에)’가 쓰이면 과거 시제이고, ‘지금, ㄱ췌(금방)’ 따위가 쓰이면 현재 시제, ‘짓당, 닐’ 따위가 쓰이면 미래 시제로 볼 수 있다.

<참고>

1인칭 주어일 때는 ‘갓당 올 거여, 갓당 와실 거여, 갓당 와실 거여’와 같이 때소 ‘-ㅇ’과 관형사형 어미 ‘-(으)ㄴ’이 호응해서 바른 쓰임이 된다. 그런데 3인칭 주어일 때는 ‘갓단 올 거여’는 안 되는데, ‘갓단 와실 거여 - 와실 거여’가 바른 쓰임이 된다. 이것도 화자가 말하는 태도를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1인칭 주어일 때는 ‘갓당 올 거여, 갓당 왁실 거여, 갓당 와실 거여’와 같이 때소 ‘-ㅇ’과 관형사형 어미 ‘-(으)ㄹ’이 호응해서 바른 쓰임이 된다. 그런데 3인칭 주어일 때는 ‘갓단 올거여’는 안 되는데, ‘갓단 왁실 거여 - 와실 거여’가 바른 쓰임이 된다. 이것도 화자가 말하는 태도를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철수가 집이 갓단 왔저 - 갓단 왓저.’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해야 할 것을 추정으로 바꾸어 표현한 것이다. ‘철수가 왓단 갔저’를 ‘감실 거여’로 쓴 것과 같은 것이다. ‘갓단 왔수다 - 왓수다’가 ‘왁실 거우다 - 와실 거우다’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⑤ 인용문에 나타나는 과거 시제

(36) 갓단 왓덴 골아라.(갔다가 왔다고 (말)하더라.)

(36)은 인용문에서 과거 시제와 때소 ‘-ㄴ’이 호응하고 있다. ‘갓단’에는 때소 ‘-ㄴ’이, ‘왓덴’에 있는 ‘왓다’의 ‘-다’와 호응했다. 또, ‘왓덴 골아라’에서는 ‘왓덴’에 붙은 때소 ‘-ㄴ’과 ‘골아라’의 ‘-아-/-더-’가 호응하고 있다. 그러므로 ‘갓-, 왓-’에 쓰인 ‘-았-’과 ‘골아라’의 ‘-아-/-더-’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이다. 그리고 때소까지 과거 시제라 하면 다섯 개의 과거 시제가 있는 셈이다. 이처럼 제멋말의 시상 체계는 복잡하게 짜여 있다.

3.3.2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발화시와 사건시가 일치한다. 표준어 현재 시제는 동사에서는 선어말 어미 ‘-는-/-ㄴ-’과 관형사형 어미 ‘-는’을 써서 표

현하고,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에서는 선어말 어미 없이 기본형으로 나타내고, 관형사형 어미로는 ‘-(으)ㄴ’을 써서 표현한다. 그리고 ‘이제, 지금’과 같은 시간 부사어를 써서 표현한다.

- (37) ㄱ. 지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다.
 ㄴ. 방 안이 몹시 차다.
 ㄷ. 지금 운동장에서 공 차는 저 애들은 몇 학년이야?
 ㄹ. 내가 읽는 것은 국어 책이다.
 ㅁ. 착한 동생을 왜 울리나?
 ㅂ. 화가인 동생이 전시회를 열었다.

(37)에서 밑줄 친 것들이 현재 시제를 나타낸다.

그런데 제ڑ말에는 어미 활용이 표준어와 다르기 때문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들도 표준어와는 다른 것들이 있다.

표준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는-’을 현재 시제로 본다. 형용사에 쓰인 종결 어미 ‘-다’를 ‘-느-’ 없이 쓰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제ڑ말에서는 ‘-(으)ㄴ가, -다’와 ‘-는가, -는다’가 변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없다. ‘-읍네다’의 ‘-네다’도 마찬가지다.

제ڑ말에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로는 선어말 어미 ‘-암시-/ -았-, -았다-, -(으)ㅁ이-’가, 관형사형 어미로는 ‘-는²’로, 형용사에서는 ‘-(으)ㄴ²’로 쓰이는 어미들이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종결 어미 ‘-(으)ㄴ가, -다’도 형용사에 쓰였을 때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선어말 어미로 표현되는 현재 시제

제ڑ말에서도 동사 어간에는 때소 ‘-ㄴ’과 호응하는 어미 ‘-(으)냐, -

은가' 따위들은 어간에 바로 결합되지 않는다. 이 점은 표준어와 같다.

그러나 어간과 '-(으)냐' 사이에 선어말 어미가 있을 때도 표준어와 제춧말 쓰임이 다르다. 표준어에서는 선어말 어미 '-더-'가 있을 때만 '-(으)냐'가 쓰이나, 제춧말에서는 어떤 선어말 어미가 와도 '-(으)냐'를 쓸 수 있다.

(38) ㄱ. 철순 나갔단 집더래 들어와냐?(철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더냐?)

ㄴ. 으, 철순 나갔단 집더래 들어와라.(그래, 철수는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더라.)

(38)에서는 '-더-/어-'의 뒤에 '-(으)냐'가 쓰였다. 제춧말이나 표준어의 문법 기능이 같다.

(39) ㄱ. 철순 나갔단 집더래 들어왔시냐? - 와시냐?(철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 들어왔느냐?)

ㄴ. 으, 철순 나갔단 집더래 들어왔저. - 왔저.(그래, 철수는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고 있다. - 왔다.)

(39)는 3인칭 주어의 동사에서 '-(으)냐'가 선어말 어미와 같이 쓰였다. 표준어에서는 '-았-'이 쓰이면 '-느냐'만 쓰이고 '-(으)냐'는 안 쓰인다. 그러나 제춧말에서는 '-았-/암시-, -았-/아시-'의 뒤에도 '-(으)냐'가 그대로 쓰였다. 이때의 '-와시냐 : -왔저'는 과거 시제로, '왔시냐 : 왔저'는 동작상으로 쓰였다.

그렇다면 제춧말에서 현재 시제로 사건시와 발화시가 일치할 때의 쓰임을 보자.

(40) ㄱ. 저래 보라, 성 왓시냐?(저리 보아라, 형 오는가?)

ㄴ. 으, 저디 성 앓저.(으, 저기 형 온다.)

(40)에서 ‘앓저’는 화자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하는 말이다. 제주 말에서는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은 ‘-는다/-니다’로 나타내지 않는다.

(40)에서도 ‘앓저’를 ‘온다’로 대비시켰지만 그것은 표준어에서의 쓰임이다. 요즘은 제주말에서도 이런 쓰임도 많이 나타난다. 제주말 ‘온다’와 ‘앓저’는 다르다. ‘온다’는 때소 ‘-오’과, ‘앓저’는 때소 ‘-ㄴ’과 호응한다.

가끔 제주말에서 ‘온다’와 ‘앓저’가 같은 뜻으로 쓰인다고 주장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제주말에만 있는 때소와 어미들의 호응을 인정하지 않으려 할 때이거나, 제주말 짜임을 잘 헤아리지 못했을 때 나오는 일이다.

(41) ㄱ. 저래 보라, 성 궤기 산 왓시냐?(저리 보아라, 형이 고기를 사서 오는가?)

ㄴ. 으, 성 궤기 산 앓저.(으, 형이 고기를 사서 온다.)

(41)에서 ‘궤기 산 왓시냐?’와 ‘궤기 산 앓저.’에서 ‘궤기 산’의 ‘-ㄴ’이 때소인데 그것이 ‘-(으)냐, -저’와 호응한다. 이런 현상은 표준어에는 없는 독특한 것이다.

(42) ㄱ. 할마님, 궤기 산 앓수가?(할머님, 고기를 사서 오십니까?)

ㄴ. 예, 궤기 산 앓수다.(예, 고기를 사서 옵니다.)

(42)에는 높임법 ‘-수가/-우파, -수다/-우다’가 쓰였다. 직접 보았을 때는 ‘-(으)네다’가 쓰이지 않고, ‘앓수다/왓수다’가 쓰인다. 이것

도 현재 시제이거나 상으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았-/-았시-’는 쓰이는 자리나 보는 관점에 따라서 상과 시제가 함께 한다고 할 수가 있다. 때소 ‘-오’과는 ‘-(으)비네까, -(으)비네다’가 ‘-ㄴ’과는 ‘-수가/-우파, -수다/-우다’가 호응한다.

- (43) ㄱ. 너도 집더레 왔디아?(너도 집으로 오고 있느냐? - 오느냐?)
 ㄴ. 으, 나도 집더레 왔져.(그래, 나도 집으로 오고 있다. - 온다.)
 ㄷ. 너도 집더레 음이니?(너도 집으로 오고 있느냐? - 오느냐?)
 ㄹ. 으, 나도 집더레 왔져.(그래, 나도 집으로 오고 있다. - 온다.)

(43)에서 ‘왔디아, 음이니’의 ‘-آمد-, -(으)미-’도 현재 시제나 상으로 볼 수 있다. 현재의 폭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제나 상으로 다르게 볼 수 있다.

② 종결 어미로 표현되는 현재 시제

- (44) ㄱ. 이 고장은 곳지 아니흐연 고우냐?(이 꽃은 곳지 않아서 고우냐?)
 ㄴ. 으, 이 고장은 곳지 아니흐연 곱다.(그래, 이 꽃은 곳지 않아서 곱다.)

(44)에서 형용사 어간 ‘곱-’에 ‘-(으)냐’가 바로 결합했고, ‘흐연’의 때소 ‘-ㄴ’과 호응한다. 이는 화자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실’을 단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 (45) ㄱ. 그 고장이 고우냐 보라.(그 꽃이 고우냐 보아라.)
 ㄴ. 으, 그 고장은 보난 곱다.(그래, 그 꽃은 보니까 곱다.)

(45)에서는 ‘굽다’가 ‘보는 순간 고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뜻으로 ‘-다’가 쓰였다. 이는 현재 시제로 볼 수 있다.

- (46) ㄱ. 이건 책이냐, 보라.(이건 책이냐, 보아라.)
- ㄴ. 으, 이건 책이어/책이다.(그래, 이건 책이다.)

(46)은 서술격 조사 어간에 ‘-(으)냐, -어/-다’가 바로 결합되었는데, 화자가 ‘직접 보고서 확인한 사실’을 나타내고 있다.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이다.

- (47) ㄱ. 저것도 췌냐 보라.(저것도 소인가 보아라.)
- ㄴ. 으, 저건 보난 췌여/췌다.(그래, 저건 보니까 소다.)

(47)에서도 ‘보는 순간 소임을 확인’하고 하는 말이어서 어미 ‘-다’가 현재 시제이다. 그러니까 제ڑ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서는 종결 어미 ‘-다/저’가 현재 시제로 쓰인다고 할 수 있다.

③ 관형사형 어미로 표현되는 현재 시제

동사에서 관형사형 어미로 전성하는 현상을 보자.

- (48) ㄱ. 사람이 갈 거여.(사람이 갈 거다.) ⇒ 갈 사람
- ㄴ. 사람이 간다.(사람이 간다.) ⇒ 가는¹ 사람
- ㄷ. 사람이 갔저.(사람이 간다. - 가고 있다.) ⇒ 가는² 사람
- ㄹ. 사람이 갔저.(사람이 갔다.) ⇒ 간 사람

(48)은 제ڑ말 동사에서 관형사형 어미로 전성한 것이다. 표준어에는 ‘갔저’가 없다. 그래서 표준어에서는 ‘가는’과 ‘간’만 있다. 그러나

제주말에서는 ‘값저’가 있어서 ‘가는’을 ‘가는¹’과 ‘가는²’로 나누는 것이다. 표준어 ‘가는’은 그 하나로 ‘간다’와 ‘값저’에서 전성된 ‘가는¹⁻²’의 기능이나 의미를 다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주말은 ‘간다’와 ‘값저’를 관형사형 어미로 전성시키면 같은 ‘가는’으로 돌이 된다. 제주말에서는 ‘간다’와 ‘값저’가 같은 뜻이 아니기 때문에 ‘간다’는 ‘-는¹’, ‘값저’는 ‘-는²’로 전성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로 ‘-는²’가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다.

뜻풀이를 하면, ‘가는¹ 사람’은 꼭 현재 ‘가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다. 언제든 그런 조건이나 가정에서는 ‘갔었거나 갈 수 있는 사람’의 뜻이다. 그러니까 사건시와 발화시의 선후 관계를 가릴 수가 없다. ‘가는² 사람’은 앞에서 ‘값저’가 현재 시제로 보았는데, 그것은 거기에서 전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먹영 가는¹ 사람’과 ‘먹언 가는² 사람’은 때소와의 호응도 다르다.

(49) ㄱ. 오늘은 날이 돛나.(오늘은 날씨가 *따뜻한다.)

⇒ 오늘은 돛는¹ 날이어.

ㄴ. 오늘은 날이 돛암저.(오늘은 날씨가 따뜻하게 변하고 있다.)

⇒ 오늘은 돛는² 날이어.

ㄷ. 오늘은 날이 돛다.(오늘은 날씨가 따뜻하다.)

⇒ 오늘은 돛은¹ 날이어.

ㄹ. 오늘은 날이 돛앗저.(오늘은 날씨가 따뜻했다.)

⇒ 오늘은 돛은² 날이어.

(49)에서 형용사 ‘돛는¹ 날’이나 ‘따뜻한다’는 표준어에는 안 쓰인다. ‘돛는¹ 날’은 ‘따뜻했었거나 따뜻할 수 있는 어느 날’의 뜻이다. ‘돛는² 날’은 ‘돛았저’에서 된 것으로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로 볼 수 있다.

또 ‘뚫은¹ 날’은 ‘뚫다’에서 전성된 것으로 ‘오늘 현재 따듯한 날’이어서 관형사형 어미 ‘-(으)ㄴ¹’이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이다. 그리고 ‘뚫은² 날’의 ‘-(으)ㄴ²’는 과거 시제이다. 다만 ‘뚫았저’가 ‘뚫았는’이나 ‘뚫았은’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 ‘뚫은²’로 한 것이다.

형용사에 쓰이는 관형사형 어미는 ‘-는¹’만 때소 ‘-ㅇ’과 호응하고, ‘-는²’와 ‘-(으)ㄴ¹⁻²’는 때소 ‘-ㄴ’과 호응한다.

④ 시간 부사어로 표현되는 현재 시제

- (50) ㄱ. 이디 시라. 어멍 곧 온다.(여기 있어라. 엄마가 곧 온다.)
 ㄴ. 자인 이제사 왔저.(저 애는 지금에야 온다.)
 ㄷ. 오늘은 뜯다.(오늘은 따듯하다.)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는 ‘곧, 이제, 오늘’ 따위가 쓰인다. 그런데 제줏말에서 ‘-느냐, -는다’를 현재 시제로 볼 수 없다.

제줏말에서는 ‘-느냐 : -는다’는 용언 어간과 서술격 조사 어간에 모두 결합된다. ‘-(으)냐 : -다/-저’는 형용사 어간, 서술격 조사 어간에는 결합되나 동사 어간에는 결합되지 못한다. 그래서 ‘-느-’나 ‘-는-’이 있는 것과 ‘-느-’나 ‘-는-’이 없는 것이 대립된다.

표준어에서는 ‘-느냐’와 ‘-(으)냐’를 변이형태로 보기 때문에 ‘-느-, -는-’ 대립이 성립되지 않는다. 그러나 제줏말에서는 이 어미들이 대립되는 별개의 형태소들이다.

높임법에서도 ‘-(으)비네/니까-, -(으)비네/니다’는 용언 어간과 서술격 조사 어간에 결합된다. ‘-수가/우파’나 ‘-수다/우다’는 ‘-(으)냐, -다/-저’와 같이 형용사 어간, 서술격 조사 어간에는 결합되나 동사 어간에는 결합되지 못한다. 이들도 ‘-네-/니-’가 있는 것과 ‘-네-/

니-'가 없는 것이 대립된다. 표준어에는 '-습니까, -습니다'에 대립되는 높임법 어미가 없다.

'-느-'나 '-는-', '-네-'가 있는 것은 화자가 이미 알고 있거나, 그 알고 있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추정한 사실'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대로 '-느-'나 '-는-', '-네-'가 없는 것은 화자가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안 사실'을 나타낸다. 그래서 제춧말 특유의 때소 '-오, -ㄴ'과 호응하면서 쓰인다. 그만큼 제춧말의 시제나 상은 복잡한 짜임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현재 시제가 더 복잡하다.

(51) ㄱ. 그 구들은 굴뚝 진으민 얼당도 ~~뵈~~느냐?(그 방은 불을 때면
춡다가도 *따뜻하느냐?)

ㄴ. 으, 그 구들은 굴뚝 진으민 얼당도 ~~뵈~~나.(그래, 그 방은 불을
때면 춡다가도 *따뜻한다.)

(51)은 형용사 어미 활용이다. 표준어에서는 '*따뜻하느냐 - *따뜻한다'로 '-느냐, -는다/-ㄴ다'가 쓰이지 않는다. 제춧말에서는 형용사에서도 '-뵈느냐, 뵈나/뵈는다'가 쓰인다. '얼당도 뵈나'는 '불을 때는 조건만 주어진다면' '따뜻하게 된다'는 뜻으로 쓰였다. '-느냐, -는다'는 언제든 때소 '-오'과만 호응한다.

(52) ㄱ. 저런 것도 개이느냐?(저런 것도 *개이느냐?)

ㄴ. 으, 저런 것도 개인다.(그래, 저런 것도 *개인다.)

(52)에서는 서술격 조사 어간의 어미 활용이다. 표준어에서는 '개이느냐 - 개인다'의 '-느냐, -는다/-ㄴ다'가 쓰이지 않는다. '개인다'는 화자가 이미 확실하게 알고 있는 것을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

(53) ㄱ. 철순 나갔당 멧질 땐 집이 오느냐?(철순 나갔다가 멧질 때는 집에 오느냐?)

ㄴ. 으, 나갔당도 그땐 온다.(그래, 나갔다가도 그땐 온다.)

(53)에서는 ‘철수가 나갔다가 돌아 오는 것은 어느 특정한 때만 있는 일이다. 여러 해를 그렇게 해 오고 있다. 그러니까 ‘오느냐’나 ‘온다’는 표준어 ‘-느냐’나 ‘-는다’와는 다른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3말에 쓰이는 ‘-느냐, -는다’는 현재 시제로 보기 어렵다. 그렇지만 표준어에 익숙한 세대들은 현재 시제로 보려 할지도 모른다.

(54) ㄱ. 철순 나갔당 멧질 땐 집이 옵네까/옵니까?(철순 나갔다가 멧질 때는 집에 옵니까?)

ㄴ. 예, 나갔당도 그땐 옵네다/옵니다.(예, 나갔다가도 그땐 옵니다.)

(54)에는 높임법으로 ‘옵네까, 옵네다’가 쓰였는데, ‘-(으)브네까, -(으)브네다’도 현재 시제로 보기는 어렵다. 그것은 ‘-느냐, -는다’와 같이 특정한 때만 ‘오-’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느냐, -(으)브네까’가 1인칭 주어에 쓰였을 때는 대답이 명령법이 되는 점에서도 현재 시제로 보기 어렵다.

3.3.3 미래 시제

미래 시제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나타난다. 미래 시제는 주로 선어말 어미 ‘-겠-’과 ‘-(으)리-’에 의해 표현되고, 관형사형 어미 ‘-(으)ㄹ’과 의존 명사 ‘것’이 결합된 ‘-(으)ㄹ 것’으로도 표현된다. ‘내일’과 같은 시간 부사어로 미래 시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55) ㄱ. 내일 가겠습니다.

ㄴ. 내일이면 물건을 받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ㄷ. 영수는 떠날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라.

제ڑ말에서도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어미로는 선어말 어미 ‘-(으)커-, -(으)르디-, -(으)르로-’나, 관형사형 어미 ‘-(으)르’ 또는 ‘-(으)리’ 과 의존 명사 ‘것/거’가 같이 쓰인 형태로 나타낸다. 그리고 시간 부사어 ‘닐, 잇당’으로도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① 선어말 어미로 표현되는 미래 시제

(56) ㄱ. 느도 훅교 갈디아?(너도 학교 가겠느냐?)

ㄴ. 으, 나도 훅교 가키어.(그래, 나도 학교 가겠다.)

(56)에서 ‘갈디아’나 ‘가키어’의 선어말 어미 ‘-(으)르디-, -(으)르-’ 에는 표준어 ‘-겠-’의 뜻이 있다. 이들은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뒤에 나타난다. 그래서 선어말 어미 ‘-(으)르디-’와 ‘-(으)르-’가 미래 시제를 나타낸다. ‘-(으)르디-’의 변이형태로 ‘-(으)르티-’/‘-(으)르지-’도 있다.

‘-(으)르디’를 관형사형 ‘-(으)리’과 ‘ㄷ+ㅣ’로 분리하지 않는 것은, ‘-(으)르디-’가 2인칭에만 쓰이고, 대응되는 뜻이 ‘-겠-’이므로 선어말 어미로 보았다.

(57) ㄱ. 느도 밥 먹영 훅교 갈디아?(너도 밥을 먹고서 학교 가겠느냐?)

ㄴ. 으, 나도 밥 먹영 훅교 가키어.(그래, 나도 밥을 먹고서 학교 가겠다.)

(57)은 겹문장으로 ‘먹영 갈디아, 먹영 가키어’에서 ‘먹영’의 때소

‘-오’과 ‘-(으)르디-, -(으)크-’가 호응하고 있다. 때소 ‘-오’은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모든 어미들과 호응하면서 쓰인다. 이 호응이 어긋나면 바른 쓰임이 되지 못한다.

때소 ‘-오’도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것으로 보아 미래 시제로 보기도 한다. 그러나 ‘-느냐, -니다’와 호응하거나 ‘-앗-’과 같이 쓰이는 점에서 미래 시제로 보기가 어렵다.

- (58) ㄱ. 닐 부산 갓당 오쿠가?(내일 부산 갔다가 오겠습니까?)
 ㄴ. 예, 부산 갓당 오쿠다.(예, 부산 갔다가 오겠습니다.)

(58)을 보면 높임법에서도 미래 시제 ‘-(으)크-’가 쓰였는데 때소 ‘-오’과 호응하고 있다.

- (59) ㄱ. 는 부산 갓당 닐 올티아.(너는 부산 갔다가 내일 오겠느냐?)
 ㄴ. 으, 부산 갓당 올로고.(그래, 부산 갔다가 오겠네.)

(59)에서는 ‘올티아, 올로고’에도 선어말 어미 ‘-(으)르티-, -(으)르-’가 미래 시제로 쓰였다. 이들은 때소 ‘-오’과 호응하고 있다. 특히 ‘-(으)르로고’는 억양에 따라 물음과 대답으로 나뉘는 어미이다.

- (60) ㄱ. 너미 튀당 다치리어.(너무 나대다가 다칠까 저어한다.)

(60)에서 ‘-(으)리-’가 화자의 ‘걱정’이나 ‘추정’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어서 미래 시제로는 볼 수 없다. 또한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늦거나 이르다고 할 수도 없다. 이때도 ‘-(으)리-’와 때소 ‘-오’이 호응한다.

② 관형사형 어미로 표현되는 미래 시제

- (61) ㄱ. 는 널 집더래 올 것가?(너는 내일 집으로 올 거냐?)
 ㄴ. 으, 널 집더래 갈 거여?(그래, 내일 집으로 갈 거다.)

(61)은 관형사형 어미 ‘-(으)ㄹ’에 ‘것’이 같이 쓰여 미래 시제로 쓰인 것이다.

- (62) ㄱ. 널 부산 갖당 올 거우파?(내일 부산 갔다가 올 겁니까?)
 ㄴ. 예, 널 부산 갖당 올 거우다.(예, 내일 부산 갔다가 올 겁니다.)

(62)는 높임법 ‘-우파, -우다’가 ‘-(으)ㄹ 거’와 같이 쓰여 미래 시제로 쓰임을 보인 것이다. 높임의 등급이 다르더라도 변동이 없다.

- (63) ㄱ. 갔단 왓쟁 글을 거여.(갔다가 왔다고 말할 것이다.)

(63)은 인용문에 쓰인 미래 시제와 때소의 호응을 보인 것이다. ‘왓쟁’의 때소 ‘-ㅇ’과 ‘글을’에 쓰인 미래 시제 ‘-(으)ㄹ’과 호응하고 있다.

③ 시간 부사어로 표현되는 미래 시제

- (64) ㄱ. 늘랑 잇당/잇당 오라.(너는 있다가 와라.)
 ㄴ. 그걸랑 나중에 허라.(그것일랑 나중에 해라.)

시간 부사어로는 ‘잇당, 나중에, 널’ 따위가 미래 시제로 쓰인다.

3.3.4 상

상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이 일어나는 모습을 표현한다. 그렇

기 때문에 동작상이라고도 한다. 주로 상을 진행상, 완료상, 예정상 등으로 구분한다. 표준어에서는 보조 용언을 사용하여 표현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어 버리다, -어 두다’가 완료상, ‘-고 있다, -어 가다’가 진행상이다.

그런데 제주말에서는 보조 용언이나 선어말 어미로 상을 나타내는 점도 표준어와 다르다. 특히 이 선어말 어미들은 같이 쓰이는 동사에 따라 시제와 상이 갈리기도 해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선어말 어미로는 ‘-암시-/~않-’나 ‘-(으)미-, -엄디-’로 진행상을, ‘-아시-/~앗-, ’-안디-/~언디-’로 완료상을 나타낸다. 다만, ‘-엄디-, -(으)미-’와 대립되는 상을 하나 더 넣는다면 ‘-(으)르디-’나 ‘-(으)커-’를 넣어 ‘예정상’으로 할 수도 있다.

또 보조 용언으로는 ‘-어 가-’로 진행상을, ‘-어 불-/~어 비-’로 완료상을 나타낸다.

① 진행상

먼저 선어말 어미로 나타내는 진행상을 살펴본다. 제주말에서는 진행상은 선어말 어미 ‘-않-/~암시-’나 ‘-(으)미-’, ‘-엄디-/~암디-’로 나타낸다.

- (65) ㄱ. 이제사 밥을 먹엄시냐? - 먹없저.(이제야 밥을 먹고 있느냐?
- 먹고 있다.)
- ㄴ. 옷이 몰랐저.(옷이 마르고 있다. - 말라 간다.)
- ㄷ. 이제사 밥을 먹음이니? - 먹없저.(이제야 밥을 먹고 있느냐?
- 먹고 있다.)
- ㄹ. 밥 먹엄디야? - 먹없저.(밥을 먹고 있느냐? - 먹고 있다.)

제쫓말에서는 진행상인 ‘-고 있-’의 뜻으로는 (65)에서와 같이 거의 ‘-엄시-’나 ‘-(으)ㅁ이-, -엄디-’로 나타낸다. 젊은 세대들은 ‘-고 있-’도 많이 쓴다. 그리고 ‘-(으)ㅁ이-, -엄디-’는 2인칭 주어와 동사에만 결합하는 제약이 있다.

다만, ‘-암시-/-았-’은 상으로 쓰였을 때는 뜻으로 보아서 주로 ‘-고 있-’에 대응된다. 그러나 시제로 볼 수 있을 때도 있어 이들을 상이나 시제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 (66) ㄱ. 이제사 완 밥을 먹음이니?(이제야 와서 밥을 먹고 있느냐?)
 ㄴ. 완 밥 먹엄디야?(와서 밥을 먹고 있느냐?)

(66)에서 ‘완 먹음이니’와 ‘완 먹엄디아’에서 ‘완’의 때소 ‘-ㄴ’과 ‘-(으)니’와 ‘-야’가 호응하고 있다. 다만 ‘-(으)ㅁ이-’나 ‘-엄디-’와는 호응하지 않는다.

- (67) ㄱ. 철순 이제도 잠이니?(철순 이제도 자고 있느냐?)
 ㄴ. 철순 이제도 잠시냐?(철순 이제도 자고 있는가? - 자는가?)
 ㄷ. 는 이제도 그걸 보암디아?(넌 이제도 그걸 보고 있느냐?)

(67)에서 ‘이제도’와 같이 쓰인 ‘-(으)ㅁ이-, -엄디-, -암시-’들은 진행상으로만 쓰인다.

- (68) ㄱ. 바깥은 듯단 얼엄시냐?¹²⁾ - 얼어시냐?(따뜻하다가 춥고 있느냐? - 추워지고 있느냐? - 추웠느냐?)

12) 제쫓말에서는 형용사도 동사처럼 쓰인다. ‘얼엄시냐’는 제쫓말 형용사에 ‘-암시-/-엄시-’가 쓰인 것인데 표준어로 풀이가 되지 않으니까 ‘추워지고 있느냐’로 풀기도 하는데 이때는 품사가 바뀌게 된다.

ㄴ. 으, 바깥은 텃단 얼었저. - 얼었저.(따뜻하다가 춥고 있다. - 추워지고 있다. - 추웠다.)

(68)에서 보면 ‘얼-(춥-)’에 ‘-엄시-, -어시-’가 상으로 쓰였다.

동사에서는 ‘-았-/~았시-’에 ‘잘도’가 같이 쓰이면 거의 진행상이 된다. ‘잘도 싸웠저, 잘도 먹었저, 걸었저’ 따위에서는 ‘싸우고 있다. 먹고 있다, 걷고 있다’ 따위의 뜻이 된다.

보조 용언으로 진행상을 나타낼 때도 있다. ‘-어/-아 가’가 주로 쓰인다.

(69) 먹어 가라.(먹어 가거라.), 텃아 가난(따뜻해 가니까)

(69)에서 ‘먹어 가라’나 ‘텃아 가난’은 보조 용언으로 진행상이 된 것이다.

(70) ㄱ. 먹어 감시라.(먹어 가고 있거라.)

가 이서시라.(가 있었거라.)

ㄴ. 누워 잇었저.(누워 있다.)¹³⁾

먹어 불었저.(먹어 버리고 있다.)

(70)은 상이 겹쳐 있다. ‘먹어 감시라’의 ‘먹어 가-’가 진행상, ‘먹어 감시-’가 ‘진행상+진행상’, ‘가 잇-’의 완료상으로 되었다. ‘가 이서시라’의 ‘가 잇-/이시-’가 완료상, ‘-아 이시+어시-’가 완료상+완료상으로 겹쳐 있어 상 표현도 복잡한 양상을 띤다.

13) ‘가 이서시라.’, ‘나 누워 잇었저.’는 표준어로 풀이가 어렵다.

② 완료상

먼저 선어말 어미로 나타내는 완료상을 살펴본다. 제2말에서 완료상은 선어말 어미 ‘-아시-/-앗-, ’-안디-/-언디-’로 나타낸다.

(71) ㄱ. 철순 방에 앉아서냐?(철수가 방에 앉아 있느냐?)

ㄴ. 으, 철순 방에 앉았저.(그래, 철수가 방에 앉아 있다.)

(71)에서는 ‘앉아서냐 - 앉았저’에서 ‘-아시-/-앗-’이 완료상으로 쓰였다. ‘-아시-/-앗-’이 과거 시제로 쓰일 때도 있다. 이 둘을 잘 구분해야 한다. ‘-앗-/-아시-’가 동사 ‘앉다, 사다(서다), 눕다, 살다’ 따위에 쓰였을 때는 완료상이다.

(72) ㄱ. 늘랑 재계 왕 밥이라도 먹어시라.(너는 빨리 와서 밥이라도 먹었거라.)

ㄴ. 늘랑 재계 왕 밥이라도 먹었거라.(너는 빨리 와서 밥이라도 먹었거라.)

(72)는 ‘-어시-’에 ‘-(으)라’, ‘-엇-’에 ‘-거라’가 쓰여서 명령문이 되었다. 이처럼 ‘-어시-’에 명령형 어미가 붙으면 ‘-어시-, -앗-’은 완료상이 된다.

또한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도 선어말 어미 ‘-앗-’이 쓰일 때가 있다.

(73) ㄱ. 느 양진 막 고왔저.(너 얼굴은 아주 고운 상태이다. - 상태로 있다.)

ㄴ. 나도 흑생이랏저.(나도 학생이였었다.)

(73)에서 ‘막 고왔저’는 ‘고운 상태이다 - 상태로 있다’의 뜻으로 완

료상으로 볼 수 있다. 서술격 조사에 쓰인 ‘-랏-’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 ‘-었었-’으로만 쓰여서 완료상으로 볼 수는 없다.

<참고>

표준어에서는 ‘신을 신고 있다’의 ‘-고 있다’가 중의적으로 쓰이지만, 제춧 말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

‘신을 신었저.’는 ‘신을 신고 있는 동작’의 진행상이고, ‘신을 신었저’는 완료상이다. 다만, 제춧말 ‘신었저’를 표준어에서는 ‘신고 있다’와 ‘신이 있다’와 같이 둘로 풀이할 수 있는 데서 나오는 현상으로 보인다.

보조 용언으로 완료상을 나타낼 때는 동사에만 쓰인다.

(74) ㄱ. 누워 있저.(누워 있다.), 먹어 불라.(먹어 버려라.)

‘누워 있저, 먹어 불라’의 ‘-어 잇-’과 ‘-어 불-’은 완료상으로 쓰였다.

(75) ㄱ. 먹어 가시라.(먹어 가야 있거라.)
가 이서시라.(가 있었거라.)
ㄴ. 누워 잇었저.(누워 있었다.)
먹어 불었저.(먹어 버렸다.)

(75)에는 상이 겹쳐 있다. ‘먹어 가시라’의 ‘먹어 가-’가 진행상, ‘가(아)시-’는 완료상, ‘누워 잇-’은 완료상, ‘-었-’은 다시 완료상이 겹쳐져 있다. 상도 쓰임이 복잡한 양상을 띤다.

3.4 높임 표현

3.4.1 종류

높임법이란 말을 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 혹은 문장에 나타나는 성분들과의 사회적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이 사회적 관계는 나이, 신분, 지위, 친밀도, 격식성, 상대에 대한 대우 같은 요소들에 의해 결정된다. 높임법은 ‘하르바님’, ‘아바님’, ‘어머님’, ‘성님’처럼 접사 ‘-님’을 붙여서 표시하는 방법도 있고, 특수한 단어로 높이는 방법도 있으며, 보조사나 어미로 표시하는 방법도 있다. 어미로 대상에 대한 높임 여부를 표시하는 경우는 높이는 대상에 따라서 상대 높임법,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대화에 나타나는 주체와의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표준어에서는 보통 주격 조사 ‘-이/가’ 대신 ‘께서’를 사용하거나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으)시-’를 붙여서 나타내지만, 제주말에서는 이러한 표현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표준어에서는 ‘계시다’, ‘잡숫다/잡수시다’ 등 특수한 단어를 통해 나타내기도 하는데, 제주말에서는 ‘자시다’ (잡숫다) 정도의 특수한 단어가 이러한 용법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객체 높임법은 말하는 사람이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와의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표준어에서는 보통 ‘모시다’, ‘뵙다’, ‘여쭙다’ 등처럼 특수한 단어를 통해 나타내고, 부사어에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할 때도 있다. 그러나 제주말은 조사를 바꾸는 객체 높임법은 사용되지 않고, ‘모스다(모시다)’, ‘올리다’, ‘안넌다(드리다)’ 등 용언을 통해서만 객체 높임법이 실현된다. 아래의 예에서는 각각 ‘하르바님’(할아버지), ‘제물’,

‘아방’(아버지)을 높이고 있다. 객체가 높임의 대상이 아니라면 ‘모상’(모시고), ‘올릴’, ‘안네라’(드려라) 대신에 ‘돌양’(데리고), ‘놀’(놓을), ‘주라’(쥐라)가 쓰였을 것이다.

강 하르바님 모상 오라.(가서 할아버지 모시고 와라.)
이건 상이 올릴 제물이여.(이건 상에 올릴 제물이네.)
이거 아방신디 안네라.(이걸 아버지께 드려라.)

제주말에서는 높임법이 주로 상대 높임법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를 생각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또한 그 방법은 문장을 끝맺는 종결 어미와 결합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보조사의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종결 어미로는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이 있는데, 감탄형 어미는 높임법과 결합하여 나타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이 상대 높임법을 좀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3.4.2 흡서체

흡서체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여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혹은 높이거나 낮출 필요는 없더라도 친밀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 말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른한테 말할 때, 집안에서 향렬이 위인 사람한테 말할 때, 잘 모르는 어른들끼리 말할 때 이 흡서체를 사용한다.

이 흡서체는 항상 다른 어미 앞에 나타나야 하는 선어말 어미 ‘-으우-/-우-’, ‘-수-’, ‘-읍-/-ㅂ-’으로 표시된다. 이들은 나타나는 환경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고, 중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먼저 나타나는

환경과 어미들을 표로 보이면 아래와 같다. 표에서 동그라미는 그 환경에서 해당 어미가 사용된다는 것을 뜻하고, 음영은 사용되지 않음을 뜻한다.

환경			어미					
			-읍-	-ㅂ-	-으우-	-우-	-수-	
어 간 뒤	동 사	자음 뒤	○					
		ㄹ, 모음 뒤			○			
	형 용 사	ㄹ 뒤			○			
		ㅅ 뒤	○				○	
		기타 자음 뒤	○			○	○	
		모음 뒤			○	○		
서술격 조사					○			
어 미 뒤	-으크- 뒤					○		
	-엇-/-앗- 뒤							
	-없-/-않- 뒤							

먼저 ‘-읍-/-ㅂ-’은 동사와 형용사의 어간 뒤에 쓰인다. 이 중에서 ‘-읍-’은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서 나타나고 ‘-ㅂ-’은 ㄹ과 모음 뒤에서 나타난다. 다음은 그러한 예들로, 위의 세 개는 동사의 예이고, 아래의 네 개는 형용사의 예이다. ‘-네다’도 ‘-네-’와 ‘-다’로 형태소 분석을 할 수 있지만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하여 분석하지 않는다.

- 업-+-읍-+-네다 → 업읍네다(업습니다)
- 놀-+-ㅂ-+-네다 → 놀네다(놀니다)
- 보-+-ㅂ-+-네다 → 볼네다(봅니다)

좁-+-읍-+-네다 → 좁읍네다(좁습니다)
 엇-+-읍-+-네다 → 엇읍네다(없습니다)
 멀-+-ㅁ-+-네다 → 멀네다(맵니다)
 시-+-ㅁ-+-네다 → 십네다((맞이)십니다)

다음에 ‘-으우-’와 ‘-우-’와 ‘-수-’는 형용사 어간과 서술격 조사 ‘이-’ 뒤, 혹은 어미 뒤에만 온다. 즉 이러한 어미들은 동사 어간 뒤에는 연결되지 않는다. 이 중에서 ‘-으우-’는 ㄹ, ㅅ 이외의 자음 뒤에만 나타나는데, ‘-수-’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나타날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똑같이 흡서체의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나 ‘-우-’는 ㄹ과 모음 뒤에 나타나고 ‘-수-’는 ㄹ을 제외한 자음 뒤에만 나타나서 출현 환경이 중복되지 않는다.

좁-+-으우-+-다 → 좁으우다(좁습니다)

좁-+-수-+-다 → 좁수다(좁습니다)
 엇-+-수-+-다 → 엇수다(없습니다)

멀-+-우-+-다 → 머우다(맵니다)
 시-+-우-+-다 → 시우다(십니다)
 사름이-+-우-+-다 → 사름이우다(사람입니다)

위의 예들은 형용사 어간과 서술격 조사에 흡서체 선어말 어미가 직접 연결된 것들이다. 여기에서 ‘좁으우다’와 ‘좁수다’는 의미 차이 없이 그대로 사용된다. 한편 이 어형들과 앞서 언급했던 ‘-읍-/-ㅁ-’이 결합된 ‘좁읍네다’(좁습니다)는 높임법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같지만,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이 사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잡-+-으크-+-우-+-다 → 잡으쿠다(잡겠습니다)
 업-+-으크-+-우-+-다 → 업으쿠다(업겠습니다)
 줍-+-으크-+-우-+-다 → 줍으쿠다(줍겠습니다)
 엇-+-으크-+-우-+-다 → 엇이쿠다(없겠습니다)
 멀-+-크-+-우-+-다 → 멀쿠다(멀겠습니다)
 시-+-크-+-우-+-다 → 시쿠다(시겠습니다)
 사람이-+-크-+-우-+-다 → 사람이쿠다(사람이겠습니다)
 업-+-엇-+-수-+-다 → 업엇수다(업었습니다)
 잡-+-앗-+-수-+-다 → 잡앗수다(잡았습니다)
 업-+-없-+-수-+-다 → 업없수다(업고 있습니다)
 잡-+-않-+-수-+-다 → 잡않수다(잡고 있습니다)

위의 예들은 선어말 어미 뒤에 상대 높임법 어미들이 연결된 것들이다.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크-’ 앞에 오는 어간의 종류와는 관계없이 모두 그 뒤에 ‘-우-’가 연결되고, 완료 시상과 미완료 시상을 나타내는 ‘-엇-’과 ‘-않-’ 뒤에는 모두 ‘-수-’가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출현 환경 역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으크-’가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우-’가 사용되고, ‘-엇-’과 ‘-않-’이 ㄹ이 아닌 자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뒤에 ‘-수-’가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3.4.3 ㅎ여체

ㅎ여체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높이거나 낮출 필요가 없으면서 친밀하다고 생각할 때 사용한다. 예를 들면 친한 동료들끼리, 남편이 아내에게, 성년이 된 제자에게 선생이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ㅎ여체는 표준어라면 하계체를 쓰는 사람에게도 쓰고 하오체를 쓰는 사

람에게도 쓸 수 있다. 이 ㅎ여체는 흡서체와는 달리 서법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와 함께 표현된다. 아래는 각각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의 예들로서, 종결 어미 ‘-네’, ‘-는가’, ‘-어’, ‘-주’가 어간 바로 뒤에 사용되었다.

보리밥도 먹네.(보리밥도 먹네/먹으오.)
보리밥도 먹는가?(보리밥도 먹는가/먹으오?)
보리밥도 먹어.(보리밥도 먹게/먹으오.)
보리밥도 먹주.(보리밥도 먹세/먹읍시다.)

어간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선행 어미에 따라서 위의 형태와 다른 어미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높아(높네/높으오)
나여(나네/나요)
먹으키여(먹겠네/먹겠소)
값어(가고 있네/있소)
먹엇어(먹었네/먹었소)

위의 예들은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뒤,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크-’ 뒤, 완료 시상과 미완료 시상을 나타내는 ‘-없-/-않-’과 ‘-엇-/-앗-’ 뒤에 ㅎ여체 평서법 어미가 연결된 것들이다. 이 예들을 보면 이러한 환경에서는 ㅎ여체 어미가 ‘-어-/-아-’임을 알 수 있다.

말이라, 보말이라?(말인가/말이오, 고등인가/고등이오?)
먹으권가~먹으커라?(먹겠는가/먹겠소?)
먹없언가?(먹고 있는가/있소?)

먹었는가?(먹었는가/먹었소?)

보안가?(보았는가/보았소?)

위의 예들은 서술격 조사 뒤, 선어말 어미 ‘-으크-’ 뒤, 완료 시상과 미완료 시상을 나타내는 ‘-없-/-았-’과 ‘-엇-/-앗-’ 뒤에 하역체 의문법 어미가 연결된 것들이다. 이 예들을 보면 하역체 의문법 어미가 서술격 조사 뒤에서는 ‘라’로 나타나고 ‘-으크-’, ‘-없-/-았-’과 ‘-엇-/-앗-’ 뒤에서는 ‘-인가/-안가’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으크-’ 뒤에서는 그것이 ‘-라’로 나타나기도 한다.

3.4.4 하라체

하라체는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을 낮추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생각할 때 사용한다. 말하는 사람이 어른일 때는 듣는 사람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일 때 사용하고, 어른이 아닐 때는 듣는 사람을 낮추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상에는 물론 특별히 높이거나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대상에게도 사용한다.

하라체도 하역체와 마찬가지로 서법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와 함께 표현된다. 아래는 각각 평서법, 의문법, 명령법, 청유법의 예들로서, 종결 어미 ‘-나’, ‘-냐’, ‘-으라’, ‘-자’가 사용되었다. 아래의 예에서 청유법의 ‘먹자’와 ‘먹게’는 과거에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은 아무런 의미 차이가 없이 사용된다.

보리밥도 먹나.(보리밥도 먹는다.)

보리밥도 먹나?(보리밥도 먹느냐?)

보리밥도 먹으라.(보리밥도 먹어라.)

보리밥도 먹자~먹게.(보리밥도 먹자.)

ㅎ라체도 ㅎ여체와 마찬가지로 어간의 종류에 따라서 혹은 선행 어미에 따라서 위의 형태와 다른 어미들이 사용되기도 한다.

간다(간다)
나라(나야)
먹으크라(먹겠다)
값저(가고 있다)
먹었저(먹었다)
먹어라(먹더라)

위의 예들은 모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과 서술격 조사 뒤, 의지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으크-’ 뒤, 완료 시상과 미완료 시상을 나타내는 ‘-없-/-았-’과 ‘-엇-/-았-’ 뒤, 그리고 회상을 나타내는 ‘-어-/-아-’ 뒤에 ㅎ라체 평서법 어미가 연결된 것들이다. 이 예들을 보면 평서법 어미로 모음 어간 뒤에서는 ‘-ㄴ다’가 쓰이고, 서술격 조사와 ‘-으크-’, ‘-어-/-아-’ 뒤에서는 ‘-라’가 쓰이며, ‘-없-/-았-’과 ‘-엇-/-았-’ 뒤에서는 ‘-저’가 쓰임을 알 수 있다.

말이냐, 보말이냐?(말이냐, 고등이냐?)
먹으크냐?(먹겠느냐?)
먹었이냐~먹었디야~먹었나?(먹고 있느냐?)
먹었이냐~먹었디야~먹었나?(먹었느냐?)
보아냐?(보더냐?)

위의 예들은 서술격 조사 뒤, 선어말 어미 ‘-으크-’ 뒤, 완료 시상과 미완료 시상을 나타내는 ‘-없-/-았-’과 ‘-엇-/-았-’ 뒤 그리고 회상을 나타내는 ‘-어-/-아-’ 뒤에 ㅎ라체 의문법 어미가 연결된 것들이다. 이 예들을 보면 ㅎ라체 의문법 어미가 이러한 환경에서는 기본

적으로 ‘-으냐’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없-/-않-’과 ‘-엇-/-앗-’ 뒤에도 어간 바로 뒤에 붙는 ‘-냐’가 통합되기도 하고, 어간 바로 뒤에 미완료 의문법 어미로 ‘-엄디야’가 붙거나 완료 의문법 어미로 ‘-언디야’가 붙기도 한다. 한편 서술격 조사 없이 “말가, 보말가?”(말이나, 고등이나?)에서처럼 체언 뒤에는 서술격 조사 없이 허라체 의문법 어미 ‘-가’가 바로 연결되기도 한다.

3.4.5 그 외 높임 표현

보조사 ‘마씀’, ‘양’, ‘예’를 덧붙임으로써 흡서체와 거의 비슷한 정도로 상대를 높일 수도 있다.

아래는 이 ‘마씀’이 연결 어미, 대명사, 조사, 부사 뒤에 나타나는 예들이다. 이 예들은 모두 앞의 명령이나 질문에 대한 응답형들인데, ‘마씀’이 뒤에 생략된 요소와 함께 대화 상대를 높이는 기능을 하고 있다.

부릅씨 강 오라.(심부릅 갔다 와라.) 밥 먹영마씀.(밥 먹고요.)
 누게가 감나?(누가 가느냐?) 나마씀.(저요.)
 누게신디 췌나?(누구한테 췌느냐?) 삼춘신디마씀.(삼춘한테요.)
 어떻 경 허여져냐?(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기냥마씀.(그냥요.)

아래는 종결 어미 뒤에 이러한 보조사가 나타나는 예들이다. 이 때의 종결 어미는 주로 허여체이다. 다음 예에서 ‘예’와 ‘양’은 다짐을 뜻하기 때문에 첫째 예와 둘째 예는 화자보다 높은 상대에게 명령하는 뜻이 강하다. 그러나 ‘마씀’에는 그런 뜻이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서의 뜻을 전달하고 있다.

집이 있어예.(집에 있어요.)
집이 있어양.(집에 있어요.)
집이 있어마썸.(집에 있어요.)

3.5 부정 표현

보통 문장은 긍정의 의미로 구성된 긍정문이 있고, 이에 대응되는 부정문이 있다. 긍정문에 부정 부사 ‘아니, 못’과 부정 용언 ‘아니하다(않다), 못하다, 말다’ 등이 쓰여서 부정문이 된다.

제것말 부정문도 표준어 부정문의 통사 구조와 같다. 다만 부정 어휘 엇다(없다), 아니다, 말다 등이 부정 응답으로 쓰이는 점이 표준어와 다르다.

부정문에는 부정 부사가 쓰이는 짧은 부정문과 부정 용언이 쓰이는 긴 부정문이 있다.

3.5.1 짧은 부정문

긍정문에 부정 부사 ‘아니(안), 못’이 쓰이면 짧은 부정문이 된다. ‘아니’는 부정 대상인 용언 앞에 온다. ‘못’은 ‘아니’와 같이 동사 앞에 올 수 있으나 형용사 앞에는 올 수 없는 제약이 있다.

부정 부사 ‘안’은 화자의 의지가 작용할 수 있는 동사와 쓰일 때는 ‘의지 부정’의 의미가 강하지만 일반적으로 단순히 부정의 의미로 쓰인다.

- (76) ㄱ. 난 학교 안 가켜.(나는 학교에 안 가겠다.)
 ㄴ. 느 생각 안 혼다.(네 생각 안 한다.)
 ㄷ. 이 옷 안 곱다.(이 옷 안 곱다.)

(76)에서 부정 부사 ‘안’은 동사와 형용사 앞에 놓인다. 우선 ‘안’은 (76ㄱ, ㄴ)처럼 ‘가다, 하다’와 같은 동사와 어울려 쓰인다. 여기서 화자가 1인칭이므로 부정 부사 ‘안’은 의지부정으로 해석된다. 즉 화자는 ‘학교에 가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현하였고, ‘상대방의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76ㄷ)에서 부정 부사 ‘안’은 형용사 ‘곱다’에 선행하여 단순히 ‘이 옷이 안 고운 상태’를 나타내는 단순부정의 의미로 쓰였다.

(77) ㄱ. *학생이 안 공부한다.

ㄴ. *야인 안 간세한다.(*이 야인 안 게으르다.)

ㄷ. 난 하나도 안 부치럽다.(*난 하나도 안 부끄럽다.)

부정 부사 ‘안’은 다음절 용언 앞에서는 쓰이지 못하는 통사 제약이 있다. (77ㄱ, ㄴ)에서 ‘공부한다’와 ‘간세한다’는 파생어인데, 이때 제2절말도 표준어와 같이 짧은 부정문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런데 (77ㄷ)에서 ‘부치럽다’는 다음절 형용사이지만 부정 부사 ‘안’의 수식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표준어와 다르다.

부정 부사 ‘못’은 후행하는 동사를 부정하는 데는 자유롭게 쓰이나 형용사를 부정할 때는 쓰이지 못한다. 이는 부정 부사 ‘못’에는 ‘능력 부정, 타의부정, 불능’ 등 외부적 요인에 대한 부정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78) ㄱ. 난 글 못 쓴다.(나는 글을 못 쓴다.)

ㄴ. 난 그디 못 가켜.(나는 거기 못 가겠다.)

ㄷ. *가인 못 으망져.(*그 아이는 못 야무지다.)

(78ㄱ, ㄴ)에서 부정 부사 ‘못’은 동사 ‘쓰다, 가다’를 부정할 때는 문장이 성립한다. 그런데 (78ㄷ)처럼 형용사 ‘으망지다’를 부정할 수 없는 통사 제약이 있다.

(78ㄱ)에서 화자인 나는 ‘글을 잘 쓰고 싶지만 배우지 못해서, 눈이 나빠서’ 등 화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적 요인 때문에 쓸 수 없다는 뜻이다. (78ㄴ) 역시 ‘내가 거기 가고 싶은데, 외부적 요인 때문에 갈 수 없다.’는 의미가 들어 있다.

3.5.2 긴 부정문

긍정문을 기준으로 하여 본용언 다음에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가 쓰이면 긴 부정문이 된다. 이때 본용언 어간에 보조적 연결 어미 ‘-지’가 결합되고, 그 뒤에 부정 용언이 온다. 부정 부사 ‘아니, 못’은 후행하는 용언 선택에 제약이 있는데, 부정 용언은 거의 제약 없이 쓰인다.

먼저 부정 용언 ‘아니하다’의 쓰임을 알아보겠다.

(79) ㄱ. 난 이디 살지 아니하키여.(나는 여기 살지 않겠다.)

ㄴ. 날이 어둡지 아니하다.(날이 어둡지 않다.)

(79)를 보면 부정 용언 ‘아니하다’는 동사(살다)와 형용사(어둡다)에 후행하며, 통사 제약이 없다. 이는 부정 부사 ‘아니’의 통사 특징과 같다. 즉 (79ㄱ)은 주어의 의지가 내포된 ‘의지 부정’으로 쓰이고 있는데, 의도의 선어말어미 ‘-으크-’가 있어서 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고, 단순 부정으로 봐도 좋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상관없이 여기에 살기 싫다.”는 뜻이다.

(79ㄴ)은 화자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므로 역시 ‘단순 부정’ ‘아니’의 의미가 있다. 즉 ‘주어의 의지’는 배제되지만 화자의 의사가 조금은 개입될 수 있다는 것은 ‘어두운 정도’에 대한 판단 기준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음은 부정 용언 ‘못하다’의 통사 특징을 알아보겠다.

(80) ㄱ. 난 문 열지 못혀켜.(나는 문을 열지 못하겠다.)

ㄴ. 나 마음이 좋지 못하다.(내 마음이 좋지 못하다.)

ㄷ. *난 아프지 못했져.(*나는 아프지 못했다.)

(80ㄱ, ㄴ)을 보면 부정 용언 ‘못하다’는 동사 ‘열다’나 형용사 ‘좋다’를 부정하고 있다, 이는 부정 부사 ‘못’이 형용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제약을 벗어난 것이다. 반면 (80ㄷ)이 문장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은 부정 용언 ‘못하다’의 통사 제약이 있음을 보여준다.

(80ㄱ)에서 ‘못하다’에는 타의 부정, 능력 부정의 의미가 들어 있다. 또한 의지의 선어말 어미 ‘-으르-’가 있어서 화자의 거부 의지가 반영된 것처럼 여겨진다. (80ㄴ)은 부정 용언이 형용사인 ‘좋다’에 후행하고 있다. 이는 화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이 있어서 좋지 못한 상태를 나타낸다. (80ㄷ)에서 형용사 ‘아프다’는 외부에 원인이 있다고 보는 타의 부정의 부정 용언 ‘못하다’가 쓰이면 문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이는 화자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화자의 능력이나 거부가 반영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의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자연 현상을 뜻하는 형용사는 부정 용언 ‘못하다’와 쓰이지 못한다.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는 동작이나 상태가 없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평서문과 의문문에서만 쓰인다.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쓰이지 못하므로, ‘말다’가 그 자리를 채워준

다. 이때 ‘말다’는 ‘행위금지’의 의미로 쓰인다.

(81) ㄱ. 그런 말 곧지 {말라, *아니하라, *못하라.} (그런 말 말하지 마라.)

ㄴ. 우는 책하지 {말게, *아니하게, *못하게.} (우는 척하지 말자.)

(81)에서 보면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만 쓰이며, 선행 요소로는 동사만 선택한다. 이는 명령, 청유가 청자의 행동을 수반하는 문장이기 때문이다. 평서문과 의문문에 쓰이는 부정 용언 ‘아니하다’, ‘못하다’ 대신 명령문과 청유문에는 ‘말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의 부정 영역에 따른 의미를 알아 보겠다.

(82) ㄱ. 난 자주 안 놀았저.(나는 자주 안 놀았다.)

ㄴ. 난 자주 놀지 아니했저.(나는 자주 놀지 아니했다.)

(82)의 긍정문은 “난 자주 놀았저.”이며, 빈도 부사 ‘자주’가 쓰였지만 두 부정문의 뜻은 같다. 즉 “나는 놀긴 놀았는데, 자주 논 것이 아니고(‘안 논 것이 자주’라는 뜻임) 가끔씩 놀았다.”는 뜻이다. 초점이 ‘난’에 놓이면 ‘나는 자주 안 놀았고, 다른 사람이 자주 놀았다.’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은 한 문장 내에서 부정의 범위가 같은 것이다.

3.5.3 그 외 부정문

일반적으로 부정 부사나 부정 용언이 문장 내에 들어 있고, 부정의

의미가 있는 문장을 부정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부정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긍정의 의미를 지닌 문장이 있다. 이를 ‘이중 부정문’이라고 한다. 즉 예문 (83)은 형식은 부정문이지만 그 의미는 강한 긍정문으로 쓰이고 있다.

- (83) ㄱ. 가인 안 웃지 아니했저.(그 아이는 안 웃지 않았다.)
- ㄴ. 집이 안 가지 못하쿠다.(집에 안 가지 못하겠습니다.)
- ㄷ. 나가 안 갈 수 었수다.(내가 안 갈 수 없습니다.)

(83)에서 이중 부정문의 통사구조는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의 복합 형식을 취하고 있다. 이때 부정 부사의 이중 겹침은 허용하지 않고, 부정 부사가 앞에 오고, 뒤에는 부정 용언이 놓인다. (83ㄷ)에 쓰인 ‘엇다’는 부정 어휘이다.

부정 부사가 쓰여서 부정문의 형식을 띠고 있으나 긍정의 의미를 지닌 의문문이 있다. 이를 ‘확인 의문문’ 또는 ‘부정 아닌 부정문’이라고 부른다.

- (84) 가인 큰 부재 아니파?(그 아이는 큰 부자이지 않습니까?)

(84)는 표면 구조상 부정 의문문이지만 내용은 긍정이다. 화자는 ‘그 아이는 큰 부자다.’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부정 부사 ‘아니’가 쓰여서 주어진 명제를 단언하며 청자에게 확인을 요청하고 있다.

3.5.4 부정 응답 표현

부정문을 만드는 방법은 부정 부사나 부정 용언이 쓰이면 된다. 또

한 부정 어휘인 ‘엇다, 말다’가 쓰이면 부정문이 되는데, 여기서는 제
쫓말 부정 응답 표현의 다양한 쓰임을 살펴보겠다.

① ‘평서 - 응답’에서 부정 어휘의 쓰임

- (85) ㄱ. 이진 죽은 낭이주.(이것은 죽은 나무이다.)
 ㄴ.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85ㄱ)은 “이것은 죽은 나무다.”라는 화자의 단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준어에서는 지정사 ‘이다’의 부정 응답으로 ‘아니다’가 쓰이는데, 제
쫓말에서는 ‘아니다’가 발화될 자리에 ‘엇다’가 발화되고 있다. 즉 “죽
은 나무가 아니다.”라는 뜻으로 ‘엇다’가 쓰였다.

- (86) ㄱ. 가인 무신 뱀 안 들렀수다.(그 아이는 무슨 병에 걸리지 않
 았습니다.)
 ㄴ.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86ㄱ)에서 “그 아이는 어떤 병에도 걸리지 않았다.”라는 발화인데, ‘엇
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여기서도 ‘엇다’는 화자의 말을 부정하고 있다.

평서문에 쓰인 ‘엇다’는 표준어 ‘아니다’에 해당하며 주어진 명제를
부정하고 있다. 따라서 ‘엇다’로 응답할 때에는 응답자의 의지가 분명하
게 반영된다. 이를 ‘아니다’와 비교해 보면 부정 정도에서 화자의 심리
상태가 좀더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본다.

② ‘의문 - 응답’에서 부정 어휘의 쓰임

판정 의문문이 발화된 명제에 대하여 긍정과 부정 중에서 하나의

응답을 요구한다. 설명 의문문은 새로운 정보를 알려 주며 그 물음에 대한 여부를 요구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판정 의문문일 때 부정 응답이 쓰이는 사례를 알아보겠다.

(87) ㄱ. 밥 먹었수과?(진지 드셨습니까?)

ㄴ.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물음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87ㄴ)이 쓰이고 있다. 이때 ‘엇다’(無)와 ‘아니다’(否)는 쓰이지만 ‘말다’(止)는 쓰이지 않는다. ‘말다’는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만 쓰이기 때문에 부정 응답인 경우에도 명제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이어야 한다는 통사상의 제약이 적용되고 있다.

(87ㄱ)에서 청자의 행위 여부에 대한 화자의 질문에 ‘먹지 않았다’라는 답변으로 (87ㄴ)이 실현되었다. ‘엇다’는 존재 동사인데, 부정의 응답으로 사용된 것은 행위의 부재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88) ㄱ. 밥 못 먹었이나?(밥 못 먹었느냐?)

ㄴ.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말다/*마우다.

(88)을 보면 부정 물음에 대한 응답어로 부정 어휘가 쓰였는데, 그 의미는 긍정이다. 부정 물음이든 긍정 물음이든 부정 응답에는 ‘엇다’, ‘아니다’가 쓰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제춧말 화자들은 부정 응답 시 ‘엇다’나 ‘아니다(아녀)’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고 수의적으로 사용한다. 물론 젊은 층에서는 보편적으로 ‘아니다’를 쓰지만 노년층으로 올라갈수록 ‘엇다’와 ‘아니다’를 병행해서 사용한다.

표준어에 비해 제춧말 부정 응답어로 두 어휘가 쓰이는 것은 ‘엇다’

가 ‘아니다’의 의미 영역까지 확대되었음을 뜻한다. 여기서 ‘엇다’는 화자의 질문에 대해서 그 행위에 대한 부정이라 할 수 있다.

③ ‘명령 - 응답’에서 부정 어휘의 쓰임

명령문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청자의 행동이나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명령·요구하는 것이며, 화자 중심의 문장이다. 이에 제3말에서 화자의 청자에 대한 요구 사항에 대한 정보나 반응이 부정 응답으로 실현되는 명령문의 쓰임을 살펴보겠다.

(89) ㄱ. 느 이거 헤 불라.(네가 이것을 해 버려라.)

ㄴ. 말다/마우다,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90) ㄱ. 밤이 불장난헝지 말라.(밤에 불장난하지 마라.)

ㄴ. 말다/마우다, *엇다/*엇수다, *아니/*아니우다.

(89, 90)에서 명령문에 대한 부정 응답으로 ‘말다/마우다’가 선택되는 것은 명령문의 통사 특성과 관계가 있다. 이는 ‘말다’는 명령문이나 청유문에만 쓰인다는 통사 특성이 부정 응답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89ㄴ)에서 부정 응답 ‘말다’에는 “나는 하지 않겠다.”라는 화자의 강한 거부 의지가 들어 있다. (90ㄴ)에는 “밤에 불장난하겠다.”라는 응답자의 의지가 들어 있다.

④ ‘청유 - 응답’에서 부정 어휘의 쓰임

청유문은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행동에 대해서 화자가 청자

에게 같이 행동할 것을 요청·제안하는 청자 중심의 문장이다. 청유 문에서 부정 응답으로 쓰이고 있는 ‘말다’의 특징을 알아보겠다.

- (91) ㄱ. 우리 이디서 쉬엇당 가게.(우리 여기서 쉬었다가 가자.)
 ㄴ. 말다/마우다,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ㄷ. 싫다.

- (92) ㄱ. 비 오난 바당이 가지 말게.(비가 오니 바다에 가지 말자.)
 ㄴ. 말다/마우다,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

(91, 92)에서 보면 부정 응답으로 ‘말다’만이 쓰이고 있다. 판정 의 문문에서는 ‘말다/마우다’가 제외되고, 명령문과 청유문에서는 ‘엇다/엇수다’, ‘아니다/아니우다’가 제외되었다.

(91ㄱ)은 청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화자가 쉬고 싶은 경우 자신의 의사를 제안하고 있다. 응답어 ‘말다’에는 화자의 강한 거부 의지가 드러난다.

표준어인 경우 상대방의 제의를 거절할 때는 ‘아니’가 가능하다. 그런데 응답자 자신의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때는 ‘싫다’가 쓰인다. 이때에는 단순히 화자의 제의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에서는 쉬지 말고, 다른 곳에 가서 쉬자.”라는 제안도 가능하다.

젊은 층으로 내려올수록 제숫말 부정 응답 어휘로는 ‘말다’ 대신에 ‘싫다’ 사용이 늘어나고 있다.

(92ㄱ)에서 화자는 청자에게 ‘바다에 가지 않는’ 행동에 참여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 부정 응답으로 쓰인 ‘말다’는 화자의 제의를 거부, 거절하는 강력한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91ㄴ, 92ㄴ)은 화자의 제의를 거절하는 응답이며, 제

안하는 명제에 대해서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쓰였다. 청유문의 특성 상 동사가 서술어가 되어야 하므로, 부정 응답 ‘말다’의 부정 대상은 주어진 명제의 서술어를 부정한다고 보면 된다.

참고 문헌

1. 논저·사전

- 강정희(1980), “제주방언의 처격 ‘-디’에 관한 일고찰”, 『방언 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1981), “제주방언의 인용문 연구-피인용문의 문장어미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제4집,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어문학회.
- _____(2005), 『제주방언 형태 변화 연구』, 도서출판 역락.
- 고영근(1989), 『국어 형태론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_____(2007), 『한국어의 시제 서법 동작상』, 태학사.
- 고영근·구본관(2011), 『우리말 문법론』, 집문당.
- 고영진(1984), 『제주도 방언의 인용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2002), “제주도방언의 상대높임법의 형태론”, 『한글』 256, 한글학회.
- 고재환 외 6인(2013), 『제주어 표기법』,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고재환 외 5인(2014), 『제주어 표기법 해설』,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김광웅(2001), 『제주지역어의 음운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 김성룡(2004), 『제주방언 수량사 어휘 연구』,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홍(2014), 『제주방언의 통사 기능과 설명』, 경진출판사.
- 남광우 편(1971), 『고어사전』(보정판), 일조각.
- 남기심·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개정판), 탑출판사.
- _____(2015), 『표준국어문법론』(제4판), 박이정.
- 문숙영(2012), “인용과 화시소의 전이”, 『국어학』 65, 국어학회.
- 문순덕(1999), 『제주 방언의 부정 표현 연구』,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2003), 『제주방언 문법 연구』, 도서출판 세림.
- _____(2014), 『제주방언의 그 맛과 멋』, 보고서.

- 문순덕·고동호·양창용(2015), 『제주말 소멸위기 실증적 진단과 대응 방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 박용후(1988), 『제주방언 연구: 고찰편』, 과학사.
- 서정수(1995), 『국어문법』, 뿌리깊은나무.
- 송상조(2007), 『제주말큰사전』, 한국문화사.
- _____(2011), 『제주말에서 때가림소 ‘-ㅇ, -ㄴ’과 씨끝들의 호응』, 한국문화사.
- 유창순(1964), 『이조어사전』, 연세대출판부.
- 이관규(2010), 『개정판 학교 문법론』, 월인.
- 이승녕(1957/1985), 『제주 방언의 형태론적 연구』, 탑출판사.
- _____(1961), 『중세국어 문법』, 을유문화사.
- 이승욱(1973), 『국어 문법 체계의 사적 연구』, 일조각.
- 이익섭·채완(2006),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 임동훈(2008), “한국어의 서법과 양태 체계”, 『한국어 의미학』 26, 한국어의 미학회.
- 임지룡 외 6인(2015), 『학교문법과 문법교육』, 박이정.
- 정승철(1988), 『제주도방언의 모음체계와 그에 관련된 음운현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1991), “음소 연쇄와 비음운론적 경계-제주도 방언을 중심으로-”, 『국어학의 새로운 인식과 전개』, 민음사.
- _____(1995), 『제주도 방언의 통시음운론』, 태학사.
- 제주문화예술재단(2009),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제주특별자치도.
- 한국정신문화원(1995), 『한국방언자료집 IX : 제주도편』.
- 허용(1995), 『20세기 우리말의 형태론』, 샘문화사.
- 현평효(1974/1985), 『제주도방언 연구-논고편』, 이우출판사.
- _____(1976), 『제주도 방언의 정동사어미 연구』, 아세아문화사.
- 홍종림(1993), 『제주방언의 양태와 상』, 한신문화사.
- _____(2001), “제주방언 연결어미 ‘-n, -ㄴ’에 대하여”, 『국어학』 38, 국어학회.

2.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

- 박영목 외 4인(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 천재교육.
- 윤여탁 외 9인(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 미래엔.
_____ (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사용 지도서)』, 미래엔.
- 이관규 외 6인(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 비상교육.
_____ (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사용 지도서)』, 비상교육.
- 이도영 외 6인(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 창비.
_____ (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사용 지도서)』, 창비.
- 이삼형 외 8인(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 지학사.
_____ (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사용 지도서)』, 지학사.
- 한철우 외 7인(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과서)』, 교학사.
_____ (2015), 『고등학교 독서와 문법(교사용 지도서)』, 교학사.

찾아보기

[가]

간접 인용 154
감탄문 162
객체 높임법 201
격조사 106
접문장 149
고모음 25
고유 명사 101
고유어 70
공하의어 89
과거 시제 174
관계언 106
관형격 조사 108
관형사 134
관형절을 안은 문장 150
교착적 선어말 어미 127
교체 27
구 143
규칙 용언 132
규칙적 어근 56
긍정문 210
기본형 126
긴 부정문 212

[나]

높임 표현 201
높임법 201

[다]

다의 관계 88

다의어 88
단순 모음 18, 26
단어 39, 40, 45
단어 분류의 기준 94
단어의 구조 45
단어의 분류 94
단어의 의미 87
단어의 형성 45
단일어 45, 46
대등적 연결 어미 130
대명사 104
독립 성분 148
독립언 141
동반격 조사 111
동사 119
동위어 89
동음어 89
동음어의 관계 88
동음이의어 89
동의어 90
동작상 196

[마]

만주어 차용어 83
명령문 163
명사 101
명사절을 안은 문장 149
모음 18, 21, 25
몽골어 차용어 80
문장 143

문장 부사 137, 138
 문장 성분 144
 문장 억양 19
 문장의 표현 161
 문장의 확대 148, 149
 미래 시제 192

[비]

반모음 ㅏ 26
 반모음 ㅣ 26
 반의 관계 91
 반의어 91
 발화시 170
 방향격 조사 110
 변이음 20
 보조 용언 121
 보조사 113
 보조적 연결 어미 131
 보통 명사 101
 복합어 45, 48
 부사 136
 부사격 조사 108
 부사절을 안은 문장 151
 부속 성분 146
 부정 부사 138, 139
 부정 응답 표현 215
 부정 표현 210
 부정문 210
 분리적 선어말 어미 127
 분절음 18
 분절적 요소 18
 불규칙 용언 132
 불규칙적 어근 56
 비교격 조사 112

비분절적 요소 18
 비통사적 합성어 54

[사]

사건시 170
 사동 표현 166
 상 195
 상대 높임법 202
 상위어 89
 상의어 89
 상하 관계 89
 서수사 105
 서술절을 안은 문장 152
 선어말 어미 127
 성분 부사 137
 성상 부사 138
 소리의 관계 23
 소리의 바뀜 27
 수사 105
 수사 의문문 162
 수식언 133
 시간 표현 170
 시제 170

[오]

안긴문장 149
 안은문장 149
 양수사 105
 양태 부사 139
 어간 126
 어근 45, 56, 63
 어미 126
 어절 39, 143
 어절 억양 19

여격 조사 110
 연결 어미 129
 완료상 199
 용언 119
 용언의 활용 126
 원순 모음 26
 유의 관계 90
 유의어 90
 음운 20
 의문문 162
 의미 변화 92, 93
 의미 축소 93
 의미 확대 93
 의미 확장 93
 의미장 87
 의존 명사 101
 이어진문장 160
 이중 모음 18, 22, 26
 인용절을 안은 문장 152
 인칭 대명사 104
 일본어 차용어 81

[ㄱ]

자립 명사 101
 자음 18, 19, 23
 저모음 25
 전설 모음 25
 전성 어미 131
 절 143
 접두 파생법 56, 57
 접두 파생어 48
 접두사 55, 56
 접미 파생법 56, 57
 접미 파생어 48

접미사 56
 접사 45
 접속 부사 139
 접속 조사 113
 제주도방언 1
 제주방언 1
 제주어 1
 제춧말 1
 제춧말의 소리 17
 종결 보조사 116
 종결 어미 129
 종결 표현 161
 주격 조사 107
 주성분 144
 주체 높임법 201
 중국어 차용어 79
 중모음 25
 지배적 접사 59
 지시 대명사 104
 지시 부사 138
 직접 인용 153
 진행상 196
 짧은 부정문 210

[ㅋ]

차용어 78
 처격 조사 108
 첨가 34
 청유문 163
 체언 101
 축약 36

[ㅌ]

탈락 32

통사적 합성어 52

[ㅍ]

파생 접사 63

파생어 45, 55

관정 의문문 162

평서문 161

평순 모음 26

피동 표현 163

[ㅎ]

하위어 89

하의어 89

한자어 74

한정적 접사 57, 59

합성어 48

현재 시제 183

형용사 120

형태소 39, 41, 42

혼종어 84

홀문장 148

후설 모음 25

하라체 207

하여체 205

흡서체 202

집필진

- 연구 책임

오 승 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 공동 연구

고 동 호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송 상 조 (사단법인 제주어보전회 고문)

오 창 명 (제주국제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문 순 덕 (제주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총서 19

제죽말의 이해

발행일 : 2015년 12월 20일

발행인 : 강 기 춘

발행처 : 제주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http://www.jst.re.kr>)

인쇄처 : 경신인쇄사

문의처 : ☎ (064)747-6137

ISBN : 978-89-6010-440-2 93090